21세기 태양

5

선군영도



6.15주간 편집부



선군영도

6.15주간 편집부

선군영도

국방위원장 추대

최고사령관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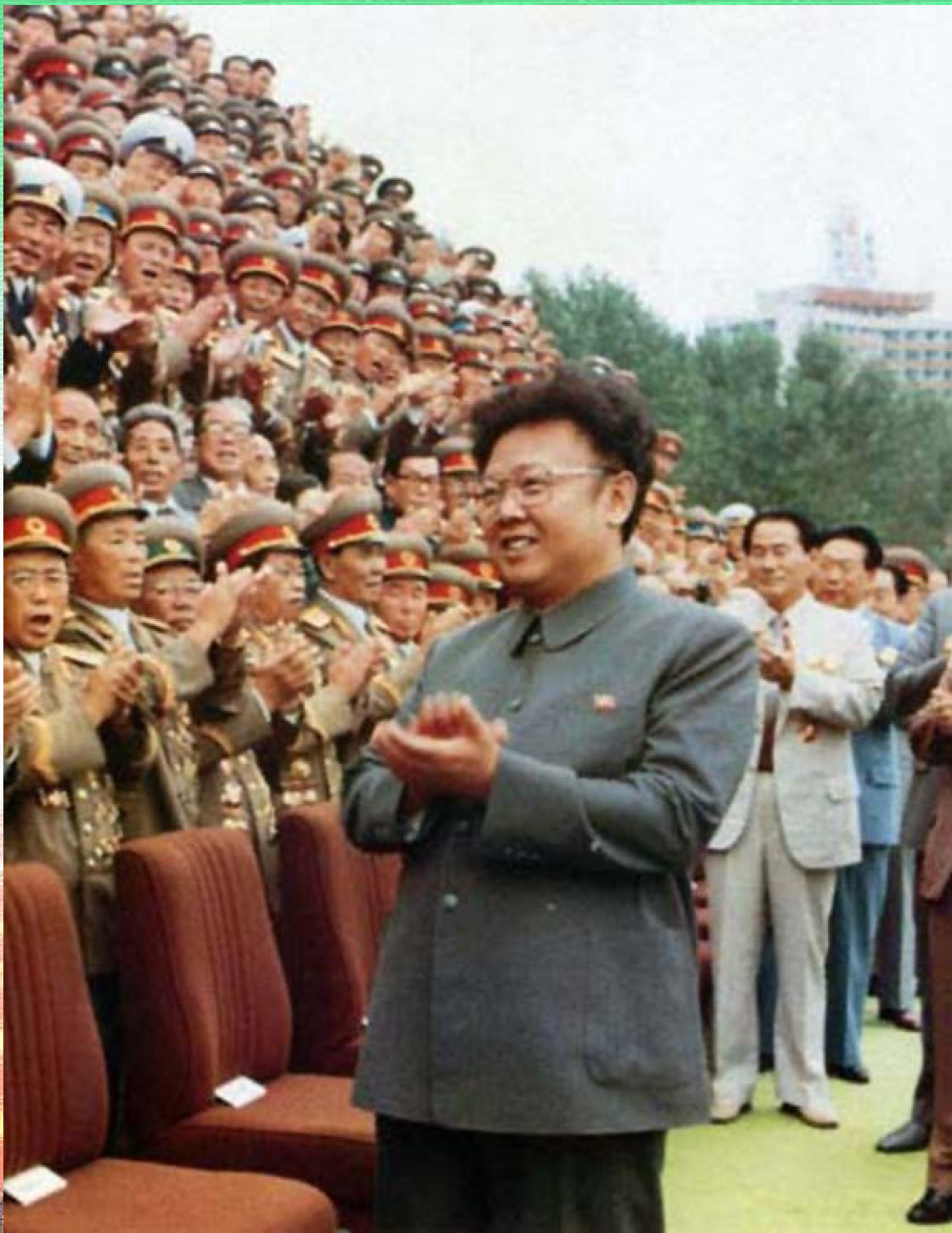
군현지지도

혁명실록

강성대국

정론

공동논설



선군정치

구국전선 / 김 수 학, 주체89, 11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는 선군정치로 백승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희세의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그분의 선군정치의 위력과 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으며 그럴수록 선군정치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높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는 그 지침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의 창시와 발전을 전제로 하며 무릇 정치는 정사를 펴는 정치가의 정치이념, 정치철학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영명하신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의 본의와 특징,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려면 그분께서 독창적으로 천명하신 총대중시사상과 선군영도철학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께서는 일찍이 총대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총대중시사상을 천명하셨으며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그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군사중시, 국방중시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 제시하시었다.

김정일영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시었다.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곧 인민이고 국가이고 당이라는 것, 이것이 **김정일**영수의 혁명철학이며 선군영도철학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의 총대중시사상과 군사중시, 국방중시의 전략적 노선, 선군영도철학에는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거듭되는 침략위협을 받으며 단신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이북 뿐아니라 지구촌의 진보적 인류가 모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초미의 근본문제에 대한 가장 명석한 과학적 해답이 주어져 있다.

오늘 지구촌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힘에 기초한 오만무례한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약소국가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태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와 유고사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을 괴수로 하는 서방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추호의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민중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면 군사중시, 국방중시를 국사중의 최대국사로, 일관한 전략노선으로 내세우고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침략을 물리치고 자주권을 지키는 힘도,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지키는 힘도,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하고 강성부흥을 이룩하는 담보도 군사를 중시하고 군력을 주력으로 하는 국방력강화에 있다.

총대중시, 군사중시 사상과 선군영도철학에 기초한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민중의 행복한 삶을 참답게 보장하는 애국, 애족의 정치이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철저히 짓부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애호정치이다. 더욱이 그것은 내우외환의 역경을 모두 전화위복으로 만들고 민족자주위업의 성공적 수행과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의 위대한 정치이다.

오늘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민중들이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면서 거기서 민족과 인류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필승의 신념을 굳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오늘 동서방의 어느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에서 승산을 본 나라, 미국으로 하여금 어쩌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굽어들게 하는 나라는 유독 이북 뿐이다. 힘에는 힘으로, 오만무례한 침략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 것이 이북의 기질이며 배짱이다. 세계가 탄복하는 이북의 이런 기상과 기질, 배짱이 위대한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의 결과로 이북이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부상된 데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북의 현실은 자주권수호의 최선의 방책도, 평화수호의 유일한 길도, 자주위업의 완성과 민족번영의 활로도 군사중시, 국방중시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선군정치로 군사적 힘부터 키우며 군력을 위주로 나라의 전반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선군영도로 역사의 기적을 창조

구국전선 / 기 성 철, 주체90, 4월 2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오신 지난 6년은 선군영도로 빛나는 업적을 창조한 승리의 노정이었다.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힘과 힘의 대결이다. 강대한 군력이 없이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 자주권을 지켜낼 수 없다. 영도자님께서는 독창적인 군중시노선을 내놓으시고 선군영도로 조선인민군을 어떤 대적도 단매에 거꾸러뜨릴 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었으며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을 단호히 짓부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무엇보다 영도자님께서는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군사중시노선을 제시하시고 군사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사상, 총대위에 사회주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사상, 다시 말해서 마치와 낫위에 총대를 놓을데 관한 군사중시노선, 총대중시사상을 제시하시었다.

선군영도는 말그대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데 우선적 힘을 넣는 탁월하고 독창적인 영도방식이다. 즉 선군영도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영도방식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언제나 인민군대를 중시하고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면서 전체 민중이 군사에 관심을 돌리고 군대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또한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거머쥐고 나가시었다. 선군정치는 영도자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밝히신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역사의 준엄한 난국을 헤쳐가던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당과 온 사회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었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 군인정신이 차넘치고 군대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선군정치를 만능보검으로 거머쥐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시었으며 역사에 유례없는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시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 인사들은 영도자님의 선군정치

를 ≪사회주의강경보루를 낳은 일거양득, 일석다조의 만능의 정치≫,≪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기치≫라고 경탄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또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군대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주체83(1994)년 8월부터 주체88(1999)년 5월까지 무려 4백30여개소의 군부대, 구분대를 찾으시었다. 그 길은 무려 12만350여리나 된다. 이 기간에 영도자님께서는 철령을 6차례나 넘으시였고 쪽잠으로 피로를 푸시고 주먹밥으로 끼니를 드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실 때마다 먼저 부대들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과 현지교시판, 현지말씀판, 현지시찰사적비, 사상교양실들을 돌아보시고 수령님의 거룩한 현지지도 발자취가 어리어 있는 노정을 따라 걸으시면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할데 관해 세심히 가르치시었다. 이와 함께 영도자님께서는 군인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이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이도록 하시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자로 교양, 육성하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영도자님께서는 전군이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숨쉬고 행동하며 당의 영도를 충실히 받들어 나가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이북의 인민군대는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고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끊임없는 전선시찰과 영도로 이북의 인민군대는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거꾸러뜨릴 수 있는 현대적인 방어수단과 공격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오늘 세계는 이북의 무력을 가리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무적의 군대≫,≪필승불패의 세계적인 강군≫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군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가속화해 나가도록 이끄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제일 긴요하고도 어렵고 힘든 부문들을 맡아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중요 발전소건설과 토지정리 등 대자연개조사업 그리고 인민경제의 중요한 모퉁이들을 맡아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또한 전당과 전민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남들 같으면 열백번 쓰러졌을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게 하시었으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는 탁월한 영도로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고양을 일으키시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난의 행군≫시기에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들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거창한 자연개조공사를 빛나게 수행하는 위훈을 떨치었다. 이 과정에 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 군인정신은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당이 맡겨준 전투적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야 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민중을 위해서는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자기희생정신, 영웅적 투쟁정신이였다.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시대의 혁명정신으로 창조된 혁명적 군인정신은 전민의 생활기풍, 투쟁기풍으로 되어 이북에서는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강행군≫시기에도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들이 창조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창조된 빛나는 혁명실록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선군정치로 수호되는 자주위업

구국전선 / 김 광 철, 주체90, 6월 11일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은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거세하고 말살하기 위해 역대적으로 악랄하게 책동해 왔었다. 특히 20세기 말엽에 이르러 구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로 인한 비극적인 사태 앞에서 더욱더 기고만장해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사회주의의 성새이고 보루인 이북을 압살하기 위한 총공세를 가하였다.

엎친데 덮친다는 격으로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 또한 이북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게 하였다. 진보적 인류는 커다란 우려와 불안, 위구 속에 이북을 지켜 보았다.

역사가 알지 못하는 그 준엄한 대결전에서 절세의 위인이시고 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치켜드신 것은 바로 선군의 기치이다.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여기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신 위대한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는 세계를 경탄시켰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늘 전선길에 계시었다. 자신의 생신날에도 초소의 사병들을 찾으시었고 온 나라 국민이 다 즐기는 설날에도 그리고 휴일에도 그분께서는 눈비를 맞으시며 최전연의 고지를 찾아 험한 길을 걸으시었고 파도사나운 바닷길을 헤치시며 국력강화에 전렴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민족의 안녕과 사회주의운명, 자주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떠맡아 안으시고 늘 전선길을 걸으시었던 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어 원수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과 사회주의위업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적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정력적인 선군정치와 선군영도로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북, 반사회주의압살책동은 산산이 짓부숴졌다. 무적필승의 위대한 영장의 선군정치의 위력 앞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핵≫소동도, 고립압살책동도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했었다.

역사는 위대한 영도자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야말로 사회주의위업, 자주위업수호의 강력한 무기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역량상 대비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이북이 세계≪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을 군사, 외교적으로 압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에 유례가 없는 모진 역경 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단독으로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오신 위대한 영도자님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특출한 위인상은 진보적 인류에게 필승의 자신감과 용기, 희망과 낙관을 안겨주었다. 세계 진보적 인류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근로민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진전시켜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님의 모습에서 총대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는 진리를 새겨안았다.

얼마전에 마다가스카르 전국라디오방송은 21세기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인류는 21세기를 사회주의조선의 **김정일**영도자의 존함과 결부시켜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김정일**영도자가 사회주의운동의 향도자이시며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을 지켜내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기 위해 평양선언을 발표하도록 하심으로써 세계 사회주의재건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었다.

그분께서 영도하시는 조선은 존엄있는 국가로 명성을 떨치며 세계를 자주화에로 고무하고 있다.

김정일각하는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이상적인 지도자이시다.

21세기가 시작된 오늘 인류를 위해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김정일**영도자이시다.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다.≫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수행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진보적 인류가 확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역사의 모진 시련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선군정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구국전선 / 박 남 순, 주체90, 9월 1일

우리 한민전 전위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민족자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 쌓으신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오늘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해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변혁운동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며 군대를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국정전반을 밀고 나가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변혁운동승리의 만능의 보검으로 높이 드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전대미문의 준엄한 위기 속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안아오시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포위 속에서 단신으로 맞서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이북의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의 정당성과 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지나온 역사는 군력이 약하면 나라가 망하고 위대한 영장을 모시지 못하면 민족은 치욕을 면할 수 없다는 피의 교훈과 진리를 남겼다.

이 역사의 철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수호를 위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군대의 강화발전에 온갖 심혈을 다 바쳐 오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대를 사상의 강군, 무적의 강군으로, 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키우시었다.

군건설에서 사람중시는 장군님의 영군철학이다. 그분께서는 군사를 싸움에서 하나의 인적재료나 무기의 종속물로 보는 선행군사가들의 함대중심론, 탱크중심론, 항공우위론과 같은 무기중심론이 아니라 군인들의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한 주체의 군건설영도로 이북의 군대를 영도자와 조국과 민중에게 충실한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만드시었다.

장군님께서는 군대의 전투준비와 무장력강화에 정력적인 노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이북의 군대를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격파할 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는 총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나는 곡절많은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육해공군의 수많은 부대들과 최전방초소들을 현지시찰하시었다. 이 나날에 그분께서는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는 전사들과 야전식사도 함께 나누시고 전호가에서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군시찰을 25차례나 하시었다 한다.

주체90(2001)년 1월~6월까지 장군님께서 명절과 일요일을 군부대현지지도로 보내신 날만 보아도 다음과 같다.

1월1일(설명절) 조선인민군 제932군부대 방문
1월24일(음력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4월15일(태양절) ≪오중흡 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제2629군부대 방문
4월25일(건군절) 조선인민군 제671군부대 방문
5월13일(일요일) 조선인민군 제243군부대관하 포중대 시찰
5월20일(일요일) 조선인민군 제256군부대 시찰
6월25일(단오날) ≪오중흡 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근위제1보병사단 시찰

감동을 금할 수 없는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시기 위해 선군영도의 나날을 이어가고 계시는 장군님의 노고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군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시었다.

그리고 군대와 민중의 관계를 혼연일체로 더욱 다져 나가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민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군대의 전통적 미풍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민중과 떨어진 군대는 뿌리를 끊기운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고기와 같다고 하시었다.

민중이 군대를 친혈육,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물심양면으로 원호하며 군대는 민중을 친부모, 친형제로 여기고 민중의 생명재산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군민의 혈육의 정과 영웅적 소행은 이북에서만 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오늘날 이북의 군대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 있으며 이북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었다. 만일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이북도 이라크와 발칸반도 나라들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을 것이며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 나라와 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참화를 당했을 것이다.

선군혁명영도와 민족의 미래

구국전선 / 조 연 택, 주체90, 9월 11일



판문점을 현지지도하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5(1996)년 11월

오늘도 변함없이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억세게 이어가시는 백두의 영장 **김정일**영수님의 거룩한 모습은 우리 이남민중 뿐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찬탄과 흠모의 정을 끝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명절이나 휴식일에도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쉼없이 걸어오시었다.

올들어서만도 수십차에 걸쳐 군부대시찰을 단행하신 것으로 알려진다.지난해 10월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투쟁해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영수님의 선군혁명영도, 그것은 민족의 안녕과 미래를 위한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위업이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사면팔방으로 달려들던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 영수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의 기치를 드시고 그동안 끊임없는 선군혁명영도의 거룩한 자국을 새겨오시었다.그리고 군민이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도록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군민이 부닥치는 난관을 웃으며 이겨내도록 하시었다.

영수님의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는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위대한 총대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가장 정당하고 위력한 정치방식이고 영도방법이다. 역사는 군대가 강하지 못하고 국방력이 약하면 조국과 민족의 안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역사가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와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 저들의 흉악한 지배주의적 정책에 장애로 되는 나라들을 무력을 동원하여 침략하고 압살해 왔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침략과 고립압살책동이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이다.

만일 **김정일**영수님의 탁월한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가 없었다면 과연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미국은 이라크처럼 북침전쟁을 감행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번져 3천리강산이 폐허로 되고 우리 민족은 참화를 또다시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수님께서 선군혁명영도로 이북의 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원자폭탄으로도 깰 수 없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루어냈기에 미국은 감히 침략의 불을 지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은 영수님의 선군혁명영도의 빛나는 결실인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영수님의 선군혁명영도사는 성스러운 미래사랑의 위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영수님께서는 오늘만이 아니라 통일강성대국에서 행복을 구가할 민족의 휘황한 내일을 위해 고난도, 시련도 달게 여기시며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시었던 것이다. 이 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새 세기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통일의 길에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고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위대한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에서 우리 민중은 통일조국과 융성번영할 민족의 내일을 보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정력적인 선군령도

조선중앙통신



(평양 주체 88년 12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군사강국의 기둥,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인민군대의 강화발전,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정력적인선군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올해에만도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615군부대와 제324대련합부대 지휘부, 제959고사포병군부대, 제155군부대, 제1130군부대 섬방어대, 최현군관학교, 땅크자동차병군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 군부대들과 군사교육기관들을 시찰하시였다.

군부대시찰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사적비와 현지교시판, 혁명사적교양실 등을 먼저 찾으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건설에 쌓아올리신 주석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개풍군일대를 방어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금성친위군부대와 제287군부대, 제715군부대를 비롯한 여러 최전연군부대들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몸소 고지에 오르시여 작전수립과 임무수행 정형을 료해하시고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방어전역을 금성철벽의 요새로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지난 4월 25일에는 조선인민군 제690군부대와 제946군부대, 제963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고 명절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도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고 이 부대관하 군부대군인들의 종합훈련과 제682군부대 군인들의 동기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군인들속에 계시면서 모든 부대들이 오늘의 ≪오중흡7련대≫(항일무장투쟁시기 사령부보위의 본보기련대) 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병실에서 그들의 소박한 예술소품공연도 보아주시였다. 그리고 침실, 식당, 창고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조선인민군은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기에 오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필승의 선군정치

로동신문

(평양 주체 88년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위대한 선군혁명로선이 있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력은 만방에 떨쳐질것이며 이 땅우에는 반드시 통일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론의 필자는 군사를 국가정치의 중핵으로 내세우고 나라의 국방력을 무적불패의 것으로 다져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바로 이것이 영웅조선이 제국주의와 단독으로 맞서 인류의 정의를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낸 90년대 영웅조선의 비결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론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선군정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군중시사상, 총대철학이 내온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는 오직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것이 최고의 리상, 최상의 목적이며 바로 이것이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신념과 의지의 기둥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총대를 높이 드시였고 총대처럼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을 지니시고 선군정치의 새 력사를 펼치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력사를 이어가고계신다.

그 길이 비록 정치가로서, 한나라의 령도자로서 남모르는 고통과 가슴아픔도 겪어야하는 쉽지 않은 길이였지만 그것이 혁명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는 최상의 선택이고 방략이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추호의 동요없이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오시였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일떠서는 무적필승의 강국이다.

우리 군대의 사상과 신념, 정신과 문화를 본보기로 하고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이 세상 그 어떤 원쑤도 범접할수 없고 인민들이 부럼없이 사는 나라,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최강의 위력을 떨치는 본보기나라를 일떠세우자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한다고 하면서 정론은 만일 원쑤들이 이 땅에 감히 선불질을 한다면 우리는 세기를 두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켜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

인디아공산당총비서



(평양 주체 88년 1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8돐에 즈음하여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에취. 에쓰. 쑤르지트가 16일 이 나라 주재 조선중앙통신사 특파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회견에서 오늘 조선혁명은 제국주의의 포위와 항시적인 군사적위협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선군정치는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라고 말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헤치면서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이의 사회주의건설로선과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을 기울이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이 미제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나는 굳게 확신한다.

선군정치, 인덕정치로 빛나는 위대한 나라

도미니까근로자당 위원장

(평양 주체 89년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도미니까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반 로드리게스는 귀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은 선군정치, 인덕정치로 빛나는 위대한 나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시대의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여 오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제일 무서워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오늘 조선에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화폭이 펼쳐 지고 온 나라, 온 사회가 신심과 랑만에 넘쳐 있는현실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인덕정치가 안아 온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의 일심단결은 한마디로 령도자는 인민에게 덕을 베풀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 주며 인민은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고 결사옹위하는 도덕의리와 운명공동체로 결합된 가장 공고한 단결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제국주의강적을 군사적위력으로 제압하고 시련과 난관을 일심단결의 힘으로 극복하며 전진하는 조선은 실로 위대한 나라이라고 지적하고 인덕정치가 구현된 조선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령장의 령도방식

(평양 주체 89년 5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선군정치로 나라의 군사적위력과 전반적국력을 다 같이 강화하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독특한 령도방식이다.

선군정치방식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다. 이것은 조선에서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 군대는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이다, 군대가 강해야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밝히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선군령도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시고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군건설의 일대전성기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인민이 최근년간에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은것도 인민군대를 가장 충직한 혁명대오로 굳게 믿고 내세우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군령도의 결과이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부터 지난해말까지 5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490개에 달하는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그 로정은 무려 12만 9, 900여리나 된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에게 혁명군대의사명감과 높은 계급의식을 심어 주시고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대처할수 있는 작전적대책까지 세워 주시면서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밝혀 주시였다.

하여 전군이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자라나 제국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대결에서도 불패의 위력을 과시할수 있었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또한 그이께서는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만 하여도 인민군군인들은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조성된 경제적난관을 뚫고 도처에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 세웠다.

이런데로부터 조선에서는 전 국가적, 전 사회적으로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혁명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고 있으며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는 기풍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참으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령도가 있기에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수호자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혁명의 핵심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될수 있었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수호의 보검

로씨야에서 토론회

(평양 주체 89년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관한 로씨야련방연해변강지역의 여러 정당, 운동, 단체, 조직들의 련합토론회가 10월 25일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로씨야련방공산당,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군대지지운동 등 여러 정당, 운동, 단체의 연해변강조직들의 대표들과 열성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방식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독특한 정치방식이라고 하면서 이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할것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일심단결과 선군정치

로동신문

(평양 주체 89년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17일부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한 론설을 실었다.

개인필명의 론설은 선군정치의 위대한 력사를 펼치시여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다져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세기에 빛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 전례없이 높아 지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선군정치가 없으면 우리 조국도, 우리 식 사회주의도 없다는 철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였기에 우리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를 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고 있다고 론설은 강조하였다.

론설은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는 또한 우리 혁명대오를 수령결사옹위의 위력한 결정체로 전변시킬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되였으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도덕적풍모에서의 완전한 일치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혁명력사를 영원히 일심단결의 승리의 력사로 빛내여 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주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방식

몽골주체사상연구대표 반향



(평양 주체 89년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를 방문한 몽골주체사상연구대표 엔. 볼드는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해 나가고 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혁명령도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귀국의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김정일**동지께서 펼쳐 가시는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내 세우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도적역할을 하도록 하신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야말로 자주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방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은 확정적이다.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탁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불굴의 의지를 지니시고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고 계시기때문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자질과 풍모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

그이처럼 가장 준엄한 시기에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군건설위업에 그처럼 커다란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인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몽골인민은 조선의 령도자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에 대하여,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몽골인민에게 널리 알려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각국 인사, 선군정치 칭송

(평양 주체 90년 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조선인민이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그이의 선군정치, 선군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것이다. 미국무장관이 태평양을 건너 조선을 찾아 오고 유럽동맹의 많은 나라들이 귀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은 조선의 대외적권위가 얼마나 높아 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 준다.

≪조선의 놀라운 현실에서 나는 선군정치야 말로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반드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가장 완성되고 독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도미니까통일된좌익운동 총비서 미겔 메히아가 귀국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만이 아닌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많은 외국의 벗들도 한결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에 경탄 을 표시하고 있다.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대표단 단장 울라지미르 똘스찌꼬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세계 그 어느 정치사에도 있어 본적이 없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문자 그대로 전무후무한 정치방식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대를 틀어 쥐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없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여러 나라들의 경우가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진정 **김정일**동지의 정치방식, 선군정치야말로 21세기 사회주의정치, 자주정치의 빛나는 표본으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 수천년을 흘러 오며 초월할수 없는 불변의 공식처럼 간주되여 오던 기존정치리념, 정치방식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제국주의와의 격렬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수호라는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여 선군혁명령도에 의한 정치의 새 력사, 선군정치의 위대한 력사를 펼치신것은 인류사에 특기할 세계사적업적이다.

선군혁명로선

(평양 주체 90년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선군혁명로선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이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선군정치는 그 위대한 견인력과 생활력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90년대 중엽에 여러해째 계속된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나라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 군대를 강화하고 군민의 단결된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시찰하시면서 군대가 조국보위는 물론 경제와 문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 주체84(1995)년 1월부터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로정은 14만여리에 달한다.

이 과정에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 그 어떤 정황에도 대처할수 있는 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뿐만아니라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변청년발전소와 같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 전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게 하였다. 또한 현대적인 가금공장과 양어기지들, 새 세기에 상응한 수많은 본보기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웠다.

인민군대에서 발휘되고 있는 이러한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은 오늘 거창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황해남도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 그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낸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생활력과 진리성이 검증된것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 있다.

가이아나, 선군정치를 칭송하는 뷸레찐발행

(평양 주체 90년 5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가이아나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가이아나위원회,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 가이아나전국위원회가 공동명의로 조선에서의 선군정치를 칭송하는 뷸레찐 ≪조선인민군은 나라의 기둥≫을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조선에서는 군대가 나라의 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여기에 조선인민군이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와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뷸레찐은 조선인민군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냈으며 전후에도 제국주의자들의 끊임 없는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공화국을 튼튼히 수호한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이 오늘 강력한 사회주의보루로,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위용떨치며 세계진보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것은 인민군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조선에서 군대가 노는 역할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건설의 총 로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주력군으로 되고 있다.

뷸레찐은 조선의 이 특유한 사회현실은 이 나라 정치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기본정치방식은 선군정치이다.

그이에 의하여 창시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은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정치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강력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조선은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의 튼튼한 담보

(평양 주체 90년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17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독창적인 군중시로선을 내놓으시고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군사적위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 주시며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고 계신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안전의 튼튼한 담보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민족의 존엄과 안전은 군대의 힘에 달려 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의연히 힘의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력한 군사력이 없이는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 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미제가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밑에 작성한 ≪작전계획 5027-98≫을 물거품이 되게 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온 민족의 안녕을 지켜 주고 있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번영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이의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반도와 아시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전체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직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분쇄함으로써만 조선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여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야말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민족의 존 엄과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가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현지지도의 길우에 빛나는 선군령도의 위대한 력사

로동신문



(평양 주체 90년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26일부 ≪로동신문≫은 론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선군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김정일**령도자의 수십성상에 걸치는 혁명활동력사는 현지지도의 빛나는 력사로 아로새겨 져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력사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워 온 선군령도의 빛나는 년대기이다.

주체83(199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그이께서는 275차에 걸쳐 560개 단위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였다. 이 나날에 그이께서 걷고 걸으신 로정은 무려 14만 5천 800여리에 달한다. 지난 5월에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4천 400여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력사는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앞날을 열어 놓은 선군시대의 불멸의 실록이다. 그이께서는 선군령도를 통하여 군대도 강화하시고 강성대국에로의 도약대도 마련하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 놓으시였다.

인민군전사들을 찾으시여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선군시대를 추동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게 하시고 온 사회에 인민군대의 사상과 정신,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그대로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로 타오르고 우리 혁명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겨 내고 강성부흥의 힘찬 진군을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력사는 군대와 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한결같이 그리워 하고 따르는 일심단결의 서사시를 펼쳐 놓은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투철한 수령숭배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 운명의 수호자, 위대한 어버이, 인생의 스승으로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그이를 받드는 길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것이 우리 혁명대오의 긍지 높은 모습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 오신 선군혁명령도의 력사는 군인출신의 정치가, 실력가형의 위인, 뜨거운 병사애, 인민애를 지닌 위인만이 수 놓을수 있는 로정이다.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선군시대의 빛나는 서사시를 수 놓으시며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의 밝은 앞날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 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김정일총비서의 선군정치를 칭송

로씨야인사들

(평양 주체 90년 8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광범한 로씨야인사들은 독창적인 선군령도로 사회주의위업과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끝없이 흠모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현 시대의 걸출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로씨야 ≪빨레야-미쉰≫출판사 총사장 니꼴라이 미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는 로씨야에서 크게 울려 나오고 있으며 조선인민에 대한 우리 로씨야인민의 친근한 감정도 더욱 두터워 지고 있다.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천품을 지니신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을 중심으로 자주의 궤도를 따라 지구가 돌고 있다. **김정일**시대가 펼쳐 지고 있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진보적인류는 그이를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령도 따라 세기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며 전진하는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야 말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로씨야의 저명한 작곡가 겐나지 샤린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자기의 열화 같은 흠모와 칭송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김일성 조선의 태양
장군님 이어 가시네
주체사상 세계를 비치네
수억만 앞길 밝히네
행복의 위대한 창조자
평화의 억센 수호자
온 지구의 희망과 등대
축하합니다 **김정일**
. . .

로씨야 ≪빠뜨리오뜨≫ 정치론평원 이리나 뻬로고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기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실뿐아니라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갈줄 아는 능력을 가지게 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바칠줄 아는 투사로, 다시말하여 태양을 따르는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였다. 군대와 인민은 자기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숭배하며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철저히 준비되여 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하고 있는 모든 기적들은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결실이다.

로씨야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련이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조선이 힘 있게 전진하고 있을뿐아니라 날이 갈수록 온 세상에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 비결은 조선이 력사의 어느 명장들과도 견줄수 없는 위대한 령장이신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있는 강력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김정일**동지는 선군정치로 백승의 력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최고사령관,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선군정치

김정일장군 정치철학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60돐경축 열병식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주체81(1992)년 4월

선군영도

클린톤은 판문점을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곳≫이라고 했다. 왜 클린톤이 판문점을 세계에서 제일 무시무시한곳이라고 했겠는가.

그것은 판문점에서 미국의 역대 장군들이 머리를 숙이고 사죄문과 항복서를 쓴곳이고 세계 ≪최강≫을 뽐내던 미국이 련속 강타를 얻어맞고 서산락일의 운명에로 떨어진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울려나오는 이북 인민군대의 불호령이 매일과 같이 미국을 전률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은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이 직접 여기에 나오시어 이남에 도사린 미군기지들을 내다보시고 멸적의 지략을 펼치신곳이다. 판문점만이 아닌 온 이북땅이 **김정일**장군의 휘하에서 미국의 도전에 맞설 서리발총창을 벼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북의 인민군대의 위력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족국가의 지도자나 영웅은 3가지 형태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째 형태는 국토방위형이고 둘째 형태는 해외침략형이며 셋째 형태는 국토통일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장군의 위상은 첫째형과 셋째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김정일**장군은 국토방위형 지도자, 조국통일형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장군은 국토방위형 지도자이시지만 방어에도 공격에도 다 준비되어 있은 탁월한 군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사전략가이시다. 자위에 신심 드높고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인민군대의 위력은 **김정일**장군의 군중시정치의 빛나는 소산이다.

역사는 군사를 중시하지 않고 소홀히 할 때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1940년 4월 9일 도이췰란드군은 단마르크를 불의에 공격했는데 그때 단마르크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어 4시간만에 항복하였다.

1973년 9월 11일 오전 9시 10분 칠레인민연합의 알옌데대통령은 대통령관저인 모네타궁전에서 쿠데타부대와 싸우다가 전사했다. 삐노체뜨 칠레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3년간 존속한 알옌데정부를 전복하였다. 쿠데타부대는 민중의 아무런 저항도 받음이 없이 불과 하루만에 수도 싼띠아고를 점령했다.

알옌데정부의 몰락을 빚어낸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군대의 ≪비정치성≫, ≪정치적중립성≫을 표방하면서 정권이 군대에 대한 지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인민연합정부는 ≪군대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혁명을 하려면 무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군대를 틀어쥐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1등급의 쏘베트혁명무력은 고르바쵸브나 옐찐이 쏘련제국을 자본주의적으로 붕괴시키고 있은 것을 알면서도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한 나라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오늘 세계정치상황은 어떠한가. 세계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오늘에 와서도 전쟁의 와중속에서 헤여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쉼없이 벌려오던 미국은 나토를 부추겨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항공타격, 미싸일타격으로 타국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였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는 1만 4천 6백여 차례의 크고작은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시간적 비률은 4:1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인류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반세기기간만 해도 세계에서는 150여차례의 무장충돌과 국지전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을 ≪합법적 정치도구≫로 간주하면서 ≪가동적 국경론≫, ≪확대전략외교≫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모든 나라가 자기를 지키려면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나꼬와 같은 몇개 나라들처럼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도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에스빠냐에서는 군사복무기한이 9개월밖에 안되는데 그것마저도 1995년 12월현재 군사복무를 거절한 청년이 3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이 의연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열강들의 강권적 군사개입이 중지되지 않고 있은 상황에서 각국이 자기를 지킬수 있는 군사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의 위험이 광란하고 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킬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힘을 가진 나라는 이북이다.

오늘 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는 어느 군대인가. 그것은 이북의 **김정일**장군의 군대이다. **김정일**장군이 최고사령관으로 되고 있은 이북의 인민군대의 위력은 세계의 그 어떤 침략군대도 일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적의 군대이다.

미국은 반세기이상이나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시도했으나 오히려 북과의 대결에서 만신창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북의 국방력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으로 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이다.

김정일정치에서 가장 중시되고 그 핵심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군대, 군사에 대한 정치이다. 말하자면 군사중시정치라 할 수 있다.

김정일정치는 지도자일반이 제기하는 군사정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간주하시고 시종일관 견지하시는 선군정치, 군사중시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예로부터 국사중에서 가장 큰 국사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군사를 중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가르치시었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국사중에서도 가장 큰 국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따라서 군사를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장군의 정치관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선군정치를 자신의 정치방식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신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대에서 정권도 나오고 제도도 나온다, 총대가 강해야 당도 위력하고 사회주의제도도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혁명을 하자면 군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러한 정치관은 이북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열강들의 끈질긴 군사정치적 공갈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지켜내고 끊임없는 변혁과 성공을 거둘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무(武)라는 글자는 창과(戈)자와 그칠지(止)자를 합한 것이므로 무기, 무력은 권력을 쟁취하거나 전쟁을 도발하는 수단으로는 써서는 안되고 자체방어를 위한 도구로써만 써야 한다는 엄격한 뜻을 담고 있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상비군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무력이 필요없거나 또는 상비군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이 역사의 동반자로 되어 인류사에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고 있은 현실은 군대를 더욱 주요시해야 할 절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칼 슈미트와 같이 ≪전쟁의 보존≫을 제창하는 제국주의세력은 의연히 존재한다. 히틀러는 ≪생활이란 곧 전쟁≫이라고 했다.

또한 탈랭전-데탕트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증대되고 있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제국주의적전횡을 간과하여 레닌이 ≪무장철폐≫를 제창한 기회주의자들의 주장에 타격을 가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를 무장해제한 후에야 비로소 온갖 무기전체를 파괴해버릴수 있으며 의심할바 없이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렇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레닌도 군대문제, 군사문제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활동에서 어떤 위치에서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혁명에서 무장이 노는 역할과 현 정세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하시어 군사중시정치, 선군정치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일관성있게 견지하고 계신다.

그러면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의 핵심적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간주하는 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우리 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

이라고 가르치시었다.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보는 것은 군대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날에는 군대, 무력은 다만 나라를 지키는 수단으로만 간주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장군께서는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단순한 국방수단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규정하시었다.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라는 것은 군대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력을 다져나가는데서 기본력량, 핵심

력량이라는 것을 말하며 군사가 건전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굳건히 지켜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실지로 이북에서는 군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력량이 되어 사회주의건설도 담당하고 방위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정신과 기풍, 일본새가 전국의 모범으로 되어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모델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고사령관으로서 선군영도로 전당, 전국, 전민을 이끌고계신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전민을 교양하고 군인들의 혁명적 일본새를 따라배우도록 하시면서 전민, 전국을 가성대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일**장군께서는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는 유명한 군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혁명영도에서 철저히 구현하고계신다.

투철하고 현명한 군중시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북은 걸음마다 미국의 군사적도전을 짓부시고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었다. 1991년 3월 미국국회가 북에 대한 ≪120일 고강도 전쟁구상≫을 작성하고 ≪엔테베식기습공격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현될 수 없었다. 1993년 ≪핵사찰≫소동을 벌리면서 또 한번 ≪평양타격≫이요, ≪녕변타격≫이요 하면서 허장성세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미국은 1998년, 1999년에 이르러서는 ≪5027작전계획≫을 짜놓고 ≪외과수술식타격≫같은 것을 시도했지만 그것 역시 물거품으로 흩어져버렸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선군정치, 군사중시정치로 이북을 세계일등급의 자위국으로 전변시켰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들의 그 어떤 도전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군사중시정치는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익히시고 구현해오신 정치이다. 그분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총소리를 들으시며 성장하시었고 **김일성**주석의 특출한 군사사상에서 그 진리를 배우시고 무르익혀오시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11살 어리신 나이에 벌써 **김일성**주석으로부터 권총을 넘겨받으시었고 6. 25전쟁시기에는 제국주의전쟁을 이길수 있는 지략을 체득하시었다.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조선에서 전쟁의 불구름이 일던 1952년 여름 어느날, 포병사령관이 **김일성**최고사령관의 부름을 받고 작전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그때 **김일성**최고사령관께서는 어리신 자제분이었던 **김정일**장군과 담화를 하시던중이었다.

김일성최고사령관은 작전대위에 두자루의 색연필을 따로따로 놓으시며 **김정일**장군(당시 10살)에게 물으시었다.

≪이쪽 연필은 사람이고 이쪽 연필은 총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느것을 가지겠느냐?≫

어리신 **김정일**장군은 심중한 안색으로 두 연필을 번갈아 쥐였다놓았다하며 생각하시었다. 포병사령관은 분명 **김정일**장군이 총을 가지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울리였다.

≪난 사람을 가지겠습니다.≫
≪그건 왜?≫
≪싸움에서 사람이 제일이 아닙니까.
사람만 있으면 총이란건 생길수 있지만 사람이 없이 총만 있어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총을 쏘는 것도 사람이고 병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이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사상이 이미 수십년전에 정연한 원리와 체계로 정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에서 또한 주요한 것은 주체적인 총관의 구현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대가 혁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이라는 주체적인 군사관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은 혁명적인 총관, 총의 철학을 구현할 때 실현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는 총대를 사랑하고 총대와 운명을 같이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구현한 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의 철학을 군사중시정치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북의 군대가 그분의 영도에 충성다하는 명실공히**김정일**군대로 될 수 있었다.

그러면 **김정일**장군의 총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나는 언제나 총과 숨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총에 대한 나의 지론이고 총관입니다.≫

총의 철학, 총관이란 총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고 혁명동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은 영도자와 운명을 같이하며 영도자를 받드는 영원한 길동무이고 혁명동지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총의 주인이란 총대를 만들고 지휘하고 그 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영도자이다.

김정일장군은 총과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때문에 그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총에 대하여 잘 알고계시며 누구보다도 총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김정일**장군의 총의 철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혁명에서 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총대에서 정권도 나오고 제도도 나오며 총대가 강해야 당도 강하고 사회주의제도도 든든하다는 것이다. 총대가 없는 당과 국가, 제도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총의 철학이다.

총은 혁명을 위한 수단이다. 총은 정권을 분만하며 민중을 위한 사회제도도 출산시킨다. 그리고 일단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도 총대가 든든해야 당도 강화할 수 있고 제도도 강화할 수 있다.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것은 총이 정권을 낳는다는 것을 뜻한다. 소여정권은 소여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며 따라서 어떤 계급이든지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권을 가지려 한다. 정권을 분만시키고 지키는 것은 총이다.

혁명적 폭력은 최고의 힘이다. 총을 동반하는 혁명적 폭력만이 혁명적인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정권이 총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대는 당이 장악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혁명의 원쑤들도 총을 최고의 반항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혁명이 반혁명을 제압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혁명의 총을 가져야 한다. 총이 없는 혁명이 승리할 수 없고 총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 군인대중이 혁명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적수공권의 군인대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대중의 손에 총이 쥐여져야 하며 그것이 불을 토할 때 적을 격파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혁명의 총은 혁명의 위력한 수단으로, 무기로 된다.

총대를 당이 장악해야 한다는 것은 당이 군대를 장악하고 영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중의 자주위업은 수령에 의해서 개척되고 수령의 영도밑에 승리하기 때문에 군대가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으며 군대가 수령의 군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수령의 영도를 떠난 군대는 그 존재자체가 무의미하며 또한 아무러한 위력도 발휘할 수 없다. 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되어야 자기 본연의 사명에 맞게 민중의 자주위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의 철학으로부터 출발하시어 혁명활동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군대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걸쳐 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총의 철학은 둘째로 총이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라는 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나에게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동지가 있다, 그것은 나의 총이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총이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는 것은 총이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동반되는 필수적 수단이라는 것을 뜻한다.

혁명은 총으로부터 시작된다. 총에 의해 혁명이 승리하고 옹호고수되고 총에 의해 혁명이 완성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주성, 민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기 위한 역사의 반동들의 책동이 그들의 손에 쥐여진 총에 의해 감행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피착취계급이 자기의 해방을 위해 초기에 적수공권으로 투쟁에 궐기했으나 무장한 착취계급에 의해 여지없이 진압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로부터 피착취계급은 무장을 잡기 시작했다. 총이 없었더라면 로씨야10월혁명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며 짜리전제제도를 전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은 혁명승리의 군사적 담보이다. 반혁명적 폭력이 있는 한 혁명적 폭력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총을 놓아서는 안된다.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이 한두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성을 띠게 되는 여건에서 총은 영원히 자주성을 옹호하는 계급과 세력들의 수중에 장악되어야 한다. 총이 없는 혁명을 생각할 수 없고 그 승리를 바랄수 없다. 때문에 혁명가들은 영원히 총과 함께 있어야 하며 총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을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라고 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이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라는 진리를 밝히시고 총과 함께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총과 함께 끝까지 완성할 철의 의지를 지니고 계신다.

총이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라고 하신 **김정일**장군의 사상에는 혁명의 총, 혁명의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혁명적 무력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며 혁명적 무력으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총의 철학은 셋째로 총이 주인을 알아보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은 주인을 올바로 만날 때 빛이 나고 가치를 가진다. 총은 총알을 발사함으로써 적을 죽일수 있는 능력을 가진것으로 하여 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참다운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총의 참다운 가치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쥐여져있으며 누구를 위해 씌여지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반동들의 손에 쥐여진 총은 인간을 부정하는 역사의 전진에 제동을 거는 작용을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은 총으로 타민족, 타국가를 점령하고 지배하며 략탈한다. 히틀러, 무쏠리니, 도쬬의 손에 쥐여진 총은 인류살륙에 이용되었다.

총은 참다운 주인을 만날 때 진짜 주인의 손에 쥐여질 때 의의있는 것으로 되고 가치를 가진다.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의 손에 쥐여진 총은 신성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되고 유익하게 이용되지만 자주성을 유린하는 비정의적인 사람의 손에 쥐여진 총은 추악하고 저주로운것으로서 유해롭게 이용된다.

총이 자기 주인을 잘못 만났을 때에는 자기를 배반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혁명의 배신자들, 전쟁광신자들은 례외없이 총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했다. 반동들은 혁명적인 총의 과녁의 대상이 된다.

총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민중이며 혁명가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근로민중이며 근로민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근로민중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침략과 전쟁, 지배와 략탈과 같은 온갖 비정의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근로민중은 지배자, 침략자, 략탈자들을 청산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아나갈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수도 없다. 때문에 근로민중은 혁명을 위해 총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근로민중에게 쥐여진 총은 정의의 총이다.

근로민중의 자주성은 참다운 수령의 영도밑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참다운 지도자는 근로민중의 자주성의 최고대표자이며 최고의 옹호자이다. 때문에 총의 주인이 근로민중이라면 총의 최고의 주인은 참다운 민중적 수령이다. 민중의 참다운 수령의 수중에 장악된 총만이 혁명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때문에 총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총은 자기 주인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수령을 결사적으로 옹호보위한다. 총의 최대의 사명은 혁명의 뇌수인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것이다.



주인의 손에 쥐여진 총은 변절을 모른다. 총이 변절을 모른다는 것은 총이 자기의 주인을 버리지 않으며 자기 주인을 옹호하고 자기 주인이 하는 숭고한 위업에 끝까지 충실히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은 고지식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만을 알아보며 자기 주인에게 충실하다. 총이 변절을 모른다는 것은 오늘 이북의 인민군무장력이 사회주의와 민중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충실하며 **김정일**최고사령관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서 뚜렷이 엿볼수 있다.

오늘 이북의 무장력의 최고령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이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혁명적 무장력을 불패의 것으로 다지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 최고사령관이시다. 이북의 인민군대는 **김정일**장군의 군대이다. 때문에 인민군대가 **김정일**장군께 충성다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북의 혁명적 무장력이 앞으로도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의 영도에 끝없이 충성다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바로 여기에 총이 변절을 모른다는 사상의 본질이 있고 그 참다운 의미가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이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이기 때문에 총을 사랑하라는 사상을 내놓으시었다.

총을 사랑하라! 이것은 총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여 제시된 혁명적 슬로간이다. 총을 사랑하라는 사상에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믿고 아끼며 혁명적 무장력과 함께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김정일**장군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그러면 총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서 총을 놓지 않고 그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이며 총쥔 군대를 아끼고 적극 원호하라는 것이며 군사를 중시하라는 것이다.

전민이 무장하고 전당, 전민이 군대를 아끼고 도와주며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에서 군사를 중시하는 군사제일주의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곧 총을 사랑하는 것으로 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일찍부터 군사제일주의원칙을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었으며 군민일치사상에 기초하시어 전당, 전민이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전투적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정력적으로 영도하시었다.

그것으로 하여 기세충천한 인민군장병들은 무장으로 자기의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자기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초병이 된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일당백의 기백으로 원쑤를 쳐부실 혁명적 각오에 꽹배해있다.

오늘 이북에는 군사중시의 기풍이 온 나라에 꽉 차있으며 전체 국민이 무장하고 있을수 있는 침략에 대처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도와주는 원군기풍이 온 나라에 꽉 차있다.

일생을 전장에서 보냈던 나뽈레옹은 세인트헬레나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52살로 운명

했는데 그는 최후의 순간에 숨을 거두면서 ≪프랑스…군대…군대의 선두에≫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정권욕과 침략전쟁에 광신이었던 나뽈레옹이 운명직전에 한 이 말은 아마도 그가 군대없이는 자기의 정권욕도 타국에 대한 정복욕도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깨달은데서부터 뱉아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뽈레옹은 군대와 전쟁으로 명성을 떨쳐온 명장이였지만 그는 비정의적이고 반인류적인 전쟁광신자였던 것으로 해서 자기의 국민에게 막대한 희생과 배상을 넘겨씌웠다. 그는 군사지휘관이였으나 군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알 수 없었다.

선군정치, 군사중시의 정치는 또한 영도자의 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사상정신무장을 선행시키고 그에 힘을 넣는 것을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원칙으로 삼는 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당의 영도는 혁명군대의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자기의 정치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란 곧 인민군대에 대한 **김정일**장군의 영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당의 영도가 인민군대의 생명이라는 것은 **김정일**장군의 영도를 받아야 인민군대가 정치군사적으로 불패의 것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군대는 **김정일**장군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지로 이북의 인민군대의 성장과 발전과정은 **김정일**장군의 현명한 지도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이북의 인민군대의 지휘관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다 **김정일**장군의 손길밑에서 자라났고 그분의 신임이 있기에 중책을 지니게 된 사람들이다. 군대를 영도하는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의 영도적 권위가 약하면 그러한 군대는 오합지졸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전 쏘베트시기에 쏘련의 무장력이 그처럼 막강하였던 것은 쓰딸린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후 쏘련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수정주의를 했기 때문에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가 초래되였고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가 거세말살되게 되었다. 결과 쏘련의 군대는 300만의 대병력에 세계 1등급의 최신식군사장비를 갖추었지만 사회주의조국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사회주의쏘련이 붕괴되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절대적의의를 부여하시고 자신께서 몸소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통해서 군인대중에게 혁명적 자각과 신심을 안겨주시고 필승의 지략을 키워주시고계신다.

1996년 **김정일**장군께서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판문점에 나오시어 군인들에게 혁명적 신심과 자각을 안겨주시였다. 그때 그분께서는 판문점 병사들앞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노예로 살겠는가고 하시면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인간으로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또한 언제나 군인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멸적의 지략을 가르쳐주시군하신다. 그분께서는 어느 비행장을 찾으시어서는 비행훈련정형을 료해하시고는 몸소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검은구름과 세찬 바람은 그분을 비행기에 모실수 없게 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비행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시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시였다. 비행기안에서 승조장과 승조원들의 동작을 주의깊게 살피시고는 다른 나라의 훈련강령을 그대로 이용하는 잘못도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지상훈련과 야간비행에서 무엇을 위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였다.

1973년 8월 어느날에는 어느 한 해군부대의 어뢰정에 오르시어 훈련지도도 해주시였다. 그분께서 세찬 파도를 헤가르는 어뢰정의 사령탑에 오르시어 훈련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깨우쳐주시고 새로운 전투조법에 기초하여 적함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방도도 밝혀주시었다. 비행기도 함께 타시고 함정에도 같이 오르시며 또는 땅크병들의 훈련장과 통신병들의 훈련장에도 찾으시어 신심과 용기, 묘술을 안겨주시는 **김정일**장군의 거룩하신 모습이야말로 전군이 그분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일당백으로 자라나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 역사적인 나날들에 그분께서는 철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커피도 보내주시며 천백배의 타격을 안길 타격방략을 함께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짜주신분도 **김정일**장군이시다.

지금까지 역사에는 수많은 명장, 군최고사령관들이 나타났지만 일개국의 최고지도자가 함정의 사령탑이나 군용비행기에 직접 올라 군인들을 지도한 례가 있었는가. 없었다. 그들의 지휘처는 언제나 군사령부의 작전실이었을뿐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최근 2~3년어간에만 해도 수백단위의 군부대들을 시찰하시고 전투준비상황을 료해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이처럼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는 한갓 이론이나 방침의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와 배려밑에 집행되고 관철되어 일당백의 무력으로 다져지게 하는 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말그대로 군인대중의 친어버이이시고 다정한 지휘관이시며 군대를 백승에로 이끄는 승리의 기치이시다.

이북의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의 영도에 끝없이 충성다하고 그분을 성새, 방패가 되어 철저히 옹호보위하는 강유력한 무장력으로 되었다.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는 사상론을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구현함으로써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는 정치이다. 지금 서방나라들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군대의 강화를 곧 무장장비의 강화로 여기는 무기만능주의적 방법에 매달리고 있다. 영국은 ≪함선우세론≫, 도이췰란드는 ≪땅크우세론≫, 이딸리아는 ≪항공우세론≫에 집착해왔다. 미국의 군사교리는 ≪핵무기만능론≫이다.

미국은 ≪군사력이란 원자탄과 핵미싸일≫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해치울수 있으면 해치운다.≫는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주로 항공타격과 미싸일타격에 의거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각국에서의 군사정책에서의 공통적인 경향은 병사의 인원수는 삭감하고 최신정예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륙군보다 해군, 공군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원가는 적게 들이고 효률이 높은 타격, 효률이 높고 아군 피해를 최소한 적게 하는 전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장군께서는 서방식의 ≪무기중심론≫을 배격하고 혁명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적요인 즉 사람이며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군사원리를 밝히시었다. 군인대중은 무장력의 기본요소이며 전쟁의 주체이다. 전쟁의 주체인 군인대중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무장장비의 위력이 결정된다. 그것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며 무기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적 각오와 자각을 가지는가에 따라 이길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군인대중의 정치사상적 각오정도가 높고 투쟁력이 높으면 아무리 무장장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적과 싸워서 이길수 있다. 이것이 그분의 지론이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김정일**장군께서는 ≪무기중심론≫이 아니라 ≪사람중심론≫, ≪사상론≫을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구현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었다.

루즈벨트가 ≪≪한국≫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 손

가락 하나 쳐들지 못하는 맥없는 민족≫이라고 한 것은 미국의 전쟁부속물로 되어 있고 아무런 실권도 없으며 아무런 명분도 가지지 못하는 ≪한국군≫의 식민지노복으로서의 무력함을 빗대고 하는 소리이다.

그러나 이북의 인민군대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지키려는 높은 정치적 자각과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꽝배해있는 불패의 군대이다.

1993년 ≪핵위협≫론이 대두된 것과 관련하여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 10일 남짓한 기간에 이북에서는 현역사단들에 150개 사단을 편입시킬 수 있는 청년들이 군입대를 탄원해나섰다. 이 하나의 사실만을 통해서도 이북의 군대, 인민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오늘 인민군대안에서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영웅≫이 되자든가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이 벌어지고 있은 것은 인민군대가 얼마나 자기 영도자에게 충실한 군대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이북에서는 **김정일**장군의 이러한 군사중시정치가 실시되고 있기에 인민군대에 대한 전당적 , 전국가적 , 전민중적원호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이북에서 1998년 8월 31일에 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은 이북의 무장력이 세계의 최정상에 올랐음을 시위하는 것이었다. 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 ≪한국≫의 도전에 대답하여 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은 인민군대의 타격을 피할 자리는 이 행성에 없다고 경고하고 그 타격대상은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했다. 그때 미국과 일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쥐죽은듯했다. 왜냐하면 실지로 이북의 타격이 무서웠던 것이다.

북은 미국이 그 무슨 ≪지하핵시설의혹≫에 대해 떠들자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을 질러놓고 미국땅은 무사할줄 아느냐고 또다시 된타격을 들이댔다. 그러자 미국은 이번에는 그 무슨 ≪전역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요 뭐요 하면서 수백억딸라의 군사예산을 더 불구는 놀음을 벌렸다.

실지로 미국은 북의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이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곳에서 불을 지르고 폭탄을 퍼부었지만 미국땅에는 단 한발의 폭탄도 떨어진적이 없다. 그런데 미국본토에 북의 미싸일이 날아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최근에 발표한 ≪국방보고서≫(1992. 2. 2)에서 ≪미국은 무비의 군사력을 가지고 국경을 훨씬 넘어 대규모적이며 효과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임의의 지역, 임의의 나라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은 동아시아가 민주주의적 개혁과 시장경제를 받아들일것을 촉구한다.≫고 협박해나선 것이다.

미국이 발표한 ≪국방보고서≫는 명백히 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하고 있은 이북에 대한 침략전쟁과 압살을 노린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일본은 매해 400억~450억딸라를 군사비에 들이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되는 액수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군사력증강과 침략전쟁에 발광한다고 해도 강력한 이북의 인민군대의 단호한 타격을 피할 수는 없다.

1976년 가을 뉴욕시에 12시간 정전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사람들은 그 상태를 ≪련옥≫이라고 했다. 정전기간에 뉴욕에서는 남의 재산을 파괴하고 략탈하며 방화와 강간을 일삼고 서로 찌르고 죽이는 이루 헤아릴수 없는 재난이 들이닥쳐들었던 것이다. 몇시간의 정전사고가 뉴욕을 아비규환의 도시로 만들었다면 만약 강력한 미싸일타격이 가해진다면 과연 미국땅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김정일**장군이 이끄시는 인민군대를 잘못 건드리는 경우 그로부터 입을 타격과 참화는 이루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북의 혁명무력은 어디까지나 자위의 무력이지만 그 타격력은 자위에도 공격에도 다 준비된 것이다. 군사중시의 정치, 총의 철학으로 준비된 **김정일**군대의 위력은 이북의 강성대국건설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추진시켜나가는 원동력으로 될 것임은 의심할바 없다.



김정일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구국전선 / 주체89, 4월 11일



영명한 **김정일**영수를 국방위원회 위원장, 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 끝없다. 그분을 모시어 무적필승을 떨치는 이북의 모습 자랑차다.

출판물을 통해 몇가지를 살펴본다.

김정일시대를 열었다

≪북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을 개정,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국정전반에 걸쳐 대폭 강화한 후 **김정일**총비서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김정일총비서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정치, 군사, 경제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계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 국가의 수반임을 분명히 했다.≫ (≪동아일보≫ 1998년 9월7일)

≪**김정일**비서께서는 **김일성**광장 주석단에서 군부대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맞았다. **김정일**비서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는 순간 수백발의 축포와 고무풍선이 날아올랐다. 이날 행사는 최고사령관인 **김정일**비서를 중심으로 노, 중, 청 등 모든 세대가 하나의 국가 속에 있음을 보여주었다.≫(≪한국일



보≫ 1995년 10월11일)
≪최고사령관 **김정일**비서께서 최근 잇달아 최전선부대들을 시찰했다. **김정일**비서께서 동부전선 436비행군부대와 서부전선, 중부전선 부대를 차례로 시찰, 현지지도했다. 최고사령관이 이같이 최전선부대의 진지를 동부에서 서부까지 종단하는 형태로 방문한 것은 매우 주목된다.≫(≪라디오한국≫ 1996년 3월30일)
≪**김정일**비서는 조선인민군창건 65돌에 즈음하여 제969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을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김정일**비서는 이어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열병식을 사열했다.≫(≪서울신문≫ 1997년 4월28일)
≪**김정일**비서의 판문점시찰은 지금까지 최고지도자의 처음되는 방문이다. **김정일**비서는 지난 1972년, 1976년, 1977년에 판문점을 다녀간 적은 있으나 모두 비공식방문이었으며 방송에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일**비서는 이날 … 판문점대표부에 들려 경계근무와 훈련정형을 점검한후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옹호고수하라고 지시했다.≫(≪조선일보≫ 1996년 11월28일)
≪**김정일**비서의 판문점시찰소식이 뒤늦게 북의 방송을 통해 밝혀지면서 남측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문점은 남북이 대치된 곳으로서 초병 등 관계자들이 육안으로도 상호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지도자가 다녀간지 3일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면 대북정보수집에 구멍이 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 1996년 11월29일)
≪원≫ 1997년 8월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은 3일내에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민군의 역량과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보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북은 이틀만에 서울을 완전포위할 수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북의 진격을 서울이북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 … 북은 미증원군이 기지개를 펴기도 전에 전쟁을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한국군은 아직도 전쟁을 동원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시대착오이다. 북은 이를 잠꼬대로 비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은 한국군을 얕본다. 미군만 없으면 한국군은 단 한방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민군의 상식이다.≫

평양출판사 김정일장군님 관련도서 발행

신문 ≪구국전선≫평양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최근 이북의 평양출판사에서는 도서 ≪영장과 전사≫, ≪현세의 한울님≫(속편) 그리고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를 출간했다 한다.
≪영장과 전사≫는 비전향장기수였던 이인모씨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과 경모심을 담아 쓴 수필집이다.
수필집은 ≪감옥 속의 사색≫, ≪영장과 전사≫, ≪제일 좋은 내 나라≫의 3부로 분류된 33편의 수필로 묶어졌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불러주신 이인모씨가 이남에 있을 때 짬짬히 썼던 것들과 그것을 기억으로 되살린 것들, 이북에 가서 쓴 것들 그리고 최근까지 생각하는 바를 쓴 것을 비롯해서 그의 사색의 단편들을 모아서 그의 아내 김순임씨가 정리한 것이라 한다.
이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익제씨는 도서 ≪현세의 한울님≫, (역사의 주도자)에 이어 ≪현세의 한울님≫(자주국의 수호신)을 펴냈다. 책에는 독보적인 자주정치의 대가, ≪이남은 미국에 끌려가고 미국은 북조선에 끌려간다≫, 자립경제의 위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정치, 자주국방과 탁월한 군사전략가, 총폭탄정신, 문학예술혁명과 주체확립, 민족고유의 것을 기본으로, 그 밖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올린 편지들과 기자회견문, 신문에 발표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성박씨가 쓴 도서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에는 **김정일**정치관, **김정일**정치원리, **김정일**정치의 기본, **김정일**정치체제와 정치지반, **김정일**정치방식, **김정일**정치의 특징, **김정일**정치덕망, 대정치가 **김정일**위인상의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7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 주체 89년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4. 9) 되신 7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오늘 4.25문화회관의 6, 000석 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명록, 홍성남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이시내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전병호가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지금으로부터 7년전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치한념원과 열렬한 지지속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지니시게 된것은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군건설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은 곧 혁명의 생명선이며 총대우에 조국의 운명과 사회주의승리가 있다는 사상,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으며 국방중시의 정치, 선군정치를 국가정치의 기본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선군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 나가며 그이의 명령지시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 들어 기어이 수행해 내고야 마는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로 억세게 준비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밑에 조국의 방선이 더욱 철벽으로 다져지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반석같이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고 언급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이 력사의 기적은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은 사회주의기치를 견결히 고수해 나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말살해 보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슬하에서 자라 난 우리 혁명무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으며 그 타격력에는 한계가 없다.

만약 제국주의침략자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의 땅과 하늘, 바다를 0. 001미리메터라도 침범한다면 우리의 인민군대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원쑤들을 소탕하고 놈들의 아성을 폭파해 버릴것이며 정의의 전쟁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최고사령관추대7돐 중앙보고대회



(평양 주체 87년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7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3일 4. 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김영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 군대 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은 경축보고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일찍부터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군사의 영재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의 군건설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의 새시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주체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끝까지 타격소멸할수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군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력사적공적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언제나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가장 혁명적인 령도이며 그 어떤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대담무쌍하고 령활한 지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시는 백전백승의 령도이다.

조선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면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다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의 통찰력,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보고자는 미제가 어리석게도 저들의 무모한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을 내돌리며 반공화국 침략책동을 강화하는것으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굴복시켜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은 가소롭기짝이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빈말을 하지 않는다.

불을 불로 다스리는것은 우리 혁명군대의 기질이고 고유한 대응방식이며 우리의 자위적인 타격력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일단 전쟁이 강요된다면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자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실현할것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추대 9돐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 주체 89년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9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오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차수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강성부흥의 새 세기를 빛나게 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경축보고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여 혁명무력의 진두에 서신것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받아 안은 민족적대경사였으며 주체의 군건설위업수행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준엄한 력사의 풍랑을 헤치고 주체의 건군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줄기차게 전진시켜 올수 있었으며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힘 있게 과시할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전군에 주체적인 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이 확립되고 군인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일신되였다고 말하였다.

인민군대오안에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기풍만이 차넘치고 전군이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친 이것이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며 여기에 그 어떤 군대와도 구별되는 우리 군대의 본질적특징과 불패의 위력의 근본원천이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방침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유력한 정예무력으로 준비되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군사를 앞세워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것은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과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무력을 백전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 조선인민군 제337군부대를 축하방문

(평양 주체 87년 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망찬 새해의 설명절에 즈음하여 1일 조선인민군 제337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대장들인 김하규동지,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축하방문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김용순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보람찬 투쟁의 해, 새로운 비약의 해인 주체87년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여갈 군인들의 충성의 열정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는 군부대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기운차게 휘날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자나깨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새해 설날아침에 부대에 모시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눈덮인 전선길을 헤치시고 군부대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울려퍼지고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총폭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합성이 산









야에 메아리쳐갔다.

그나큰 격정에 눈시울 적시며 심장의 환호를 터치는 군인들은 지난 온 한해를 험산준령과 격랑을 넘고 헤치시며 전전선에 걸치는 끊임없는 군령도로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중장 김형룡동지, 소장 백복영동지를 비롯한 장령들과 군관들, 군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리여있는 사적물과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웅적위훈으로 빛나는 부대력사의 갈피마다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군부대는 위력한 일당백의 무적의 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작전지휘실에 들리시여 군부대장의 정황보고를 청취하시고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부대에서 자체로 건설한 수력발전소와 종합적인 편의 및 급양 시설들, 식당과 온실을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부대관리와 후방사업 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 부대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군인대중을 발동하여 목욕탕, 한증탕, 수영장 등 각종 편의 및 급양 시설들을 갖춘 현대적인 은정원과 군인회관을 비롯한 후방문화교양시설들을 일떠세우고 흐르는 강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부대의 물질문화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력으로 훌륭한 후방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에서 부대관리와 생활조직을 짜고들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풍모의 하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방사업은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부대관리와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근위병의 영예를 계속 빛내이며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에게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기념으로 주시였다. 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전사들과 설명절을 함께 보내시며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조국의 방선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김정일총비서 ≪오중흡7련대≫칭호 조선인민군 제465군부대 시찰

(평양 주체 87년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0월 25일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46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였다.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관들, 군부대 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리여있는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부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부대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유훈교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에서 자체로 건설한 발전소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안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발전소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 침실난방을 비롯한 부대의 전기화를 훌륭히 실현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양실, 침실, 식당, 야외오락장을 비롯한 부대의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양실에 비치된 탁상교양자료들과 오락기재들, 병영구내의 여러곳에 있는 벽보와 신문게시판의 리용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인들의 사상교양에 아주 좋은 탁상교양자료들을 효과적으로리용하는것을 비롯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고있으며 오락기재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군인들의 사상교양과 문화생활에 언제나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침실과 식당, 창고에 들리시여 병사들의 잠자리로부터 매일 먹는 간장과 소금의 맛과 색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헤아려보시고 부대의 지휘관들이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놓은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관병일치, 동지애의 미풍을 활짝 꽃피우고있는 부대군인들을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 전체 군인들이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심을 안고 모든 시설들을 알뜰히 꾸리고 구내와 주변에 울창한 수림을 조성하여 병영안팎을 휴양소와 같이 깨끗이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것은 항일유격대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면모의 하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군인들의 근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작전지역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였으며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혁명적경각성을 고도로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기간 부대의 전투력강화와 부대관리를 비롯한 모든면에서 많은 일을 하여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부대군인들을 축하하시면서 모든 군부대들에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일당백의 무적의 대오로 억세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백전백승의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군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총비서 땅크자동차병군관학교를 시찰

(평양 주체 88년 5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땅크자동차병군관학교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과 김일철인민무력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장성택제1부부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지교시판과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의 건군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군사연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학생들을 높은 군사지식과 지휘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장갑 및 자동차지휘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실물교육과 직관교육을 강화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화교양 및 후방 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맛있는 부식물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학교의 내부와 외부를 돌아보시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서 군사교육기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땅크자동차병군관학교 교직원들이 지난 기간 조선로동당의 교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학교를 교육문화적으로 잘 꾸리고 장갑 및 자동차부문의 지휘관,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인민군근위서울김책제4보병사단을 시찰

(평양 주체 88년 5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28일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김책제4보병사단을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과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사단의 방어전연들과 적진을 바라보시면서 지형지물과 력량배치상태, 적정을 료해하시고 사단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단의 장병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방어구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금성철벽의 보루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사단의 군인들이 부대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오늘도 조국보위성전에서 위용떨쳐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조국전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사단군인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사단관하 포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의 화력진지에 들리시여 경계근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사단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교양실, 침실을 비롯한 중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을 친히 만나시여 옷과 신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시며 최전연에서 조국보위에 헌신하고있는 귀중한 전사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중대의 군인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고지의 전호가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에서 새로 개간한 부업포전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갖가지 곡식들과 남새들이 자라는 아득히 펼쳐진 포전들을 보시고 부업지관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사단의 시찰을 마치신후 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군대의 성격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최전연의 고지들을 찾아 병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는 선전대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인민군 해군부대를 축하방문



(평양 주체 88년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6돐에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금성친위 제155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안고 제2해방의 날을 높은 전투정치훈련성과로 맞이하고있는 군부대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를 비롯한 인민군군인들의 충성의 맹세가 담겨진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뜻깊은 전승절날에 부대에 모시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하여 해병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부대에 도착하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사적물들을 돌아보시였다.

이 부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자랑높은 부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해군무력의 발전력사가 집대성되여있는 소중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잊지 못할 력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해군무력의 창설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지난날 바다를 지킬 변변한 쪽배 한척도 없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강위력한 무적의 해군무력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해군건설에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리여있는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은 우리의 주체적인 해군사와 더불어 영원히 전하여질 귀중한 혁명유산인것만큼 보존관리를 잘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계류장에 정박하고있는 ≪로동자호≫를 비롯한 함선들을 돌아보시면서 조국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영용한 해병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해방직후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첫 함선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기여한 로동계급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부대의 종합훈련실에 들리시여 해병들의 훈련모습을 보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일당백의 바다의 용사들로 억세게 준비해가고있는 해병들은적들이 조국의 령해를 0. 001미리메터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모조리 수장해버릴 멸적의 투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해병들이 당의 훈련방침을 높이 받들고 능률적인 훈련기재를 자체로 만들고 훈련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주체적인 해상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우리의 해군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단 몇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을 바다속에 처박은 그 공격정신으로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였다. 숭고한 뜻이 어린 혁명의 무기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군인들은 만약 적들이 함부로 달려든다면 한몸 그대로 어뢰가 되고 폭뢰가 되여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야말 충성의 맹세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승절을 맞는 부대군인들과 함께 군인회관에서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함으로써 영웅조선의 존엄과 불굴의 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한 조선인민군대와 인민의 자랑찬위훈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지난 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무모한 전쟁의 불장난에 매달린다면 백배, 천배의 보복타격으로 가증한 원쑤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멸적의 투지와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보면서빛나는 승리로 수놓아온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두차례의 준엄한 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다져진 반제자주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감으로써 피로써 지켜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할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짐하였다.

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찌는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부대에 찾아오시여 해병들과 함께 전승절의 하루를 보내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조국의 바다를 목숨바쳐 사수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인민군 제963군부대를 방문

(평양 주체 88년 9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공화국창건 51돐에 즈음하여 8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리을설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인민군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리용무, 전재선, 박기서 차수들과 군종, 병종 사령관들, 장령들이 동행하였다.

또한 축하방문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비서들과 책임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에 도착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지교시판과 현지지도사적비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부대의 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부대의 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수령님의 한없는 로고와 심혈이 그대로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관하 녀성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과 격술훈련을 보신후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완강한 의지와 백절불굴의 투지를 안고 달림으로써 세계≪마라손녀왕≫으로 된 민족의 장한 딸 정성옥선수가 발휘한 혁명정신이야말로 조선사람의 정신, 조선사람의 기질이라고 하시면서 모든군인들이 그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훈련에서 더큰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군부대관하 여러 구분대군인들의 군사훈련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면서 부대의 모든 남녀군인들이 펄펄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 원쑤들에 대한 증오는 서리발같이 치솟고있다고 하시면서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억척같이 준비된 이런 무적의 대오를 가지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난공불락의 사회주의성새로 거연히 솟아 빛을 뿌릴것이며 우리의 주체혁명은 승승장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지난 기간 군부대군인들이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투력강화와 부대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부대에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을 만나시여 훈련성과를 축하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군부대에서 자체로 건설한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전투력강화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튼튼한 체력을 소유하기 위한 체력단련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관람

(평양 주체 88년 9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하여8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인민군 전재선차수와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병호, 김국태, 김용순비서들과 당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그이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공훈합창단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인민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여러 군부대들의 발전소건설사업을 현지지도


발전소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평양 주체 88년 10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여러 군부대들의 발전소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상과 장령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먼저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에서 건설한 10월5일발전소를 돌아보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발전소의 저수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부대에서 쓰고도 남을 많은 전기를 생산한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도 앞장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조국과 인민의 수호자이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우리 군대에서만 발휘될수 있는 숭고한 애국, 애민의 투쟁정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발전소의 전기로 전기화를 실현한 중대를 돌아보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문화교양 및 후방 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침실을 전기난방화하고 한증탕, 목욕탕까지 전기로 운영하니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대들에서 빠른 기간에 전기화를 실현하여 군인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의 발전소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부대에서 계획하고있는 발전소건설총계획도를 보시면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몸소 해결해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기라고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도 전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인민군 제1130군부대 섬방어대시찰



(평양 주체 88년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12일 조선인민군 제1130군부대 섬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 박재경과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섬방어대의 전방감시소에 오르시여 섬방어대가 담당한 방어전연을 바라보시면서 주위의 지형지물과 력량배치상태, 임무수행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섬방어대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방어전역을 철옹성같이 다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섬방어대군인들의 초소들을 찾으시여 군무생활정형을 료해하시고 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칠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영용한 전사들이 신성한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굳건히 사수하고있기에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부대의 교양실, 침실, 식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음료수문제로부터 침실난방, 신선한 남새와 물고기 공급실태, 문화정서생활조직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보시며 육친의 정을 기울이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섬방어대 군인들은 륙지와 떨어진 외진섬에서 생활하고있지만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켜간다는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안고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혁명가들이므로 그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섬방어대군인들이 정성을 다해 닦아놓은 도로들과 알뜰한 건물들, 울창한 수림들을 보시고 이곳 군인들의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섬이 그대로 하나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전군, 전민이 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워 모든 초소, 공장과 농촌, 도시와 마을들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더 잘 꾸려야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부대의 전체 군인들이 출연한 합창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섬방어대군인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섬방어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인민군제583군부대 새 건설 양어장시찰

(평양 주체 88년 12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2월 5일 조선인민군 제583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양어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 박재경, 당중앙위원회박송봉, 장성택, 최춘황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군부대군인들은 오랜 세월 쓸모없이 버림받던 서해간석지를 개간하여 또하나의 대규모의 양어장을 건설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15만립방메터의 토량을 처리하고 10여키로메터의 뚝과 5천여메터의 수로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과제를 단 40일이라는 짧은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혁명적군인 정신의 위력을 다시금 만천하에 떨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갈대만이 무성하던 한산한 간석지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기상인양 끝간데없이 펼쳐진 양어장의 전경과 양어못들을 돌아보시면서 양어장 건설정형과 양어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규모있게 건설한 양어장을 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불모의 땅을 락토로 전변시켰으며 몇년은 걸려야 할 방대한 자연개조공사를 한달남짓한 사이에 훌륭히 끝낸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서해안에 또하나의 현대적인 양어기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명령지시라면 단숨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영웅적인 우리 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시며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양어장을 돌아보시고 나라의 양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년간 도처에서 지대적특성에 맞는 양어장들을 새롭게 더 많이 건설하고 이미 조성된 양어장들의 리용률을 높여 민물고기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양어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우리 나라는 여러가지 민물고기를 기를수 있는대단히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고 양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마련된 것만큼 전망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양어에 계속 큰힘을 넣어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물고기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하여서는 속성양어와 자연먹이에 의한 양어를 잘 배합하여 물있는 모든곳에서 양어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83군부대 군인들이 어디에나 흔한 지방자재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십정보에 달하는 양어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양어를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과학화수준을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양어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물고기생산량을부단히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양어는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더많이 먹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일군들이 항상 여기에 관심을 돌리며 양어의 발전추세에 맞게 조직사업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인민군 녀성해안포중대를 시찰



(평양 주체 89년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40군부대관하 녀성해안포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을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관들, 중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중대를 세번째로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격정에 목메이며 달려와 안기는 내익은 중대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간 중대의 모든 전사들이 다 건강한가, 쌍둥이오누이를 비롯하여 군관학교에 갔거나 다른 부대로 승급되여간 동무들도 잘 있는가고 한사람한사람의 안부를 물으시며 얼음 두터운 포진지에서 사랑하는 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중급병사 손경실을 만나시여서는 몰라보게 성장한 그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부모들의 뒤를 이어 바다가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그의 소행을 다시금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지휘관들로부터 임무수행정형을 보고받으신 다음 화력복무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멸적의 기상넘치는 훈련을 보시고 중대의 모든 녀성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일격에 격파분쇄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녀성장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중대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중대의 교양실과 침실, 중대에서 자체로 건설한 소금밭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침실바닥의 온도와 전사들이 덮고자는 이부자리의 두터이도 몸소 가늠해보시고 사물함의 화장품도 헤아려보시면서 녀성군인들의 생활에 사









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 있는 녀성해안포중대는 부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고 부대관리를 전군의 모범이 되게 알뜰하게 꾸렸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유능한 군사지휘관을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감나무중대는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견결히 보위해가는 자랑할만한 녀성혁명가의 집단으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숭고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조선녀성의 모범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시고 그들이 필승의 신심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군관 엄복순군인가족을 접견

(평양 주체 89년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17일 조선인민군 군관엄복순군인가족을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조선인민군 군관들인 손문규, 엄복순과 그의 딸들인 중급병사 손경실, 초급병사 손경순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김용순과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 박재경을 비롯한 장령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군관들인 손문규, 엄복순부부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은 한생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고있을뿐아니라 자녀들도 훌륭히 키워 부모들이 섰던 초소에 내세웠다고 하시면서 이런 혁명적군인가정이 많기에 조선로동당이 굳건하고 우리 나라와 조선인민군대가 든든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혁명적군인가정의 창시자들인 이들의 모범을 따라오늘 도처에서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전민적인 조국보위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날 손문규의 가족일행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들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을 일편단심 총대로 옹호보위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면서 최고사령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닭공장을 현지지도

(평양 주체 89년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2일 인민군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112호 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연 건평 2만 5천여평방메터에 달하는 이 닭공장은 닭먹이가공으로부터 먹이 및 물공급, 알깨우기, 닭고기와 알생산, 닭우리의 조명과 온습도조절 등 모든 공정들이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가장 현대적인 공장이다.

인민군군인들은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 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닭공장을 단기간에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12호닭공장은 먼 후날 후대들도 감탄하리만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건설되였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군인건설자들의 숭고한 애국심은 참으로 자랑스러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을 더 잘 꾸리며 생산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것을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고기와 알을 풍족히 먹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이 닭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 소목장들이 여러 곳에 건설되였거나 건설중에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미 마련된 축산기지들에서는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공장들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훌륭히 완공하여 후대들에게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넘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년간 생산성이 높은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메기공장, 양어장들이 도처에 일떠서 크게 은을 내고 있으며 여기에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돼지공장, 오리공장들까지 더 건설하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풍성한 식생활을 보장해 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식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는 축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힘 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박송봉제1부부장, 조선인민군 현철해, 박재경 대장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업한 여러 발전소들과 군부대 부업농장을 현지지도



(평양 주체 89년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7일 조업한 안변청년발전소와 내평발전소,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총정치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영춘총참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일철인민무력부장, 현철해, 박재경대장들이 동행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용순비서들과 박송봉, 장성택제1부부장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먼저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이 발전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관련하여 인민군대에 주신 마지막유훈교시를 관철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전력문제로부터 풀어 나가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한 자력갱생의 대기념비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즈음하여 당과 조국앞에 드린 로력적선물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발전소건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3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그처럼 어렵고 방대한 2계단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굴지의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의 고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는 당의 요구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조선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에서 건설한 내평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드린 창조물인 이 발전소를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이 출력이 높은 현대적인 발전소를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









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자체의 힘으로 큰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총화하는 력사적인 시기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창조물을 내놓을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맨손으로 이렇듯 훌륭한 발전소를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인들의 투쟁정신을 온 사회가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도 선봉적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에서만 발휘될수 있는 숭고한 애국, 애민의 정신이라고 지적하시고 발전소관리운영과 생산된 전기를 효과 있게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의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에서 자력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난방화를 적극 추진시키고 있으며 부업포전을 잘 리용하여 여러가지 남새와 알곡을 많이 생산하고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전사들에게 맛 있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풍족히 공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모든 군부대들에서 이들처럼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제932군부대를 축하방문

(평양 주체 90년 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새해의 설명절에 즈음하여 1일 조선인민군 제932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지휘소에 오르시여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면서 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지의 전호가에서 훈련의 휴식참에 병사들이 진행하는 흥겨운 야전오락회를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군인들이 ≪고난의 행군≫의 앞장에서 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며 투쟁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부대에서 전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 하시면서 그들의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지휘관들이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병사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부식물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조국보위성전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리을설원수,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최전연초소를 시찰


최전연초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평양 주체 90년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8일 최전연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2796군부대관하 초소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머나먼 최전연에 위치한 초소에 도착하시자 군인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그이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들이 동행하여 왔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전방감시소에 오르시여 지형지물과 력량배치상태, 전연초소의 임무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연초소의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을 무력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할 숭고한 애국심을 안고 조국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켜 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연초소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연초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정형을 료해하시고 청년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사상교양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모든 군인들을 사상의 강자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침실, 식당, 일일창고, 세목장을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전연초소의 후방사업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고 군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지휘관들이 후방공급사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위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같이 전초선을 지켜 가는 전사들에게 최상의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전연초소 군인들이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고지의 전호가에서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총비서 35년동안의 군대사업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평양 주체 88년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인민군대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자욱을 끊임없이 수놓으시였다.

1960년대말까지 5년동안에만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많은 인민군 부대, 구분대들과 군사교육, 과학, 예술, 출판보도, 체육 단체들을 찾으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64(1975) 년 1월 1일 전군을 주체사상화하여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드는것을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년대와 년대를이으시며 정력적인 군령도의 나날들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 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35년동안 해군부대들을 180여차례나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령도는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0(1991) 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후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더욱 줄기차게 이어가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위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4년동안에만도 300여개에 달하는 인민군 군부대, 구분대들을 현지시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에도 제324대련합부대, 금성친위 제615군부대, 금성친위 제959고사포병군부대, 최현군관학교를 비롯한인민군부대, 구분대들과 군사교육기관 등을 련이어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5년간혁명령도사의 의의

로동신문

(평양 주체 88년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1일부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이의 지난 5년간의 혁명령도사가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언급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설은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대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년간의 력사적기간에 뚜렷이 과시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난 5년간의 혁명령도사는 선대수령에 대한 최고의 도덕의리로 수놓아진 충효의 력사이며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담력, 백전백승의 령도예술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번다시 구원하여주신 위대한 수호자의력사이며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숭고한 애국의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5년간 엮어오신 혁명실록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국보중의 국보이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 참다운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로부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승리적으로 혁명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재보들이 다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난 5년간의 혁명령도사에는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와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거기에는 몇백, 몇천권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는 비상히 풍부하고심오한 내용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할데 대해 언급하면서 사설은 우리는 최상최고의 높이에서 선대수령을 모시고 받들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처럼 끝없는 충효성을 다해야 하며 하나의 혁명과업을 수행해도 장군님의 혁명가적풍모를 그대로 따라배워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의 5년간의 혁명실록

로동신문

(평양 주체 88년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3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수백년에 대비할수 없이 위대한 혁명실록이 엮어져온 성스러운 년대기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들은 지난 5년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엮어오신 혁명실록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영원할 만년재부로 된다는데 대하여 쓰고있다.

신문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에서 지난 5년간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에서 30여성상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신 영광의 력사라면 지난 5년은 조국과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오신 빛나는 년대기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나날에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시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그이의 혁명실록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령도자만이 창조할수 있는 무비의 헌신성과 로고의 결정체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지난 5년간은 조선인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절감하게 된 뜻깊은 년대기였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 5년은 주체조선의 기상이 세계를 진감시킨 5년이였다.

≪핵의혹≫을 둘러싼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의 승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의 포성이 높이 울린 기적적인 사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과시, 이 놀라운 사변들은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 거창한 현실을 창조하시는 나날에 문무충효를 겸비한 절세의 위인, 로숙하고 세련된 세계정치의 원로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 힘있게 과시되게 되였다.

20세기의 마지막년대를 빛나게 장식한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21세기를 이끄실 위대한 태양≫으로 높은 칭송을 받고계신다.

신문은 지난 5년간에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혁명가의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새기게 되였으며 모든것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갈때 백전백승한다는 철리를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뭉치면 천만대적도 물리칠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떤 요새도 점령할수 있다는것이 조선인민이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새긴 더없이 고귀한 진리이라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엮어오신 혁명실록은 나라와 민족의 고귀한 재부이며 인류의 보물고이고 혁명의 만년초석이라고 강조하였다.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 지켜온 5년

로동신문

(평양 주체 88년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신 5돐에 즈음한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지켜오신 그이의 위대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주체83(1994)년 11월 1일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년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붉은기사상과 강철의신념,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굳건히 고수되고 승승장구해온 뜻깊은 나날이였다.

론설은 조선인민은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엮어지는 나날에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여오신데서 힘있게 과시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붉은기사상은 곧 혁명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견지하여오신 혁명의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이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관통되여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확고한 혁명적원칙성을 지니시고 당의 정치적령도와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적소유를 굳건히 고수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한것도 그리고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물질적자극을 배합해나가는 사회주의적방법을 일관성있게 고수한것도 그이의 원칙적인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성은 또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여오신데 있다. 그이의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 사회주의위업을 떠밀고나가는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성은 또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오신데 있다. 하여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발구름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게 되였다.

론설은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보루를 지킨 빛나는 수호의 6년

구국전선 / 기 성 철, 주체90, 5월 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오신 지난 6년간은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보루를 지킨 영웅적 수호의 6년이었다.

이 시기는 이북에 있어서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 시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반동들은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을 압살함으로써 이 행성위에 사회주의가 없는 일극세계의 질서를 세워보려고 정치군사적 압력과 집요한 경제봉쇄, 비열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했다. 그런데다가 여러해동안 자연재해까지 계속되어 이북은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준엄한 시련 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이북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비범한 지략과 탁월한 영군술로 적들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이북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 미제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광분했다. 미제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방대한 미군병력과 이남의 ≪국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해마다 도발적인 군사훈련 소동을 벌이었고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갔다. 대규모전쟁연습만 해도 1994년에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나 32건에 달했고 1995년에는 37건으로 늘어났다. 미제는 제2의 한반도 침략전쟁계획까지 짜놓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적들이 해마다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고 이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나설 때마다 조선인민군이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심으로써 놈들의 침략기도를 산산히 분쇄해 버리시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1994년 12월 이북측 지역에 불법침입한 미군헬기를 단방에 쏴떨구었으며 1997년 7월 강원도 평강군 천암리 앞 군사휴전선 일대에서 있은 적들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철저히 짓부숴다.

특히 1998년에 들어와서 이북을 군사적으로 말살하려는 미제의 무모한 침략기도는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미제는 있지도 않는 ≪지하핵시설의혹≫과 ≪미사일개발≫을 구실로 임의의 시각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며 ≪작전계획 5027-98≫까지 짜놓고 이미 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인 1998년 12월 조선인민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인민군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함으로써 적들의 기를 꺾어놓고 놈들의 침략기도를 물거품처럼 만드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불은 불로 다르시며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사실과 도발자에게는 시체와 죽음밖에 안겨질 것이 없다는 이북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뿐아니라 외교적 대결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외교적 대결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적들을 굴복시켜야 하는 심각한 대결전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고압강경, 자주외교로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놈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미제는 이북의 사회주의를 압살해 보려고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있지도 않는 ≪핵개발≫을 놓고 위협공갈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발동하여 집단적인 압력을 가했다.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부추겨 이북에 대한 ≪특별사찰≫결

의안을 채택하게 하고 이북의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까지 끌고가 무슨 ≪제재≫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미제를 회담장에 끌어내다 놓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어 놈들이 옴짝달싹 못한채 손을 들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명안들을 연속 제시하시었다.

회담장에 끌려나와 막다른 궁지에서 더는 벗어날 수 없게 된 미제는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던 체면도 다 줴버리고 조미기본합의문에 수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클린턴미국대통령은 영도자님께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너지 보장과 관련한 담보서한까지 올리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항복서나 같은 것이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키고 항복서까지 받아내게 하신 것은 세계 외교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리였다.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후 연락사무소개설과 관련한 협상,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정부간 협상, 경수로제공협상, 미사일협상, 고위급회담 등 이북과 미국간에는 여러 갈래의 협상과 회담들이 계속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이 외교전에서도 조미기본합의문을 이행하도록 미국을 호되게 답새기며 연전연승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어 민족의 존엄과 안녕, 자주권을 세계만방에 떨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을 고립압살해 보려고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을 여러 분야에 걸쳐 감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미제의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도록 이끄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사회주의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적 소유를 굳건히 고수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이북의 사회주의경제는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의 경제토대, 자기의 경제구조를 살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전당과 전민이 간고분투, 자력갱생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책동에 단호하고도 강경한 자세로 맞서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적들의 기도를 여지없이 짓부숴 버리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천재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미제는 1999년 9월과 2000년 6월 이북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완화를 실행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북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지난 50여년동안 가해오던 제재조치들이 해제되어 일반상품에 대한 무역과 농업, 상업 등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 상업용 선박 및 비행기들의 이용, 일부 금융거래 등이 허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엄혹한 정세와 준엄한 시련 속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군사적 및 외교적 대결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적들의 경제봉쇄,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사회주의보루를 철옹성같이 다지도록 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참으로 지난 6년간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보루를 지키신 빛나는 수호의 6년이었다.



위성발사는 **김정일**총비서의 비범한 정치지도력의 소산

남조선각계

(평양 주체 87년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각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춘천시에 사는 과학자 김형국은 얼마전 이른 새벽 상공을 날으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보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동료들에게 ≪저하늘의 위성을 보니 동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공지구위성이라면 최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이다.

그래서 과학분야에서 내노라하는 나라들도 감히 엄두를 못낸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100프로 제힘으로 개발하여 쏘아올렸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북에서의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발사는 민족의 존엄이 세계에 과시되고 겨레의 슬기와 힘이 만방에 떨쳐진 쾌거이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는 바로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지도력의 소산이다.

남조선의 통일촉진협의회 회원 김봉운은 ≪이북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고 국위를 더 높이 선양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작은 나라가 그것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압살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속에서 단신으로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운반로케트와 위성을 자체의 지혜와 기술, 힘으로 개발하여 첫 발사를 성공시킨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같은 일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주를 주체식으로 개척할 휘황한 청사진을 펼치시고 과학기술진과 우주정복을 위한 튼튼한 공업적토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재야정치인 박영빈은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준민족적쾌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위성발사 상황을 상세히 전하는 평양방송을 들으면서 ≪정말장하다. 그러면 그렇테지≫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가 할것없이 기뻐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1998년 조선에서의 특기할 사변들

조선중앙통신

(평양 주체 87년 12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저물어가는 주체87(1998) 년은 조선에서 특기할 사변들로 가득찬 한해였다.

이해에 정치사상적위력이 튼튼히 다져진것을 비롯하여 주체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시위하는 력사적사변들을 기록하여 강행군의 해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조선식 정치체제의 마련-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조선식 정치체제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올해에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다. 이 직책은 또한 조선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새롭게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명기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규제하였다.

정력적인 현지지도-**김정일**동지께서 1월 1일 아침부터 12월의 나날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170여 개단위에 대한 현지지도는 우리 조국력사와 인류정치사에 특기할 위대한 령도로 빛나고있다.

세계강국대렬에로-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100프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조선을 세계강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였다.

일심단결의 위력과시-세계를 진감시킨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비롯한 공화국창건 50돐 경축행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전당, 전군, 전민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경제의 활성화-성강의 봉화따라 강계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국적으로 5,0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일떠세우고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으며 수도 평양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웠다.

군건설의 최전성기-군사중시사상이 구현되여 군건설이 최전성기에 놓여있으며 위력한 공격수단과 힘있는 방어수단을 가지고있는 우리의 혁명무력은 우리 식의 작전계획과 타격방식을 가지고 침략자들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끝까지 무자비하게 징벌을 가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과 겹쳐지는 자연재해…

온갖 시련과 난관을 강행군으로 돌파하여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은 조선인민은 지금 신심과 투지에 넘쳐 20세기의 마지막해인 주체88(1999) 년을 더욱 빛나게 장식할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장을 국방의 수위에 모신 우리 공화국은 금성철벽

로동신문 사설

(평양 주체 90년 4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8돐에 즈음하여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8년전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우리의 국가기관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이 높아 진데 언급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계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가 새롭게 정비됨으로써 국방력을 중추로 하여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는 새형의 사회주의국가정치가 탄생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선군정치는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방식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사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국방위주의 정치, 불패의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이끄시는 길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 차게 다그쳐 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언급하였다.

사설은 자위적국방력의 핵심력량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는 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사업은 한시도 늦출수 없는 중대사이라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의 틈튼한 도약대가 마련된 전환의 6년

구국전선 / 기 성 철, 주체90, 5월 1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오신 지난 6년은 이북에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전환의 6년이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건설하시려는 강성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민중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말한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고 몇해동안 자연재해까지 겹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북의 형편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지난 6년간 준엄한 난국을 헤치시며 가까운 앞날에 이북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려 세울 수 있는 도약대를 튼튼히 마련해 놓으시었다.

이미 세계가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북의 정치사상적 위력과 군사적 위력은 강성대국의 수준에 올라 섰다. 이제 경제강국의 지위에만 올라서면 이북은 명실공히 강성대국으로 될 수 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북땅위에 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놓으시기 위해 민중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 일으키시었다.

주체 83(1994)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만 하여도 영도자님께서는 70여차에 걸쳐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13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우선 가장 어려운 시기 민중들 속에 깊이 들어가시어 새로운 투쟁정신인 강계정신을 창조하시고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를 지펴 올리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사상정신적 추진력을 마련하는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고난의 행군≫시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인 강계정신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1998년 1월 자강도를 찾으시어 이틀동안에만도 6,000여리의 사나운 눈보라 길을 헤치시며 자강도내 20여 개의 공장과 기업소, 중소형 발전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노동계급들이 참기 어려운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일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거름을 포전으로 나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을 메우고 모두가 떨쳐 나서 자체의 힘으로 도처에 중소형 발전소들을 수많이 건설하며 공장, 기업소들과 거리와 마을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려 나가고 있는 그 투쟁정신과 기풍, 강계정신을 매우 높이 평가하시고 온 나라가 따라 배우도록 하시었다.

강계정신은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모범을 보여준 투쟁정신이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라는 구호 밑에 필승의 신념과 낙

관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강계정신을 창조하시고 성강의 봉화에 이어 낙원의 봉화를 지피시어 새로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개시되도록 이끄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1998년 3월 9일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찾으시어 강철고지를 맡고 있는 이곳 노동자계급이 다시 한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대고조의 선봉에 설 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는 전후 어려웠던 시기 **김일성**주석님께서 강선노동계급을 찾으시고 천리마의 대고조를 마련하시었던 그때와 같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거대한 사변이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그 후 낙원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성강의 노동자계급이 봉화를 든 것처럼 이곳 노동자들이 전화의 나날 이 공장 10명 당원들의 정신으로 일떠서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일으켜 나가도록 하시었다.

한편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하시고 이북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식량문제와 전기문제를 푸는데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주체농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도록 하시었다. 특히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지대별 특성에 걸맞게 농업생산을 전문화하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또한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 두벌농사를 많이 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과학자들, 기술자들은 큰 모 재배방법을 연구 완성하여 논에서 곡식 대 곡식의 두벌농사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현실에 도입하였으며 북부 고산지대인 장강군 읍협동농장에서는 밭에서 세벌농사까지 하였다.

영도자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을 구상하시고 대홍단을 본보기로 감자농사의 새 역사를 펼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1998년 10월 1일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 주시고 감자농사혁명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다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통알감자심기가 도입되고 조직배양에 의한 무비루스감자종자생산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대홍단군종합농장의 종합적 기계화가 현실로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고기생산을 늘리기 위해 풀판을 조성하고 풀먹는 가축을 대대적으로 기르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의 뜻을 받들고 농업근로자들은 힘찬 투쟁을 벌여 1999년 8월까지 3년 동안에 염소마리 수는 4배로 늘렸으며 토끼마리 수는 1년 사이에 5배로 늘리었다.

다음으로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긴장한 전력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해 안변청년발전소, 영천발전소, 남강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과 함께 나라의 이르는 곳 마다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전국각지에서 1,000 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가동하고 전국적으로 500여개의 마을들이 자체로 전기수요를 충족하게 되었고 자강도에서만도 860여개의 단위가 자체의 중소형발전소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라의 물질적 재부를 늘리고 조국강토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기 위한 국토관리사업에도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강원도에 토지정리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어 천지개벽이 이룩되도록 하시었다. 강원도의 토지정리에서만도 논두렁은 절반으로, 뙈기논밭은 3분의 1이상 줄어 들었으며 2,700여정보의 부침땅이 새로 생겨났다.

평안북도의 5만여정보의 토지가 불과 몇달동안에 큰 규모의 규격포전으로 정리된 것을 비롯하여 이북에서는 20여만정보의 토지가 정리되었다. 그리고 청년영웅도로로 불리우는 평양-남포고속도로가 건설되고 70여만정보의 산림이 조성되었으며 2.500Km의 새 도로건설, 3만여Km 구간의 강하천이 정리되는 등 국토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온 나라에 과학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걸맞게 이북의 과학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도록 하시었다. 특히 공화국창건 50돌을 맞으며 1998년 8월 31일 우리 민족사에서 첫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이북의 위력을 만천하에 시위하도록 하시었다.

이북에서 인공위성이 발사되자 세계의 거의 모든 선전매체들이 이북을 ≪우주강국대열에 들어선 대국≫이라고 평하였으며 이남 출판물들도 ≪세계 7대 위성국서열 진입≫ 등으로 대서 특필했다.

영도자님께서는 나라의 튼튼한 과학기술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중심기지들의 토대를 강화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1995년 4월 28일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과학원과 과학원 함흥분원을 현지지도하시었으며 지난 5년동안에 과학원에 640여차의 가르치심을 주시어 가까운 앞날에 이북의 주체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울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시었다.

이에 무한히 고무된 이북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6년간 최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전자공학, 생물공학, 열공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부문에서 100여건의 과학성과들을 이룩했다. 오늘 이북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

참으로 지난 6년간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신 빛나는 전환의 6년이었다.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의 ≪고난의 행군≫혁명실록을 펼치며

성스러운 추억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이 땅과 온 세계를 뒤흔들며 장엄한 혁명의 한 시대, 하나의 비범한 력사가 흘러 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천만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결사수호, 강성대국건설을 소리쳐 부르며 피눈물의 바다, 격전의 사선천리를 영웅적으로 돌파해 온 ≪고난의 행군≫,

폭풍 사나운 20세기를 사회주의승리의 세기로 장식한 이 전대미문의 영웅서사시적대행군이 우리 민족사와 세계에 던진 충격과 여운은 실로 비상히 크고 심원하다.

≪고난의 행군≫, 이 말과 함께 주체혁명의 새로운 한 시대, 새로운 한 세대, 새로운 하나의 력사가 탄생하였다.

그처럼 어려운 난국을 이겨 내고 끝까지 붉은기를 지켜 낸 ≪고난의 행군≫력사를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만 외워도 눈물이 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뜨거운 회억의 말씀이 천만의 가슴가슴에 세찬 격정의 파도를 휘몰아 온다.

≪고난의 행군≫ 혁명실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옹위하고 총대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불멸의 서사시이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인류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노래이다.

종이우에 펜으로가 아니라 심장의 피와 눈물로 쓴 이 성스러운 실록의 한장한장은 장군이 울린 혁명의 뢰성이고 장군이 찍어 간 시대의 발자국이며 장군이 호흡한 심장의 숨결이다. 그 영웅서사시는 그대로 력사에 그려 진 창군의 모습이며 세기에 빛발치는 장군의 년대기이다.

영광스러운 ≪고난의 행군≫ 참가자이며 그 생동한 체험자, 기록자인 우리는 결사의 싸움길 앞장에서 열어 가신 백두장군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밟으며 우리 세대가 쓰고 후손만대가 대를 이어 전해 갈 위대한 **김정일**장군혁명실록인 ≪고난의 행군≫ 영웅서사시를 여기에 펼친다.

1

피어린 격전의 나날은 고난의 해에서 고난의 해에로 그렇게 여섯번이나 흘렀다.

우리의 한 병사가 저 구월산유원지의 2단폭포옹벽에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고 쓴 그 이후에도 우리는 또다시 3년이나 이 행군을 더해야 했다.

피눈물로 가득 차고 증오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멸적의 총상으로 서리발치는 그 나날들은 살아 있는 생명체마냥 세차게 박동치며 우리의 심장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6년, 이 나날은 정녕 짧았던가 길었던가.

도대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 졌으며 우리는 어찌하여20세기 말엽에 와서 ≪고난의 행군≫ 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어야 했던가.

고난의 폭풍이 지나 간 지금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경이적인 사변을 체험하고 있다.

세계가 변하고 있다.

조선을 압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기도가 이제는 허망한 꿈으로 남았고 조선에 대한 이른바 ≪평화공존≫을 선포하는 새로운 ≪정책전환≫이 표명되는 속에 세계도처에서 의미심장한 친선과 협력의 ≪메쎄지≫들이 앞을 다투어 평양으로 날아 오고 있다.

바야흐로 조선의 강력한 실체를 시야에 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정치지도가 그려 지고 있으며 급속도로 방향전환하는 이 심원한 변화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세계의 눈길이 평양으로 쏠리고 있다.

그렇게도 힘겹게 떠났던 그 길, 그렇게도 간고하게 허리띠를 조이고 그렇게도 모질게 자욱자욱 피와 눈물을 고이며 헤쳐 온 그 길이 이런 가슴 벅찬 승리의 날과 잇닿아 있었다고 생각하니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금할수 없다.

이제는 고생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 지고 사람들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는 확신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다.

오늘과 같이 력사의 계선이 그렇듯 뚜렷이 그어 진 때는 없었으며 우리가 커다란 환희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거창한 시대의 변화를 그렇듯 생동히 체험한 때는 없었다.

조선을 향하여 세계가 일변하는 지금, 다 알수 없었던 력사의 전모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히 부각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고 체험하고 우리가 싸우고 쟁취한 그 모든것에 대하여 다 말할수 있으며 또 다 말해야 한다.

20세기의 마지막년대에 와서 우리 인민이 단행한 ≪고난의 행군≫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력사에서나 인류사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죄악의 시련이였다.

묻노니 력사여, 무엇때문에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공장들의 숨이 죽고 조국의 옥토가 터갈라 지고 나라의 동력인 전력마저 부족되여 때때로 달리던 렬차들이 멎어 서고 수도의 거리들에도 불빛이 꺼져야 했던가.

어떻게 되여 그처럼 부럼 없는 풍요와 행복만을 마음껏 누리던 사람들이 배를 곯고 추위에 떨어야 했으며 그 어느 동란의 시기에도 있어보지 못한 가혹한 생활난을 겪으면서 남 모르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희생도 내야 했던가.

도대체 무슨 변이고 무슨 화난이였는가.

그 어떤 마술적인 힘이 의도적으로 꾸며 놓은것과 같은 이 놀랍고도 참혹한 시련은 도대체 왜 생겨 났는가.

심술 궂은 력사의 변덕이였는가.

그 어떤 알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였는가.

아니였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생사존망을 걸고 나아가서 인류의 자주와 평화를 지켜 세계제국주의 강대국들과 단독으로 맞서 최후의 결판을 보아야 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다 겪어야 했고 가슴을 허벼내는 피눈물을 그리도 많이 흘려야 했다.

그렇다.

우리는 세월이 제멋대로 그어 놓은 고난스러운 력사의 한 구간을 지나 오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것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나 갈수 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고 누구나 겪을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기꺼이 겪었다.

추억의 닻을 올려 잊지 못할 이 력사의 첫 기슭에 다시 서보자.

세계적판도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이 련이어무너지고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승리≫를 요란스럽게 광고하며 제 세상을 만난듯이 기고만장하여 날뛰던 그때, 나라의 형세가 간과할수 없는 국면에 처하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재를 두고 커다란 우려와 가시 돋친 랑설이 떠돌던 시기에 우리는 사회주의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민족의 생명의 어버이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잃었던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비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과 너무도 통렬한 아픔에 심장이 멎어 버린 열혈의 순직자들, 일터와 광장들, 집집마다에서 가슴 에이는 곡성이 그칠새없이 울려 나오던 그 긴긴 낮과 밤들과 검은 상복에 흰 댕기를 머리에 꽂은 침통한 상제들의 행렬이 묵묵히 흐르던 비애의 거리

그에 편승이나 하듯 이번에는 또 수백년래에 처음보는 무서운 자연재해가 련이어 들씌워졌다.

처음에는 대홍수가 모든것을 휩쓸어 간데 이어 그 다음에는 왕가물이 모든것을 말리워 버렸다.

한 국가, 한 민족이 완전히 괴멸해 버릴수 있는 이런 최악의 형편에서 우리가 피할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였던 조국수호전은 얼마나 준엄했던가.

그것은 말그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세계적인 대전이였다. 세계가 변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 죄악에 찬 나날을 새삼스레 렬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게도 모진 상처를 남긴 피의 력사를 세월이 간들, 평화의 봄이 수십번 온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렇다.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전쟁을 했다.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레닌그라드의900일 봉쇄를 인류가 당한 가장 참혹한 재난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의900일보다 휠씬 길고 더 잔인한 봉쇄의 나날이 계속되고 한개 도시가 아니라 온 나라가 통채로 원쑤들의 포위환에 든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하나의 적이 아니라 사면팔방으로 달려 드는 제국주의떼무리들의 공격을 짓부셔야 했으니 그 가혹함과 격렬함을 무엇으로 다 형용할수 있겠는가.

이 땅에 혀를 대보라.

피와 눈물이 배여 찝찔하게 느껴 지리만큼 우리의 추억은 실로 비장하고 처절하다.

저 푸른 하늘, 저 푸른 산과 강, 길가에 서 있는 저 한그루의 나무에 물어 보라.

삶과 죽음이 부딪치던 피어린 싸움의 그 나날들이 생생히 살아 오고 천만군민의 돌진의 발구름소리가 심장의 피를 끓이며 쿵쿵 소리쳐 온다.

예비량곡을 바다에 처넣으면 넣었지 북조선에는 단 한알의 쌀도 줄수 없다고 고약스럽게 지껄이고 임의의 시각에 평양을 탈환하기 위한 ≪외과수술식≫ 타격계획까지 뻐젓이 발표되던 그때, 조국앞에는 실로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 왔다.

우리의 거리들은 불에 타고 포연에 그슬리지 않았어도, 우리의 옷자락은 총탄에 찢기고 피에 젓지 앉았어도 원쑤들의 보이지 않는 ≪총알≫과 ≪폭탄≫들은 치밀하게 그어 진 화살표에 따라 우리의 생존수단들을 계단식으로 하나둘 파괴하였다.

정말 원쑤들은 자비가 없었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항복하기를 기다리며 할수 있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들이대였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 벌어 졌다.

엄혹한 그 세월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처럼 속속들이 고난이 미치고 조국의 매 가정들에 그처럼 아픈 상처를 남긴 때는 없었다.

우리의 가슴은 찢기는듯 아팠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방울바울 맺혔다.

간고한 그 세월에 우리에게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사전에도 없는 ≪대용식료품≫이라는 말을 놓고 매일같이 당위원회들의 비상협의회가 벌어 지고 나라의 심장부나 같은 김철의 해탄로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으니 그 참혹한 정상을 더 말해 무엇하랴.

우리는 그렇게도 많이 눈물을 흘린 일이 없고 그렇게도 많이 굶어 보고 얼어 본 일이 없었으며 그렇게도 많이 분노해 보고 그렇게도 많이 사색하고 창조해 본 일이 없었다.

신념과 배신에 대하여, 영웅과 비겁쟁이, 충신과 간신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때는 없었고 쌀과 전기 등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하여 그렇게도 많이 말하고 론의해 본 때는 없었다.

차라리 공개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겪은 고통이라면 이다지도 쓰리지 않으리라.

자기의 조국과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가장 근면하고 선량한 인민이 이런 시련을 당해야 했으니 그 아픔인들 오죽했으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보통의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흘렀다.

수령님을 잃고 흘렸던 그 피눈물이 여섯해가 흐르도록 우리의 가슴속에서 마르지 않았다.

정녕 피할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였던가.

그렇지도 않았다.

고난을 피할수도 있었고 에돌아 갈수도 있었다.

붉은기를 내리우고 사상과 원칙을 양보하면 하루아침에 부유해 질수도 있었고 렬강들에게 빌붙으며 동냥을 하면 굶주림을 면할수도 있었다.

실지로 이것을 귀 아프게 권고하는 나라들도 있었고 여기에 그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우리의 눈물겨운 순결과 신성한 량심을 두고 곡해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목전의 호구지책을 위해 존엄과 량심을 팔고 원쑤에게 굴복할 인민이 아니였다.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할 인민이였다.

닥쳐 온 고난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조국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클수록 우리의 분노는 설설 끓어 멸적의 총창으로서리발쳤다.

우리야 수령님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강직한 인민, 수령님령전에서 ≪우리는 맹세한다≫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이 길을 떠난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의 고난이 두려워 후대들에게 존엄도, 량심도 다 팔아 먹은 수치스러운 나라를 물려 주겠는가.

이 신성한 자각이 우리의 심장의 피를 끓였다.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 주시고 사회주의락원을 꾸려 주시였으며 한없이 고귀한 한생이 어린 주체의 붉은기를 물려 주시고 떠나 가신 우리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혁명의 군화를 벗지 못하신채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시였다.

오늘도 백두밀림의 푸른 물이 든 항일복을 벗지 않고 저 대성산혁명 렬사릉에 서 있는 빨찌산렬사들이 자, 이젠 너희들의 차례다, 백두산의 후손답게 싸우라고 소리치며 말하는듯 하였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난앞에 어떻게 견디여 내는가를 똑똑히 눈여겨 보고 있었다.

수령님앞에, 후대앞에 지닌 이 엄숙한 사명감이 우리 세대로 하여금 그 모진 피눈물의 사선천리길을 두려움없이 완강하게 헤쳐 나가게 하였다.

창조되는 력사가 위대한것만큼 겪어야 하는 진통이 또한 이루 말할수 없는 가혹한것이였다.

장차 세계우에 강성대국으로 솟구쳐 오르자면 그만큼 간고한 시련을 이겨 내야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주먹으로 대결과 압살의 동토대를 깨뜨려야 했고 인류의 마음에 낀 어지러운 때앙금을 우리의 순결한 신념으로 씻어 내야 했다.

참으로 그것은 준엄하고도 무자비한 력사의 검증이였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창조할수 있으며 조선의 혁명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조선이 어떤 민족인가를 력사는 낱낱이 검증하였다.

≪전쟁≫은 본색을 가리우고 있던 온갖 허울을 벗겨 버리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명백히 보여 주었으며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의 밑뿌리를 무자비하게 파헤쳐 보였다.

그렇다.

우리는 피눈물을 씹어 삼키며 력사앞에, 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혈통을 이어 받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위대한 **김정일**장군세대의 신념과 의리가 어떤것이고 배짱과 용감성이 어떤것이며 사랑과 분노, 웃음과 눈물, 포부와 리상이 어떤것인가를 가슴 후련하게 보여 주었다.

누구는 ≪세번 물에 씻기고 세번 피에 잠기고 세번 재물에 삶아 졌거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깨끗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눈물의 여섯해를 살아 내고 굶주림과 세계적인 대격전의 여섯해를 돌파했으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순결하고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인민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피와 목숨을 바쳐 주체위업을 수호하고 조국을 수호하였다고 떳떳이 보고 드릴수 있고 수령님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드릴수 있는 영광스러운 권리가 우리 세대에게 차례졌다.

6년, 참으로 짧고도 기나긴 투쟁의 나날이였다.

우리는 이 6년에 천년을 두고 흘릴 눈물을 다 흘려 보았고 천년을 두고 겪을 시련을 다 겪어 보았으며 천년을 두고 해야 할 위업을 이룩하였다.

천년을 산 6년,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 뚫고 민족의 존엄과 세계자주위업을 영예롭게 수호한 위대한 기적의 6 년을 력사는 후세만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2

추억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20세기의 영웅시대를 펼친 이 기적의 력사는 어떻게 흘러 왔으며 그 위대한 세계사적 승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로정을 돌이켜 보시는 뜻 깊은 자리에서 일

군들에게 이런 심중의 깊은 말씀을 주시였다.

≪나는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 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 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습니다. ≫

≪고난의 행군≫은 백두장군의 휘하에 먼저 군대가 서고 그 뒤에 인민이 서서 혁명군가의 나팔소리에 신념의 발걸음을 맞추어 온 군민일심의 정예대오, 당기와 함께 군기를 날리고 마치와 낫과 붓대우에 총대를 높이 세우고 달려 온 선군대오의 장엄한 형상으로 안겨 온다.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드리웠던 그 나날, 제국주의자들이 압살의 검은 구름을 몰아 왔던 그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필승의 전략, 만능의 무기로 틀어 쥐시였다.

돌이켜 보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걸출한 위인의 출현은 그에 맞는 사상과 리념, 정치철학을 낳았다.

자본의 철쇄를 마스는 마치의 사명감을 력사에 선언한 맑스의 시대나 위대한 사회주의를 탄생시킨 레닌의 시대는 다 그 시대에 맞는 수많은 사상과 리론들을 낳았다.

식민지망국으로부터 자주강국으로의 극적인 비약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해방, 인간존엄의 불멸의 혁명철학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제국주의침략과 압살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과 세계자주화의 드넓은 활로를 열어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에 선군정치를 더하여 인류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전략적대강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다.

선군정치는 력사상 우리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명명하신 정식화이며 ≪고난의 행군≫과 함께 나온 새로운 언어, 장군시대의 새로운 조선말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탄생만큼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20세기의 또하나의 대발견으로 온 세계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최강의 혁명전략인 선군정치로선이 나오게 됨으로써 21세기는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정치의 승리의 세기로 빛나오르게 되였다.

6년, 너무도 짧은 이 력사의 한순간에 인류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세기적인 위업이 수행되였다.

오늘에 와서 보면 세계는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모르고 위대한 기적의 한순간을 지나 왔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과 검증의 6년이였다.

인류사상 가장 독창적인 혁명령도방식인 선군정치론은 그 발견도 세기적인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그 실천도 오랜 력사적과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거대한 로선의 발견과 검증을 여섯해라는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다 수행하시였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은 첫해, 첫 아침에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영생기원의 인사를 드리신 그 길로 찾으셨던 잊지 못할 다박솔초소, 조선이 장차 어느 길로 나가며 어떤 정치를 펼것인가를 두고 떠들던 세계앞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의 첫 모습이자 수령님의 서거후 맞은 첫해의 첫 혁명활동의 시작이였던 이 사연 깊은 초소길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였고 선군정치의 전면적인 력사가 시작되였다.

그렇게 시작된 이 길이 끝없는 전선길로 이어 졌으며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으로 해가 뜨고 해가 졌으며 달이 가고 해가 바뀌였다.

세계도 몰랐고 우리도 다 몰랐다.

공장들이 숨이 죽고 나라에 커다란 경제적 난관이 휩쓰는 때에 어찌하여 장군은 공장이나 농촌에 앞서 우리 병사들을 찾아 가셨는가.

총포성이 울리지 않은 그 나날에 우리가 매일같이 본 장군의 모습은 어찌하여 당중앙의 집무실이나 중요회의장의 연단이 아니라 위장망을 친 최전망지휘소의 작전대앞이나 중대의 병실, 바람 세찬 고지의 초소길에 계시는 최고사령관의 모습이였던가.

어찌하여 그이께서는 이 준엄한 행군의 첫 시기에 온 사회가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한 전례 없는 구호를 높이 드시고 이 운동에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며 그 처럼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는가.

사태의 본질은 오직 한분 우리의 위대한 장군만이 꿰뚫어 보고 계시였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 가는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 어떤 피값을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키고 봐야 한다, 나라를 지켜 내기만 하면 생활을 푸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망국노가 되겠는가, 자주적인민이 되겠는가, 오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선다.

장군은 이런 열화와 같은 단호한 선언을 피력하시며 어려울수록 더 자주 전선길을 걸으시고 괴로울수록 더 많이 병사들을 찾으시고 힘겨울수록 더 높이 선군의 기치를 드시였다.

위대한 령장이 력사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제국주의의 급소를 강력히 타격 하는 이 필승의 전략을 가장 명철하고 완강하게 틀어 쥐시였기에 원쑤들은 우리의 선군강경태세를 두고 그리도 앙탈을 부리며 악에 받쳐 발버둥친것이 아닌가.

황금소나기를 맞을듯이 ≪선경≫으로 질주하던 · 나라들이 초대국의 힘의 몽둥이에 눌리여 점차 발언권을 잃고 이른바 ≪번영≫의 허울밑에 강대국의 전렬에서 서서히 밀려 나고 있었다.

자존심이 강한 나라의 인민들이 나토공습에 ≪인간방패≫로 나서야 했고 고공 1만2천m에서 날아 오는 비행기들과 300여km앞에 있는 적진을 타격할 힘이 없어 조국땅을 내주어야 했던 가슴 아픈 비극이 인류의 눈앞에서 벌어 졌다.

선군혁명의 드센 바람은 노예의 운명을 스스로 감수하며 굴욕과 타협으로 숨 죽은듯 누워있는 세계를 정신이 번쩍 들게 뒤흔들어 놓았다.

오늘에 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장 무슨 변이 날것이라고 당황해 하며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목전의 곤난이 두려워 동냥이나 하러 다니며 경제건설에만 힘을 넣었다면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우리를 몇번이나 녹여 냈을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께서는 숨 죽은 공장이나 살리고 나라의 쌀독이나 채우는데 급급하신것이 아니라 벌써 오늘과21세기 먼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복잡다단한 세계정치흐름을 한손에 휘여 잡으시고 자주강국건설의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 오시였다.

사람들이여, 너무 쉽게 외우지 마시라.

정녕 우리 풍요한 세월에 선군을 했던가.

정녕 우리 배불리 먹으며 총대중시를 했던가.

그 누구보다 인민을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인민의 정상을 눈앞에 지켜 보시면서 선군을 하시자니 그 괴로움이 오죽했으랴.

그렇게도 조국을 사랑하시는 그이께서 재난이 드리운 조국산천을 매일, 매 순간 밟으시면서 병사들을 찾아 가시자니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였으랴.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방력강화를 위한 문건에 수표를 하시다가 인민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때에 이런 결심을 내리자니 정말 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다고, 난 이런 때가 제일 괴롭다고 하시였다.

한동안 아픈 심정을 달래시던 그이께서는 나직하나 격하신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자고, 인민들은 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였는가에 대하여 다 리해 하게 될것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승리한 오늘 우리는 인민에게 하고 싶었던 위대한 장군의 그 만단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다 듣고 있다.

정녕 우리 다 알았던가.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고생을 겪는 인민들생각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신 때는 그 얼마인지,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일 때마다 혁명의 군가를 부르시며 힘과 용기를 얻으시던 날이 얼마이고 최고사령부작전대앞에서 행복한 래일을 위한 원대한 설계도를 작성하시며 맞으신 그 아침이 얼마인지 우리 다 알고 이 길을 왔던가.

그누가 내 마음 몰라 준대도 희망 안고 이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늘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비가 와도 가시고, 눈이 와도 가시고, 해가 떠도 가시고, 해가 져도 가신 장군의 전선길, 피눈물의 고난을 뛰여 넘어, 환락의 대세를 단신으로 역행하여 오직 진리의 한점만을 향해 놀라우리만큼 완강하게 육박해 간 그 비범한 발자취를 더듬느라면 고리끼가 상상했던 한 전설적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뇌리를 친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따라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이냐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때 자기의 가슴을 헤치고 거기에서 심장을 꺼내여 머리우에 높이 추켜 들었다는 전설의 인간 단꼬, 그 심장이 태양보다 더 붉게 타고 그 거룩한 심장의 불길로 하여 앞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문학적형상이 아니라 생동한 현실로 보고 있다.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장군의 천재적예지의 산물이기전에 위대한 심장의 언어, 심장의 불길이였다.

참으로 얼마나 가혹한 희생의 나날이였는가.

매일같이 달라 지는 주소이고 움직이는 집무실이였던 장군의 전선길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니였다.

장군은 말그대로 빨찌산을 하셨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을 떠나 전선천리에서 야전생활을 하셨다.

그이는 전선사령관이시였고 혁명의 최고수뇌부는 언제나 최전선, 최전망에 위치하고 있는 전선사령부였다.

그이께서 입으신 잠바옷은 백두산야를 종횡무진하시던 빨찌산 김대장의 항일복이였고 그이께서 몰아 가신 야전차는 항일의 전구를 질풍처 달리던 빨찌산의 준마였으며 그이의 ≪쪽잠≫과 ≪줴기밥≫은 빨찌산식숙영방법이였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는 그이의 강행군현지지도는 빨찌산식 령도방식이였다.

우리도 보고 세계도 보았다.

장군은 진짜 장군이시였다.

모든것의 본질과 진면모가 여지없이 밝혀지던 그 나날에 세계앞에 나서신 위대한 그이는 천하대적을 한손에 휘여 잡고 쥐락펴락하는 백두산의 호랑이, 배짱이 담대하고 손탁이 드센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선군혁명로선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3살때부터 군인이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선군정치와 같은 그런 세계사적위업은 누구나 해낼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바로 장구한 혁명령도사를 통하여 군대를 당의 군대로 튼튼히 키워오신 그 불멸의 업적과 함께 위대한 군인, 천출명장으로서의 타고 나신 특출한 천품으로 하여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실수 있었다.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의 무적의 기치, 창조의 보검이였다.

사람들은 처음에 선군정치는 복잡한 정세의 요구나 ≪고난의 행군≫을 하는 특수한 시기를 반영한 일시적인 정치방식으로 생각하였다.

그리나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군대를 앞세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이 독특한 정치방식의 위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선군정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한 시대, 한 력사를 이끌어 온 승리의 기치였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군사는 물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 났으며 인간도 사회도, 투쟁과 생활도 새롭게 일신한 선군시대라는 완전한 하나의 새 시대가 개척되였다.

시대가 달라 졌다.

이것으로 하여 세상에 없는 우리 식의 새로운 국가건설체계가 형성되고 제국주의렬강들을 압도하는 자주강국의 강력한 정치외교전략이 마련되였으며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여는 독창적인 방식이 구현되고 온 사회의 강군화를 이룩하는 새로운 대세의 흐름, 새로운 인간풍모와 일본새, 새로운 정서가 생겨 나고 꽃 펴났다.

선군혁명의 길에서 항일의 7련대의 나팔소리,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정신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터져 오르고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신념의 강자들이 자라났다.

바로 이길에서 압살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세계정치흐름을 완전히 돌려 세운 자주의 봄바람이 불어 왔고 작은 나라인 우리가 오히려 ≪제국의 거상≫에게 관용과 아량을 베플어야 하고 그처럼 랭엄하고 도고하고 무정한 눈길을 던지던 세계가 우리를 향해 급작스럽게 돌변하고 있는 기상천외한 현실이 펼쳐 졌다.

선군정치의 힘에 떠받들려 55년 분렬의 장벽에 통금을 낸 백두의 통일뢰성이 터졌다.

선군에서 대홍단의 감자꽃, 열대메기양어의 웃음꽃이 피여 났고 선군에서 수많은 엄복순군인가정들이 생겨 나고 우리 시대의 혁명적노래와 새로운 생활문화가 창조되였다.

참으로 선군으로 하여 이 땅에 닥쳐 왔던 만가지 화가 날아 나고 선군으로 하여 희망과 신심을 안겨 주는 만가지 복이 왔다.

선군청치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시여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높이 든 자주강국건설의 최대의 전략적대강이다.

선군으로 고난을 이기고 선군으로 창조와 건설의 일대변혁을 이룩한 ≪고난의 행군≫, 주

체혁명의 새로운 한 시대를 펼치고 인류앞에 자주적운명개척의 최강의 무기를 마련해 준 위대한 **김정일**선군혁명로선은 강성부흥하는 민족사와 더불어 후세에 불멸할것이다.

3

땅과 물과 공기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수 있으며 그 어떤 기적도 다 창조할수 있다.

≪고난의 행군≫은 조선민족의 이 강의한 기질을 세계에 보여 준 잊을수 없는 행군이였다.

강계, 오늘 이 말은 ≪고난의 행군≫을 상징하는 시대어마냥 어디에서나 자랑스럽게 울리고 있다.

강계는 ≪고난의 행군≫의 가장 치렬한 전구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피어린 승리의 력사가 흘러 갔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생각하실 때면 자강도인민들을 외우시고 그들을 못내 그리워 하시고 정들어 제일 많이 찾으시면서 그리도 애착깊이 회억하시는 것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저 멀리 흘러 간 준엄한 나날들을 돌이켜 보시며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 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난의 행군≫시기에 나에게 제일 큰 힘을 준것이 강계정신입니다. 강계정신은 ≪고난의 행군≫ 시기 나에게 힘을 주고 의지가 되였습니다. 나는 강계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승리를 부르며 불길처럼 타오르고 돌진하고 몸부림친 영웅의 땅--강계, 간고한 투쟁과 승리의 그 나날은 선군정치와 함께 강계정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혁명사전에 올리였으며 ≪전선길≫과 ≪강계길≫이라는 두개의 아름다운 추억을 세월의 갈피에 남겨 놓았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는 장군님 걸으신 그 잊지 못할 북방의 6천여리 강행군길에 불어 치던 눈보라소리가 쟁쟁히 울려 오고 있다.

잊을수 없는 두해전1월 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방의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강계길에 오르신것은 ≪고난의 행군≫의 최후돌파전을 위한 중대한 결단이였다.

나라의 동력인 전력마저 바닥이 드러나 경제가 힘겨운 숨을 몰아 쉬고 있던 그때, 여기저기서 패배주의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일부 시각에서는 그 무슨 경제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며 하루빨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선택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던 그때 장군님의 심중은 실로 착잡하고 무거우시였다.

선군정치로 조국은 수호해 놓았지만 장차 기울어 진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추켜 세울것인가.

책상우에 쌓인 문건들을 보시면서 며칠밤을 꼬박 새우시며 천만가지 생각을 다해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우시여 강계길에 오르시였다.

그렇게 오신 장군님의 무거우신 심중을 강계인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이께서 왜 북방의 이 추운 정월에 부디 자기들을 찾아 오셨으며 보잘것 없는 자그마한 발전소들을 보시며 왜 그리도 기뻐하셨는지, 그이께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고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그들은 심장으로 다 느끼고 다 알고 있었다.

동무들이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시는 장군님앞에 그들이 드린 대답은 무엇이였던가.

– 장군님, 우리들에게 일감을 더 주십시오.

– 장군님, 패배주의자들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십시오. 이 타닝반으로 아예 밀어 버리고 말겠습니다.

드세고 맵짠 눈보라처럼 패배주의자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답새기는 강계로동계급의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으셨으랴.

한쪽에서는 우는 소리나 하고 엄동설한에 추운 방에서 떨기나 하고 있을 때 갈수기에도 발전기를 씽씽 돌려 공장도 돌리고 살림집의 전기난방화까지 착실하게 실현해 나간 자강도사람들, 다른 고장보다 더 극심한 식량난, 생활난을 겪으면서도 공장은 공장마다 궁전처럼 꾸려

놓고 거리와 마을마다 사회주의맛이 나게 일신시켜 찾는 사람마다 여기는 별세상이구나 하는 탄성을 저절로 터뜨리게 한 자강땅.

바로 그 정신이였다.

허리띠를 열백번 졸라 매도 우리는 이 하늘 아래, 이 땅우에 자기의 손으로 얼마든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정신, 우리 장군님께는 이런 정신을 지닌 용사들이 더없이 장하고 눈물겹도록 고맙고 미더우셨다.

참으로 귀중한 강계, 사랑이 가는 강계, 잊을 수 없는 강계였다.

강계정신! 사람들이여, 너무 가볍게 이 말을 외우지 마시라.

지금은 산허리들에도 점차 푸른 숲이 우거져 가고 거리와 집집마다에도 행복과 희망의 웃음꽃이 나날이 피여 나지만 때없이 사람들을 눈물에 젖게 하는 땅.

풀뿌리를 삶아 먹으면서도 쌀배낭이 아니라 거름짐을 지고 농장밭으로 나간 사람들, 들메나무를 ≪울며≫나무로 부를만큼 살아 견디여 내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을 친 사람들, 어린것을 육아원에 맡긴 그 길로 피눈물을 씹어 삼키면서 삽자루를 쥐고 발전소건설장으로 나온 녀인, 숨이 지는 순간에도 공장의 설계도면을 베고 죽은 사람들, 얼굴이 퉁퉁 부어 오르고 허기져 쓰러지면서도 ≪미국놈, 콱 망해라.≫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뽕 밭을 가꾼 사람들이 바로 자강도사람들이다.

강계는 혁명의 뿌리가 깊은 곳이다.

만경대와 백두산혁명가문의 3대위인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이 력사의 땅은 어려운 시기마다 혁명의 수뇌부와 운명을 함께 해온 전통있는 땅이다.

조국해방전쟁의 그 나날 최고사령부와 함께 있으면서 피대로 선반을 돌리고 망치로 두드리면서 원쑤격멸의 총포탄을 만들어 전선에 보내주었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아들딸들이 바로 오늘의 자강도사람들이다.

총과 화약냄새를 맡고 자란 이들, 혁명적군인정신의 첫 체현자들이라고 말할수 있는 자강도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의한 신념의 강자들, 모두가 영웅들이였다.

혁명의 수뇌부를 받드는데서 인민군대가 사수라면 자강도사람들은 부사수의 위치에 서 있다고 말할수 있다.

총대에 마치를 더한 정신, 선군시대에 가장 믿음직하게 화답하여 나선 강계정신이여서 그리도 귀중하고 그리도 위력한것이 아니였던가.

강계정신은 선군혁명의 총대바람이 일으킨 자력갱생의 마치바람이다.

지나 온 조선혁명은 자기의 매 시대마다 위대한 혁명정신을 창조하였으며 그 정신의 위력으로 승리와 위훈의 력사를 수놓아 왔다.

항일의 혈전만리길에 울렸던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빨찌산의 정신과 강선에서 타오른 천리마의 정신, 70년대 주체위업계승의 일대 전성기를 펼친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승리의 력사가 흘러 왔다.

강계정신은 가장 준엄한 시련속에서 창조된 위대한 장군님의 정신이다.

≪고난의 행군≫정신인 강계정신은 장군님의 령도가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에 창조된 위대한 정신이다. 그것은 장군님의 시대에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신념과 담력을 가장 높이 체현한 영웅의 땅에서 타오른 장군님식의 고난극복정신, 장군님식의 창조정신, 장군님식의 혁명적락관정신이다.

강계정신의 본질은 주체의 정신이다. 고난이 쌓일대로 쌓여 이제는 말그대로 산과 돌, 강밖에 남은것이 없고 남의 방조나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 날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디여 냈을뿐아니라 락원의 길을 남 먼저 열어 놓은것이 바로 주체의 의지, 강계정신이다.

고난을 견디여 내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하며 죽음의 막바지에서 번영의 길을 여는 인민의 창조력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를 보여 준 강계정신, 이 위대한 정신의 창조는 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인 시원을 열어 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오늘에 와서 보면 그것은 단순한 목전의 고난을 타개하고 살 길을 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였다.

바로 강계정신의 창조와 함께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며 수십년동안 마음속에 그려 왔던 강성대국건설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였던것이다.

강성대국건설,

이 불타는 애국의 열망은 ≪고난의 행군≫의 시작과 함께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선길을 걸으시나 공장길을 걸으시나 어느 한날, 어느 한순간도 떠난적이 없었다.

얼마나 위대한 조국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인민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가꾸어주신 사회주의 내 나라, 수령님 한평생 사랑해오신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 나의 조국, 나의 인민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만드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최대의 희망이고 최고의 목적이시였다.

≪고난의 행군≫도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셨고 선군혁명의 기치도 바로 이것을 위하여 드신것이였다.

기적의 땅-강계여, 말하라.

우리 장군님께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도 오시고 꽃 피는 봄날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오시고 이른 새벽에도, 밤에도 또 오시며 그렇게 여덟번이나 찾으신 그 류다른 사연은 무엇이였던가.

장군님의 강계길은 고난을 이기는 시범강행군길이였을뿐아니라 강성대국의 미래를 그려주는 광명의 길, 창조의 길, 락원의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자강도의 고산진에서 재진격의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면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결사수호전을 벌리는 여기 자강땅에서 강성부흥의 위대한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 가시였다.

고난을 돌파하는 모든 위대하고 귀중한 모범과 정신들이 여기서부터 생겨 났고 먼 후날에 가서 가슴 뜨겁게 추억할 눈물겨운 애국애민의 력사가 여기서 흘러 갔다.

사랑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 위대한 철리도, 고난속에서 웃는 혁명가의 웃음이 얼마나 위력한것인가를 보여 주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그 위대한 락관정신도 이 자강땅에서 나왔다.

자체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험과 세벌농사의 첫 시범도, 사회주의맛이 나는 살림집건설방식과 생산문화, 생활문화의 본보기도 바로 여기에서 창조되여 온 나라에 퍼져 갔다.

강계로 하여 패배주의자들이 입을 다물고 사람마다 잘 살수 있다는 자신감, 무궁번영할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으로 분발하여 일어 섰으며 강계로 하여 죽은 자가 산 자로 되고 동면하던 사람들이 난관을 맞받아 결사전에 뛰여 들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를 웨치는 용감무쌍한 일군들이 그 전렬에 섰다.

조국이여, 말하라.

강계와 더불어 꿈결에도 강성대국을 불러보며 너의 드넓은 대지에 그리도 뜨겁게 그리도 헌헌히 찍어 간 위대한 장군의 애국의 발자취는 정녕 그 얼마였더냐.

강계정신에 이어 새로운 전환의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 주신 잊을수 없는 성강과 락원과 백두삼천리벌에 강성대국건설의 첫봄을 불러 오시려 수차례나 찾으신 사연 깊은 대홍단, 그렇게 이어 진 그 길이 조국의 최북단에서부터 최전연까지, 동해에서 서해의 한끝까지, 공장길, 농장길과 마을길 굽이굽이 아득한 령길을 넘고넘으며 이 땅 그 어디에나 뻗어 갔다.

참으로 우리는 위대하다고 자부할만 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하였다.

살아 견디여 내는것자체가 기적이였던 최악의 위기에서 강성대국건설의 크나큰 목표를 내세우고 부강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은것은 세계를 놀래우는 신화와 같은 기적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속에서 나라가 흥하던 때에도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그런 거창한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허리띠를 졸라 매며 영웅적인 난관돌파전을 벌리면서 우리는90년대의 첫 기적인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완공하고 고속도로들과 명승지들, 드넓은 소금밭과 열대메기공장,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을 일떠세웠다.

가장 간고한 시련의 시기에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우주에 쏴올리고 세기를 두고 념원해 오던 토지정리의 천지개벽을 이룩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산소열법에 의한 우리식의 제철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감자농사혁명을 비롯한 21세기 희한한 번영을 예고하는 새로운 말들이 이 나날에 생겨 났다.

참으로 얼마나 값 비싼 희생의 대가로 열린 길인가.

이런 번영의 궤도를 마련해 주시자고 우리 장군님께서 그리도 밤을 많이 새시고 그리도 먼

길을 많이 걸으시고 그리도 애도 많이 쓰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뜨거워 오름을 금할수 없다.

력사에는 호미로 농사 짓던 나라를 원자탄으로 무장시켜 다음 세대에 물려 준 령도자나 비상한 수완을 발휘하여 불모지와 같은 땅에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한 성공한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과 같이 곤난에 처한 나라를 떠맡아 안으시고 일약 강성대국건설을 소리쳐 부른 그렇듯 담대한 수령, 허리띠를 졸라 매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기 조국을 세계적인 정치대국, 군사강국으로 인류의 면전에 당당히 올려 세운 위대한 령도자는 일찌기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력사는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노래할것이다.

우리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다.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바치는 창조의 피와 땀이 얼마나 달고 그런 세대가 쟁취하게 될 승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것인가를 우리는 벌써 빈 말이 아니라 생활로써 가슴 벅차게 느끼고 있다.

우리의 후대들은 잊지 않으리라.

먼 후날 우리의 아들딸들은 피어린 고난의 행군속에서 우리가 목숨 바쳐 가꾸어 놓은 나무에서 강성대국의 큰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창조와 위훈에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감사와 영원한 축복의 꽃다발을 엮어 드릴 것이다.

4

혁명은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이다.

우리의 ≪고난의 행군≫은 이 성스리운 혁명의 진리를 다시금 자기의 자욱에 피로써 아로새겼다.

수령님의 령전에서 장군님과 함께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떠난 이 길,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신념의 인간, 의리의 인간들이 찍어 간 이 행군길이 력사에 남긴 또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은 무엇인가.

그것은 최고사령관은 앞장에서 승리의 진군로를 열어 나가고 군대와 인민은 최고사령관을 천겹만겹으로 에워 싸고 그이와 생사운명을 함께 해온 혼연일체의 력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인민들과 ≪고난의 행군≫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어떤 고충과 고생을 겪는지 다 알게 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인민의 령도자, 최고사령관이 되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의 세계사적승리는 선군혁명의 포성, 강계의 눈보라와 함께 혼연일체의 불패의 위력이 안아 온 력사적승리이다.

장군은 인민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나서시고 인민은 장군을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해온 그 눈물겨운 이야기, 겪을대로 다 겪어 온 최악의 시련과 사선의 고비들에서 굶어도 함께 굶고 얼어도 함께 얼고 싸워도 함께 싸우며 피와 정을 나눈 만단의 력사를 세월이 간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우리가 그처럼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말해 왔던 위대한 장군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어떤것인지.

장군에 대한 인민의 신념이 어떤것인지 온 세계앞에 보여 준 위대하고 성스리운 나날이였다.

고난의 그 시기 조국이여 우리를 보라는 조선청년의 심장의 웨침소리가 그리도 우렁차게, 그리도 자랑스럽게, 그리도 용감하고 눈물겹게 울려 퍼졌던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 한명한명이 다 강철의 투사들이였고 시대의 영웅들인 이곳 청년건설자들의 심장속에 불덩이처럼 끓어 오르는것은 무엇이였고 이 격렬한 싸움터가 만사람의 심금을 그처럼 세차게 울려 준

것은 무엇이였던가.

이 전설장으로 남 먼저 달려 와 땅땅 얼어 붙은 땅을 까내며 착공의 첫삽을 박았던 ≪11월 투사들≫의 이야기도 무심히 들을수 없고 자갈을 담아 지고 달리다 터지고 벗겨진 잔등의 피가 그대로 슴배여 있는 마대, 너무 지치고 허기지여 그것을 부둥켜 안고 안타까이 울던 애어린 처녀의 눈물자욱이 력력히 남아 있는 마대도 격정 없이는 볼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려주는것은 고난의 시기에 장군님과 청년들, 장군님과 인민들사이에 오고 가는 혼연일체의 정이 얼마나 깊고 강렬한것인가를 말해 주는 숭엄한 화폭이다.

≪로반우에 해가 뜨면 장군님 그립습니다≫라는 글말을 수십메터 길이의 대형속보판에 써붙이고 말그대로 살이 찢겨 흙이 되고 뼈가 부서져 자갈이 되여100리 청춘로반을 닦아 간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 그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인용자 주)을 5만명 대합창으로 부르는 날 북받치는 격정에 노래 절반, 눈물 절반이 되여 만사람을 울렸다는 그 가슴뜨거운 이야기

그렇다.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의 그 준엄한 시절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격전의 사선천리를 영웅적으로 돌파하여 왔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부른 ≪고난의 행군≫의 주제곡이라고 말할수 있다.

온 나라 인민이 적후천리 먼 곳에서 장군님을 그리며 기어이 최고사령부를 찾아 간 녀전사의 그 불덩이 같은 심정을 안고 싸웠다.

이 신념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끊임 없는 심장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허리띠를 졸라 매고 막장길, 농장길을 걸을 때도, 너무도 쓰리고 아픈 마음의 상처를 안고 남 몰래 눈물짓던 그 밤에도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힘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고난의 행군≫길에서 장군님과 우리 인민사이에 맺어 진 혼연일체는 사상과 뜻으로 하나가 될뿐아니라 피와 정으로, 그리움으로 통하는 이 세상 가장 진실하고 절절하고 순결한 혼연일체였다.

≪고난의 행군≫길에서 더 짙어 지고 억세게 다져 진 이 혼연일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 온 단결보다 한단수 높은 새로운 경지의 단결이였다.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함께 우리의 단결도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사상과 뜻을 같이 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단결로부터 인간의 정을 함께 나누는 보다 진실하고 순결한 관계로 우리 단결의 높이가 올라 갔다.

≪고난의 행군≫은 조선혁명의 력사우에 또하나의 새로운 단결의 원리를 밝혀 준것으로 하여 불멸의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움, 세상에 이 말처럼 인간의 마음을 강렬하게 틀어 잡는 말은 없으리라.

인간의 불 타는 마음,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정과 그지없이 아름답고 고결한 일편단심이 이 한마디 말속에 울리고 있다.

사상적공통성이 인간적인 정으로 흐를 때 그 관계야말로 진짜혼연일체라고 말할수 있다.

정으로 통하지 못하는 사상, 그리움이 없는 숭배는 랭정한 리해타산이나 실무적인 융합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이 정으로 통하고 정이 사상으로 통하는 그 완전무결한 혈연의 세계야말로 혁명의 길에서 수령과 인민이 창조하는 위대한 생활이다.

여기에 땅우에는 준엄한 나날이 흘러 갔어도 장군님과 인민의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뜨겁고 깊은것이 오고 갔는가를 감동 깊게 말해주는 우리 인민의 심장의 고백이 있다.

잊지 못할 자강도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평범한 녀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귀전에 쟁쟁히 남아 있다.

≪고난의 행군≫의 흔적이 그 얼굴이며 옷차림에 력력히 새겨 있던 녀인, 어려웠던 그 나날에 남편도 잃고 혼자서 아들딸 세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별의별 고생을 다 겪은 그 녀인의 한마디 말이 왜 그리도 우리의 가슴을 쳤던가.

≪무슨 고생인들 없었겠나요. 그리나 진짜고생은 장군님 그리운 고생이였습니다.≫

아, 그 어느 철학가인들 이런 말을 할수 있으랴.

그 어느 문장가인들 이런 말을 지어 낼수 있으랴.

장군님 그리운 고생!

이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우리 인민에게서만 들을수 있는 참으로 눈물겨운 심장의 언어이다.

정녕 잊을수 없는 그리움의 6년이였다.

장군님 타신 궤도전차를 보고 군인들과 대학생들, 녀인들과 아이들이 장군님을 목 메여 부르며 힘이 진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려 간 그 화폭이며 초소에 오신 장군님 품에 온 중대가 안겨 행복의 노래 부르고 그이께서 떠나실 때는 너무 아쉬워 병사들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서던 이야기, 강냉죽을 먹으면서도 ≪어머니,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회칠을 해놓자요. 혹시 장군님께서 우리 집앞을 지나가시다가 어지리운것을 보시면 또 걱정하실것이 아니나요.≫라고 하며 집 뜨락을 알뜰히 거두었다는 한 이름 모를 소녀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하며 그리움에 불 타는 인민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쳐 흘렀다.

랑림은 지금도 눈물에 젖어 있다.

장군님 오셨던 그날로부터 날과 달이 흘러 어느덧 한해가 되지만 영광의 그날에 달아 올랐던 환희의 열광은 좀처럼 식을줄 모른다.

누구를 만나보나 그날의 이야기만 꺼내면 눈물부터 흘리는 랑림사람들, 이제는 일을 하다가도 길가에 지나가는 승용차의 경적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텔레비죤을 보다가도 문득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나 밤 가는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군 한다는 이 고장 사람들의 심중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다.

— 지금도 꼭 꿈을 꾼것 같애요. 부모곁을 떠난 자식들도 한번 찾아 오기 쉽지 않은 이곳에 글쎄 우리 장군님께서 오실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 굉장했습니다. 사적관쪽에서 만세소리가 나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 산에 올라 가 감자밭을 가꾸던 사람들이 하얗게 읍거리로 달려 나왔는데 내의바람에 뛰여 나온 사람, 신발을 꺼꾸러 신고 나온 사람, 지붕우에 올라 선 사람, 장군님께 드리자고 길가의 코스모스를 한아름 안고 달려 온 사람, 마치 계방의 물이 터진것처럼 사람들의 물결이 걷잡을수 없이 밀려 왔습니다.

—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선생이 장군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환성을 터치자 온 학교학생들이 와하고 거리로 달려 나갔는데 글쎄 우리 장군님께서 차창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계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군님!—하고 목 메여 부르고 또 부르며 우리 장군님 타신 차가 저 멀리 령길로 사라질 때까지 정신없이 따라 달렸습니다.

듣고들어도 끝이 없는 그 이야기, 쏟고 쏟아도 바닥이 없는 그 그리움의 세계는 랑림의 높은 령을 넘어 이 땅의 그 어느 곳, 그 누구에게나 다 이어 져 갔다.

그리움은 어려운 때 생긴다.

광풍이 더 모질게 불어 치고 고난이 더 무섭게 겹쳐 들수록 그리움의 파도는 더 세차게 굽이쳤다.

어려우니 그립고 괴로우니 그리웠다.

비가 오니 그립고 눈이 오니 그리웠고 해가 뜨니 그립고 해가 지니 그리웠다.

그리움은 지어 먹을수도 없고 돈으로 살수도 없으며 권력으로 강요할수도 없다.

거짓도, 꾸밈도 없는 인간의 순정이고 심장의 매혹인 그리움은 고난속에서 피와 정을 나눈 위인에게 주는 인민의 완전무결한 믿음이다.

노을이 피여 나는 이른 아침에 인자하신 그 영상을 그려 봅니다라는 노래와 함께 너무도 조용히 인민에게 오셨던 그이, ≪영광스리운 당중앙≫,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그 인민적호칭과 함께 70년대의 속도전의 시대에 이어80년대 번영기를 펼치신 그이, 고난의 오늘 우리앞에 서신 그이,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전쟁≫속에서 우리가 본 그이는 백두산의 호랑이, 천하무적의 장군이시였고 사랑과 열정으로 불 타시는 위대한 인민의 아들, 위대한 인간이시

였다.

이 나라 천만 식솔의 오늘과 래일의 운명을 지켜 총대를 잡고 전선천리길에 나서신 위대한 장군의 강의하고 용감무쌍한 모습을 우러를 때면 비록 배는 허기지고 생활은 어려워도 우리 얼마나 힘이 나고 마음이 든든했던가.

오늘도 저 구월산이 전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한없이 울려 주고 있다.

전화의 그 나날에 평양시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를 보아 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락관주의정신의 재현이였던 장군님의 구월산 현지지도길, 무서운 자연재해가 련이어 들이닥쳐 나라에 기아가 휩쓸었던 그 처절한 해들에 부디 이곳 명승지들을 찾으시여 조국강산을 더 아름답게 꾸릴 원대한 설계도를 펼쳐 주신 우리 장군님의 깊은 심중에 차 있는 그 숭엄하고 무한한 세계를 병사들과 인민들은 심장의 눈으로 읽었다.

인민이 잘 살 행복의 그날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으면, 불행을 당하는 인민의 정상을 보는것이 얼마나 괴로우시였으면 ≪때아닌 때≫에 여기에 오르셨으랴.

여기에 오르시여 장군은 시종 웃고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웃음속에 흐르는 장군의 깊은 진정을 보았다.

고난에 힘이 지칠세라 희망과 락관의 웃음만을 활짝 뿌려 주신 장군님의 구월산길은 인민에 대한 가슴 뜨거운 위로였고 가장 진실한 격려였다.

간고한 그 세월 우리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감추신 고충과 괴로움 그 얼마이시였고 인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한 그 얼마나 많으셨으랴.

어려웠던 그 나날에 그이께서는 인민들앞에 단 한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였고 공식연단에 나서시여 연설 한마디 하지 않으시였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고뇌를 많이 겪으시였고 그 어느 시기보다 인민들과 말 없는 심장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였다.

장군은 기뻐도, 슬퍼도, 배 곯아도, 추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

병사들과 함께 조국방선의 전호가에도 서 계시였고 인민들과 함께 강냉죽도 드시였으며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이 나라 어머니들과 함께 남 모르는 눈물도 흘려 보시였으며 동지를 잃고 부모처자를 잃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슴 찢는 피눈물도 삼키시였다.

살아 버티는것이 목전의 과제였던 그 험난한 세월에 사람들은 기껏해야 제 한몸이나 제 한 가정의 고통만을 이겨 내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장군은 천만의 매 한사람, 매 한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다 걷어 안고 다 속속들이 느끼시며 다 풀어 나가야 했으니 그이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진하고 진한 고뇌의 피눈물이 흘렀으랴.

오늘에 와서 보면 그이께서 걸으신 걸음만큼 승리의 길이 열리고 그이께서 바치신 희생의 대가만큼 조국의 짐이 떨어 졌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 오른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관으로서는 물론 보통인간으로서도 겪지 말아야 할 고생을 다 겪으셨고 가시지 말아야 할 험한 길을 다 가시였고 당하지 말아야 할 아픔을 다 당하시였다.

그래서 인민은 장군을 사랑했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장군님 생각이 더 났고 그래서 지쳐 쓰러지면서도 더 사무치게 장군님을 그리워 한것이 아니랴.

그리움은 기적을 낳았다.

장군님에 대한 눈물겨운 체험과 절대적인 믿음,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원쑤들을 물리치는 무적의 힘이였고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해 내는 비상한 정신력이였다.

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그리며 달렸다.

저 서반구의 한끝 쎄빌랴의 한복판에 마라손폭풍을 일으킨 민족의 장한 딸이 세상을 향하여 터친 이 웨침.

온 지구를 뒤흔든 조선의 장한 딸의 진짜 기적은 바로 이 한마디 말에 있었다.

전대미문의 고난을 겪는 나라의 비상한 정신력의 밑뿌리를 가장 명백하고도 가슴 후련히 파헤친 이 대답은 전 세계를 놀래웠다.

그렇다.

온 조국이 그렇게 달렸다.

그리움을 안고 불사신마냥 일어 섰고 용감무쌍히 돌진했으며 그리움을 안고 기적과 위훈을 창조했다.

최고사령관의 총폭탄근위병들은 그 불타는 그리움을 안고 적후에서 기어이 장군님 품으로 돌아 와 안기였고 망망대해에서 최후의 순간 평양하늘을 우러러 ≪아, 장군님!≫이라고 목 메여 부르며 사품치는 바다에 목숨을 던졌다. 우리의 지식인들은 그 순결한 그리움에 심장의 숨결을 더하며 우리 당의 과학중시로선관철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갔으며 신념의 피가 뛰는 붓대로 제국주의머리우에 사상의 ≪글폭탄≫을 드세게 퍼부었다.

참으로 얼마나 준엄한 격전의 나날이였던가.

원쑤들은 장군님과 우리 인민사이에 굳건히 이어 진 피줄기를 끊어 놓으려 했고 사회주의 성새에 금을 내고 그 성돌을 하나하나 떼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했다.

수뇌부로부터 군대를 분리시키고 당으로부터 인민을 떼내려는 무서운 흉계가 끊임없이 꾸며지였다.

≪고난의 행군≫은 우리의 일심단결과 그것을 파괴하려는것과의 무자비한 싸움이였다.

어려운 그 세월에 우리는 지난 날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그러나 비록 껍질은 터갈라지고 아지는 휘여질수 있어도 우리의 혼연일체의 거목은 인민의 대지에 더 억세게 뿌리 내렸으며 우리의 대가정은 줄지도, 흩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튼튼히 다져 졌다.

어쩔수 없는 사연으로 멀리 흩어 졌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수백리씩 걸어서 한날한시에 선거장에 찾아 와 투표했다는 이야기며 자기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료해하려고 온 중앙의 일군에게 우린 어떻게 하나 견디여 내겠으니 장군님께 우리들의 정상을 절대로 보고 드리지 말아 달라고, 장군님께서 인민들때문에 너무 마음 쓰시지 않게 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한 서해의 이름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을 둘러 보면 재난의 시기에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로 피난해 밀려 가는 민족들이 수없이 많다. 지어 검은 빵보다 흰 빵을 먹는 것이 더 좋고 별장생활과 외국관광을 하는것이 더 즐거워 민족의 존엄을 팔고 게걸스럽게 환락의 세계로 찾아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루 말할수 없이 어렵게 살면서도 자기 조국의 품, 수령의 품을 떠나지 않은 인민이 있었거니 그 위대한 정신력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령도자에 대한 깨끗한 의리와 량심, 불 타는 그리움이였다.

피와 정으로 흐르는 이 혈연의 뉴대, 그리움은 모든것을 이겼다.

고난도 이기고 강적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다.

장군은 인민을 그리고 인민은 장군을 그리며 피어린 격전의 폭풍우를 해쳐 온6년, 이 위대하고 장엄한 혼연일체의 대행군속에서 장군은 인민의 영원한 믿음을 얻었고 인민은 장군의 영원한 사랑을 얻었다.

그리움에 기초한 새로운 혼연일체를 창조한 ≪고난의 행군≫은 이 땅에 천추만대 끄떡없고 영원히 필승불패해 갈 신념의 기둥을 억세게 박아 놓았다.

하여 력사는 인민의 대지우에 장엄하게 타오르는21세기의 태양, 강성대국의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5

장군님 따라 우리는 기어이 승리하였다.

승리! 우리 얼마나 이 말을 피타게 부르짖으며 격전의 혈전만리길을 불사신처럼 달려 왔던가.

지금과 같이 승리라는 이 말이 그렇게 장엄하고 그렇게 무게 있게, 그렇게 눈물겹게 울린 때는 없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굳센 인민이였는가 하는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이 오늘처럼 눈물겹도록 떳떳하고 긍지로 왔던 때는 일찌기 없었으리라.

우리는 ≪고난의 행군≫길에서 민족사적, 세계사적대승리를 이룩하였음을 당당히 선언하며 온 세계에 소리높이 웨진다.

10월의 하늘가에 붉게 타는 우리의 당기여, 군기여 말하라.

피어린 싸움길을 승리적으로 헤쳐 온 이땅의 천만인민이여, 머리를 높이 들어 긍지높이 자

부하라.

우리는 세계제국주의렬강들과 맞서 조국을 수호한 위대한 기적의 창조자, 인류의 자주와 평화를 피로써 지켜 낸 20세기의 유일한 승리자, 유일한 영웅민족으로 력사무대에 위풍당당히 솟아 올랐다.

전대미문의 투쟁과 사변으로 가득찬 인류의 전진운동이 우리의 ≪고난의 행군≫과 하나로 련결되여 있었다.

력사에는 나라와 민족들이 생사결단의 운명을 걸고 치른 투쟁과 칠렬한 격전들이 많았다.

정의로운 군대와 혁명가들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무쌍히 헤쳐 간 대장정들과 죽음도 두려움없이 돌진해 간 ≪철의 흐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행군≫과 같이 민족의 생존만이 아니라 세계의 정치흐름과 인류의 전도에 그렇듯 심대한 영향을 미친 극적인 사변은 흔치 않았다.

오늘에 와서 보면 우리가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세계의, 사회주의위업도 없고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자주와 평등에로 전환하는 오늘의 세계의 변화도 없었을것이다.

빠리콤뮨으로부터 보아도 장장 백수십년에 이르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는 자기의 갈피마다에 피어린 투쟁의 력사를 수많이 아로새겼다.

아브로라의 포성을 울리며 20세기 초엽에 출현하였던 사회주의가 이 세기의 말엽에 가슴아픈 붕괴에 직면한것은 또 얼마나 뼈저린 교훈을 남겨 놓았는가.

진보적인류가 간고한 력사를 통하여 개척해 온 사회주의투쟁의 력사가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져 버리는가 다시 솟구쳐 일어 나는가하는 력사의 갈림길에서 사회주의는 인류의 정의이며 영원한 과학이라고 소리높이 웨치며 일떠선 위대한 인민이 있었거니 그것이 바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였다.

이 세기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혁명적원칙에 충실한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그 장엄한 신념의 대하가 바로 우리의 ≪고난의 행군≫이였다.

우리의 이 간고한 행군의 력사적승리로 하여 20세기는 사회주의붕괴가 아니라 사회주의승리의 세기로 자랑스럽게 총화될수 있었으며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 온 조선혁명의 붉은기가 21세기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부르는 희망의 불길로 힘차게 나붓기게 되였다.

우리는 세계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였다.

류례 없는 세계대전과 랭전으로 이어 진 20세기는 자기의 마지막년대에 들어 서면서 제국주의초대국의 1극세계로 빠져 들어 가고 있었다.

제국주의강권과 전횡, 압살이 뻐젓이 감행되고 그 횡포함에 감히 맞서기를 두려워 하는 또 하나의 제국의 암흑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도적인 제국주의힘의 정책에 의하여 주권국가들이 마구 폭탄세례를 받고 침략과 굴욕을 당하는 비참한 참상이 인류의 면전에서 빚어 졌다. 그 부정의한 세계에 항거하여 완강히 맞선 결사의 대전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행군≫이였다.

세계적판도에서 볼 때 우리의 ≪고난의 행군≫은 제국주의침략과 압살을 끝장내고 인류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이였다.

인류가 영원히 제국주의힘에 눌리워 사는가 아니면 자주적이며 존엄 있는 세계에로 나가는가 하는 두 길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행군≫의 승패에 달려 있었다.

실로 온 세계의 중압이 22만km의 절반밖에 안되는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에 와서 보면 인류의 전도와 세계정치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하고도 심각한 싸움이 저 유럽이나 중근동, 발칸반도가 아니라 동방의 조선에서 벌어 졌다.

그렇다. 우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었고 우리의 목소리가 울리지 않은 땅이 그 어디에 있었으며 우리의 타격이 가닿지 않는 적진이 그 어디에 있었던가.

사회주의를 수호한 우리의 기쁨은 첫 사회주의국가의 탄생을 안아 온 10월혁명의 기쁨과 같이 환희로우며 제국주의의 압살공세를 막고 세계의 자주와 평화의 새 시대를 부른 오늘의 사변은 파쑈의 무리들을 력사의 무덤에 처박아 넣은 40년대의 세계대전의 승리와 같이 가슴후련하다.

≪고난의 행군≫은 단순한 정의의 수호만이 아니라 21세기 주체혁명의 새로운 한 시대를 개척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고난의 여섯해가 지나간 지금 우리는 어둠의 장막을 헤치며 솟아 오르는 해돋이와 같은 새 시대의 탄생을 환희롭게 체험하고 있다.

번개의 격전끝에 무지개가 비끼고 눈보라 치는 엄혹한 겨울 끝에 봄이 오듯이 ≪고난의 행군≫의 간고한 싸움끝에 온 세계를 향하여 **김정일**강성대국이 닻을 올렸다.

그렇다. 위대한 6년의 산파는 밝아 오는 저 력사의 지평선에 21세기의 태양을 안아 올렸다.

이 장엄한 새 력사의 해돋이를 위해 이 땅에서는 그리도 격렬하게 번개가 치고 그리도 무섭게 우뢰가 울고 그리도 모질게 눈보라가 친것이 아니랴.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적인 령도적권위와 강위력한 정치체제가 세계앞에 전면적으로 검증되고 완전무결하게 공인된것이 ≪고난의 행군≫의 최대의 승리이며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김정일**시대가 출현하는것이 이 장엄한 행군의 세계사적총화이다.

참으로 걸출한 위인, 위대한 장군이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력사의 대지우에 완전히 새로운 자기의 밭을 갈아 놓으시였다.

자신의 정치방식과 리념, 신념과 결단, 자신의 피와 땀, 사색과 리상으로 자신의 생명체와 같은 새로운 한 시대, 새로운 력사를 창조해 놓으시였다.

고금동서의 장구한 력사를 돌이켜 보아도 그렇듯 완전무결한 정치철학과 풍부하고도 독창적인 창조력을 가지고 그렇듯 확신성있게 새 시대에 들어 선 인민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가 예언하고 고대했던 21세기 태양의 출현과 고난의 나날에 강렬하게 그려 보았던 강성조선의 모습이 일장의 꿈이 아니라 눈앞의 생동한 현실로 펼쳐 지고 있다.

참으로 얼마나 경이적인 현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는가.

백두산에서 한나로 조국통일의 용용한 기류가 억세게 뻗쳐 지고 판문점의 외통길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의 하늘길로, 동해와 서해의 바다길로 겨레의 통일대하가 줄기차게 이어 지고 있으며 북과 남이 하나되여 저 백두의 높이처럼 세계의 강성대국으로 솟구쳐 오르게 될 휘황한 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위대한 백두장군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리전선길과 강성대국건설의 폭풍우를 해쳐 온 우리의 ≪고난의 행군≫대오가 마침내 대륙과 대양을 건너 제국주의아성을 궤지르고 침략과 압살의 사슬을 들부시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대원정에 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서 이룩한 승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진격에로 넘어 가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때의 그 정신, 그 의지, 그 본때로 살며 싸우고 승리해 나가자.

이것은 혁명의 우뢰를 터쳐 21세기 태양을 받들어 올린 오늘, 피어린 격전으로 열어 놓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기슭에서 우리가 높이 든 영원한 필승의 기치, 영광스러운 삶의 구호이다.

≪고난의 행군≫정신, ≪고난의 행군≫투쟁기풍은 영원히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주체혁명의 또하나의 새로운 투쟁전통, 강성대국건설시대의 위대한 창조와 승리의 기치이다.

력사는 전통을 낳고 전통은 또 새로운 력사를 창조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명개척의 필승의 보검이며 만능의 전법인 이 전통은 새 시대가 개척되고 그것을 위한 가장 준엄한 투쟁이 벌어 지는 시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다.

승승장구해 온 조선혁명은 전통의 힘으로 승리한 력사였다.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의 머리우에 불벼락치며 백두광야에 붉은 피 뿌려 간 항일혁명의 20성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찌산대오의 백두행군길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창조하시였다.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21세기 강성부흥의 새 시대의 령마루에 오른 오늘 위대한장군님께서는 류례없이 준엄한 도전이였던 6년간의 조국수호전을 통하여 이 시대의 력사적의무를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항일의 전통의 계승인 ≪고난의 행군≫전통을 창조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의 또하나의 거대한 력사적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민족번영의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다고 당당히 자부할뿐아니라 이 거창한 시대에 맞는 독특한 혁명방식과 정치전략, 풍부한 투쟁경험과 기풍, 무적필승의 전법을 가지고 새로운 21세기에 들어 설수 있게 되였다.

령도자의 출현과 함께 그의 사상과 리념, 정치전략과 령도예술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검증되는 시기에 이룩된 모든 승리들과 투쟁 방식들은 하나의 전통을 이룬다. 아직 그 누구도

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과제를 완수하고 아직 그 누구도 헤쳐 보지 못한 고난의 길을 뚫고 오는 나날에 터득한 정신과 기백, 전략과 방법은 특출한 업적으로 력사의 성공탑에 새겨 져 길이 남을뿐아니라 민족이 대대손손 구현해 나갈 귀중한 재보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철학과 독창적인 령도예술이 집대성되여 있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만고풍상의 눈물겨운 력사가 뜨겁게 새겨 져 있는 ≪고난의 행군≫사에는 우리가 영원히 강대하고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번영할수 있는 모든 정신과 방법이 다 있다.

우리 시대 자주위업수행의 필승의 전략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장 빛나게 구현한 우리식의 새로운 정치방식인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로선은 ≪고난의 행군≫전통의 근본 정수를 이룬다.

우리 장군님께서 잊지 못할 강행군의 눈보라길에서 창조해 주신 강계정신과 장군님과 인민이 시련의 나날에 피와 정으로 튼튼히 이어 온 혼연일체는 이 땅에 후손만대 번영을 안아 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 길에서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선민족의 근본정신, 근본원천이다.

백두령장의 위대한 선군정치아래 고난의 싸움길에서 창조되고 생겨 난 모든 투쟁방식들, 하나하나의 경험과 투쟁이야기들이 다 귀중하고 의의 깊은것이다.

조국수호의 그 나날 우리 인민군대에서 처음으로 높이 들고 온 사회에 일색화된 장군님결사옹위의 총폭탄정신, 공훈합창단의 노래에 천만 인민이 심장의 발걸음을 맞추어 온 최고사령관의 독창적인 군가정치, 나라의 가풍이 ≪로동가정≫으로부터 ≫군인가정≫으로 한단계 비상히 높아 진 새로운 현실, 우리 혁명사전에 새롭게 올려야 할 언어들인 ≪수령영생(首領永生)≫, ≪혁명적군인정신≫, ≪감자농사혁명≫, ≪구보진군(驅步進軍)≫, ≪준마속도(駿馬速度)≫

오늘만이 아니라 먼 래일의 조국의 미래를 뚜렷이 그려 주고 우리의 전진과 승리를 튼튼히 담보해 주는 이 풍부한 창조물들의 위력의 한계는 그 무엇으로도 다 가늠할수 없다.

참으로 우리는 피어린 격전의 여섯해를 통하여 사람들이 끊임없이 학습하며 수양하게 될 위대한 혁명의 성서, 영원한 독본인 ≪고난의 행군≫대백과전서를 써놓았으며 후손만대가 대를 물려 가며 자랑하게 될 ≪고난의 행군≫혁명박물관을 이 땅에 쌓아 올렸다.

≪고난의 행군≫혁명전통으로 싸우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조선은 영원히 강성대국으로 솟아 빛날것이다.

전통은 혈통이다. 항일의 혁명전통의 계승인 위대한 ≪고난의 행군≫전통을 틀어 쥐고 나가는 길에 백두산장군혈통을 대를 이어 받들어 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는 이 전통의 위력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혁명위업을 드팀없이 받들어 나갈것이며 조국통일과 21세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완성하고야 말것이다.

위대한 승리자들의 대오가 10월의 광장으로 들어 서고 있다.

세기와 세기가 바뀌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맞이하는 우리 당 창건 55돐, 그것은 ≪고난의 행군≫승리자들의 대축전이다.

얼마나 많은 열혈의 충신들이 이 승리의 날을 그리며 자기의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쳐 왔던가.

오늘의 가슴 벅찬 이 언덕에 우리와 함께 오지 못한 사람들, 장군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심장을 바친 영웅들과 수많은 애국충신들이 이 광장에 제일먼저 들어 서고 있다.

그렇다. 제국주의와 맞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한 20세기의 최강의 군대, 최강의 민족이 맞이하는 오늘의 10월은 세계사적인 ≪전승≫일로 력사에 빛나고 있다.

이 땅에 울릴 10월의 환호는 ≪고난의 행군≫의 승리자들의 만세소리로 터져 오를 것이며 저 경축의 광장에 굽이칠 장엄한 시위는 ≪고난의 행군≫승리자의 열병식으로 세계를 진감할것이다.

백두의 충대와 충성의 일념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천년만년 영생하도록 하시고 자주위업의 새 세기를 펼친 민족의 영웅, 인류정의의 수호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이시여, 인민이 드리는 최대의 영광을 받으시라.

조국이여, 승리의 단상에 높이 오르신 우리의 위대한 장군을 위하여 영원한 감사의 축포를 쏴올리라.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을 우러러 승리의 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 가는 천만의 군대와 인민은 심장으로 합창한다.

위대한 ≪고난의 행군≫승리 만세!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

우리는 감회깊이 추억하리라

로동신문

(평양 주체 89년 1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29일부 ≪로동신문≫은 정론 ≪우리는 감회깊이 추억하리라≫를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희한한 력사의 사변들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승리의 2000년이 장엄하게 저물어 간다.

피눈물의 바다를 헤쳐 넘고 폭풍 사나왔던 혁명의 넌대와 넌대들을 넘어 20세기 령마루에 올라 선 우리의 눈앞에 붉은기를 펄펄 날리며 걸어 온 력사의 험산준령들이 굽이굽이 아득히 펼쳐 졌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중심의 단결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쳐 흘러 온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잊지 못할 첫 기슭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머나먼 길을 걸어 왔던가.

오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굴복시키며 걸어 온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맞고 보낸 수십성상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살점이 되고 피와 넋이 되여 광명한 21세기에로 이어 질것이다.

1

추억의 눈이 내린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 온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20세기 마지막해 2000년을 보내는 승리자들의 환희의 감정 하늘에 닿았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고난도 희생도 있었지만 붉은기를 높이 들고 20세기 승리의 령마루에로 억척같이 걸어 온 길은 정녕 몇천몇만리였던가.

7천만 조선민족의 기쁨과 환희가 눈송이처럼 펑펑 내려 쌓인 행복의 2000년이다.

백두산눈보라가 온 세상에 폭풍을 일군 승리의 2000년이다.

저기저 백마흔아홉굽이 월비산이며 지혜산과 철령, 흰 파도 설레이는 동서해의 섬초소에로 조국이 보내는 축하의 인사 하늘땅에 차고 넘쳤다.

제국주의원쑤들이 풀 한포기 건드릴수 없었던 고지의 산발마다에서 시작되는 승리의 환희는 내 조국의 산과 들 넘어 공장과 협동벌, 조국의 거리거리와 마을들에 차고 넘쳐 온 나라 강산에 2000년 승리의 기쁨, 20세기 승리의 환희가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우리는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20세기 사회주의승리자가 되였다.

사회주의승리자

성스러운 력사를 돌이켜 보는 우리 가슴 한없이 설레인다.

사회주의승리자

이 한마디 말속에 올해 2000년과 20세기 조선혁명에 대한 가장 가슴 부푼 추억과 비길데 없는 영예가 있고 강성부흥의 21세기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크나큰 신심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을 벌려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력사에 류례 없는 엄혹한 정세에서, 가장 준엄한 난관과 시련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켜 내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계에 높이 떨친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의 승리이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승리입니다.≫

2000년이 장엄하게도 흘러 왔다.

희한한 사변으로 가득찬 2000년과 더불어 20세기 조선혁명이 긍지높이 총화되였다.

2000년은 20세기 조선혁명의 빛나는 절정을 장식하였다.

반만년민족사에서 2000년과 같이 력사적사변이 많은 해는 드물었다.

화를 복으로 만들어 놓은 2000년,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놓은 2000년, 봉쇄와 압력을 적들의 항복으로 만들어 놓은 승리와 영광의 2000년이였다.

2000년

20세기와 21세기 교차점에 선 이 해를 떠나서 흘러 온 20세기를 총화할수 없으며 걸어 갈 21세기를 내다 볼수 없다.

2000년을 어떻게 장식하는가 하는데 한세기의 업적을 빛내이는가 빛내이지 못하는가, 새 세기의 승리를 기약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크게 달려 있었다.

2000년이 어떻게 결속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지나온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이 결정되게 되였다.

사회주의냐 제국주의냐, 통일이냐 분렬이냐, 정의냐 부정의냐 하는 민족과 인류의 백년천년의 흥망문제를 걸고 2000년이 흘러 왔다.

우리는 사회주의승리자로서 시대와 세기앞에 2000년을 소리높이 자랑한다.

조선의 2000년은 력사앞에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떳떳이 하였으며 수천년력사가 이룩할수 없는것들을 기적적으로 해놓았다.

우리의 2000년은 망국으로 시작되였던 조선의 백년사를 사회주의의 존엄 높은 승리로 총화하고 미래의 통일강성대국의 궤도를 열어 놓은 2000년이였다.

2000년은 영웅적≪고난의 행군≫ 승리가 온 세상에 선언된 력사적인 해였다.

2000년은 장장 오랜 세월 얼어 붙었던 분렬의 장벽에 분화구를 터친 민족대경사의 해였다. 2000년은 조선의 사회주의위력앞에 제국주의가 무릎을 꿇은 해였으며 온 세상이 조선을 향하여 20세기 승리자의 축하를 보내온 장쾌한 경사의 해였다.

온 세상에 대고 통장훈을 부를만한 2000년의 요란한 승리는 조선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 주는 20세기의 거대한 사변이였다.

2000년에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력사적승리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20세기 력사는 수천수만일동안 아득하게 흘러 왔다. 전쟁과 정화, 분쟁과 회담, 크고작은 조약들과 선언들, 로케트시대, 콤퓨터시대, 유전자공학의 시대를 열어 놓은 놀라운 발견발명들과 현대과학기술의 발전,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의 크고 작은 사변들과 사건들로 끝없이 이어 지면서 100년이라는 기나긴 력사가 쉬임없이 흘러 왔다.

세상은 넓고 력사는 길었지만 이 세기의 사변들중에서도 사회주의의 출현과 그 붕괴를 낳은 비극적사변 그리고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고수된 기적적사변이 사람들을 크게 놀래웠다. 사회주의출현과 함께 20세기가 밝아 오고 사회주의붕괴와 함께 20세기가 이어 졌으며 조선에서 사회주의수호와 함께 20세기가 총화되였다.

탄생의 진통도 겪어 보고 붕괴의 홍수에 잠겨 보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최후마당에서 별의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사회주의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숨 걸고 지켜 주는 운명의 수호자가 누구였는가를 피눈물속에 검증하였다.

자주의 리념을 ≪ㅌ.ㄷ≫의 기발에 새겨 넣은 때부터 장장 70여성상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며, 전쟁의 탄우속을 헤치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걸어 오면서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 서지 않은 영웅적조선인민, 우리 인민의 이 백절불굴의 투쟁사가 2000년과 더불어 빛나게 결속되였다.

력사적인 200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경축하는 내 조국땅에서 승리의 축포가 하늘땅을 진감할 때 세계는 바로 그것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끝끝내 이긴 조선의 자랑찬 뢰성이라는것을 커다란 격동속에 깨달았다.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여 온 우주공간을 채우면서 날아 왔던 축전들과 축하편지들의 흥분된 글줄들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영웅적≪고난의 행군≫의 승리이자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우리의 력사적인 승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10월의 축포를 우리는 얼마나 가슴 후련하게 쏘았던가.

언제나 침략과 략탈, 예속과 지배를 노리는 제국주의는 사회주의가 출현한 후 자기의 주되는 사상적적수인 사회주의나라들을 소멸하든가 아니면 약화시켜 보려고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 써 왔다. 그 결과로 이 지구상에서 평화의 기본담보로 되였던 사회주의체계를 허물어 버리

는 천추에 용납 못할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경제력과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의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영웅적인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수십년간 강화발전시켜 온 혁명무력이 있었고 거대한 령토와 인구, 수십만의 당원들이 있었으나 붉은기를 지켜 내지 못했으며 자기의 당도 군대도 선렬들의 기념탑과 국가마저도 지켜 내지 못한 통절함으로 가슴을 치는 동유럽의 수많은 인민들은 사회주의의 유일한 수호자인 조선인민을 뜨거운 선망속에 우러러 보고 있다.

자기의 붉은 기발을 되찾고 국가의 선률을 다시 찾으려고 모지름 쓰는 심각한 투쟁속에서 그들은 버리기 쉽고 잃기는 쉬워도 되찾기 힘든 사회주의승리자의 존엄에 대하여 피눈물을 삼키면서 체험하고 있다.

령토상 대비로 보면 미국땅의 78분의 1이고 인구상 대비로 보면 미국의 10분의 1이며 력량상 대비로 보면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선 조선이였으나 그 싸움에서 승리자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조선이였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승리의 이 기쁨 너무도 커서 발목이 진하도록 걷고 또 걸으면서 승리의 회포를 한껏 터치고 싶다. 내려 쌓이는 흰눈에 발목을 실컷 담그면서 승리의 희열속에 딩굴고 싶다.

승리는 이처럼 신성하고 위대한것이다.

장쾌한 승리를 이룩한 내 조국땅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사회주의생활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하나씩하나씩 풀려 나가고 있는가.

무수히 일떠세운 크고작은 발전소들의 덕을 보는 자강땅에서는 띵띵 얼어 터지는 이 한겨울에도 전기로 밥을 짓고 전기로 방을 덥히며 전기로 목욕물을 덥히고 한증을 하는 생활의 웃음 꽃이 활짝 피여 나고 있다.

력사적인 토지정리로 천지개벽을 이룩한 조국의 협동벌을 바라보는 기쁨은 얼마나 크고 평양의 한복판에 흐뭇하게 들어 앉은 메기탕집에서 구수하고 뜨끈뜨끈한 별맛을 보는 즐거움 또한 얼마나 이채로운가.

동해바다기슭에 무연한 소금밭이 생겨 나 땅의 생김새가 또 달라 지고 여기저기서 새 공장들이 일떠서 부흥번영의 새라새로운 징조가 마음을 흥분시킨다.

강성대국의 대통로인양 아득히 펼쳐 진 청년영웅도로는 그 이름처럼 떳떳하게 사회주의승리자의 존엄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이런 성과들은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밝게 해주는것인가.

우리의 2000년은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연 거대한 승리의 해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바라고 소원하는 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은 민족의 대경사였다.

통일무지개가 온 북남삼천리에 비낀듯 7천만 겨레가 어깨춤을 추면서 맞고 보낸 2000년의 낮과 밤들, 조선민족의 피를 안고 누구나 눈물을 흘리고 흥분으로 잠 못든 통일의 열기들, 그 열기도 바로 사회주의승리자의 열기였다.

우리는 봄날의 눈석이처럼 분렬의 얼음장이 풀려 나가는 장쾌한 현실을 목격한 2000년 동시대인들이며 통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고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한 우리 눈앞에 있다는것을 확인한 2000년의 증견자들이다.

2000년의 이 통일대통운이 2001년에는 더 활짝 꽃 필것이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온 겨레가 통일의 함성을 세상에 소리 높이 터칠 그날은 기어이 올것이다.

우리의 2000년은 승리한 사회주의조선이 세계의 면전에 떳떳이 나선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

우리를 그처럼 못 살게 굴던 제국주의가 항복해 나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조선이 련전련승하는 통쾌한 현실을 목격한 세계는 앞을 다투어 조선에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00년과 더불어 조선민족 5천년력사에 있어 보지 못한 외교정치의 일대 사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 조선이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소식, 우리 나라와 국가관계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징조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실앞에서 지금 온 세계가 벅적 끓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그처럼 많은 공수를 들인 조선에 대한 봉쇄가 허물어 지고 있는 뚜렷한 표시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승리를 과시하는 력사적인 쾌거였다.

우리는 이처럼 통쾌하게도 승리하였다.
희한하다 승리의 2000년이여

2

추억의 나날이 뜨겁게 흐른다.

무슨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도 험난한 길을 웃으면서 걸어 왔던가. 그 무엇이 우리를 사회주의승리자로 만들어 주었는가. 우리의 2000년을 그리도 희한하게 만들어 주신 력사의 주인공이 어느분이신가.

선군혁명의 기발을 높이 추켜 드시고 20세기 령마루에로 이 세계를 이끌어 오신 위대한 령장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 주는 성스러운 2000년

밀림의 긴긴 밤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눈이 내린다는 노래는 오늘의 위대한 백두산장군 이야기, 사회주의수호장군이신 **김정일**장군님을 흠모하여 천만의 심장에서 끝없이 울리고 있다.

20세기 력사우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 올리신 사회주의수호장군 **김정일**동지

그이는 백두산의 아들이시다. 그이는 백두산의 기상을 안으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 나서신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다.

김정일장군의 2000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였다.

백두산

이 나라 장군별의 력사가 시작된 조종의 산 백두산, 아직 겨울의 맵짠 눈보라가 천지에 폭풍을 일구며 치솟는 백두산정에서 그이께서는 북남삼천리와 온 세상을 굽어 보시였다.

조선의 20세기는 어떻게 총화될것인가, 사회주의수호전이 어떻게 결속되며 분렬의 력사가 어떻게 될것인가, 조선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계앞에 나서게 될것인가.

흘러 온 100년 력사가 남기는 민족적과제가 해답을 기다리고 앞으로의 새 세기가 또 그 해답을 기다리는 세기의 분수령에 거연히 서신 백두령장 **김정일**장군.

소리없이 흘러 간 장군님의 백두산의 항일전구행군이 력사에 준 충격은 얼마나 컸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눈보라를 맞으시며 걸으신 백두산행군길에서 조국통일신념이 더 억세게 다지여 지고 **김정일**장군의 백두산의 행군길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종작전도가 완성되였으며 제국주의를 항복시키고 하늘땅이 차넘치게 승리의 만세를 터칠 경축의 사변이 준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이 땅에는 4월의 통일격파가 천지를 뒤흔들고 장군님께서 또 한번 걸음을 내디디시니 6월의 통일파문이 또 한번 세계를 뒤흔들었다.

백두산선군바람을 안고 세기를 주름 잡으신 **김정일**장군님의 자욱자욱을 따라 이 땅에는 10월의 축포성이 요란하게 터졌으며 사회주의수호전의 만세소리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제국주의와의 정치전에서도 **김정일**장군이 이겼고 군사전에서도 조선의 **김정일**장군이 이겼으며 외교전에서도 **김정일**장군이 이겼다는것을 대서특필한 외국의 출판보도물들, 온 우주공간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를 보도하는 전파로 차넘친 승리의 2000년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2000년을 빛나는 승리로 결속 지으신 20세기의 위대한 령장이시다. 그이는 20세기 령마루 백두산에 올라 서시여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시며 2000년 대승리의 전과를 안아 오신 위대한 장군이시다.

온 세상에 백두산의 눈보라가 휘몰아 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고사령부 나팔소리를 더 높이 울리며 나아가신 선군혁명령도는 통채로 백두산의 총대바람이였다.

백두산눈보라의 도도한 열풍처럼 선군정치의 폭풍은 이 지구를 휩쓸며 정의와 부정의, 불변과 배신, 충신과 역적, 순결한것과 잡다한것을 명백히 갈라 놓았으며 영웅적인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진리성을 온 세상에 떳떳이 과시하였다.

온 세계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매혹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따라 2000년이 흘러 왔다.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십성상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 오시였던가. 얼마나 머나먼 길을 천신만고로 헤쳐 오시였던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잊을수 없는 나날 위인께 매혹된 혁명전사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를 목 메여 부르며 한품에 안길 때 동지애의 한 없는 정으로 심장을 불 태우신 열혈의 장군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갈 주체의 혁명대오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영광넘친 첫 기슭을 떠날 때 우리앞에 이렇게도 모진 광풍이 불어 칠줄을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제국주의와의 평화적공존과 평화적경쟁을 떠들고 있던 어느 한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였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대표단을 영접할 때 붉은 꽃이나 붉은기를 적게 내놓는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일 좋아 하시는 색도 붉은색이고 내가 제일 좋아 하는 색도 붉은색이고 제일 사랑하는 기발도 붉은 기발이다, 수령님의 신념이 비껴 있는 붉은기는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발이다, 비겁한 자들이 붉은기를 버리고 달아 나도 더 높이 휘날려야 하는것이 붉은기이며 죽으면서도 더 높이 들어야 하는것이 붉은기이다, 붉은기는 수령님의 신념의 상징이자 나의 신념의 상징이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그때 평양시가 더욱 붉은색으로 단장되였으며 우리를 자본주의에로 안내해 보려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이야기는 얼마나 깊은 사연을 남기고 있는가.

1980년대 중엽, 다른 나라에서 대포를 녹여 보습을 만들자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데 ≪적기가≫ 노래를 계속 보급해도 되겠는가고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쥐≫의 우화를 들려 주시면서 박쥐처럼 형편을 보아 가면서 새편에 붙었다 들쥐편에 붙었다하며 동요하고 변절하는 인간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심각히 깨우쳐 주시였다.

들려 주시면서 박쥐처럼 형편을 보아 가면서 새편에 붙었다 들쥐편에 붙었다하며 동요하고 변절하는 인간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심각히 깨우쳐 주시였다.

외국출장을 떠나는 한 일군에게 일부 나라들에 사회주의를 저버리려는 경향이 나타나 진통을 겪고 있는데 홍역에 걸리지 않겠으면 ≪적기가≫를 부르라고 당부하시며 혁명전사를 배웅해 주신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에서는 사회주의수호자의 신념이 얼마나 뜨겁게 불 타고 있었던가.

사회주의수호전의 수십성상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붕괴의 홍수가 터지고 우리에게로 일시에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는 그 엄혹한 시기에 제국주의원쑤와 맞서 단신으로 나서신 절세의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사회주의만세를 부르던 ≪영웅≫도 ≪장군≫도 저 하나의 안락을 위해 원쑤들앞에 붉은 기발을 내놓고 뒤걸음 쳤을 때 이 세상 오직 한분 **김정일**동지만이 혁명의 기치, 선군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수호성전에 나서시였다.

사회주의수호성전에 나서신 **김정일**장군의 결사의 모습은 그대로 백두밀림에서 조국광복성전을 벌리시던 빨찌산장군 **김일성**장군의 모습이였다.

어버이수령님 열어 주신 조국광복의 길을 사회주의수호의 길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

수령님 넘어 오신 백두의 행군길에 또다시 피어린 자욱을 남기시며, 수령님 맞으시던 백두의 설한풍을 기꺼이 맞으시며 그이께서 걸어 오신 혁명의 길, 고난의 사회주의수호전을 우리 어찌 천년만년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으랴.

성에 불린 밀영의 귀틀집 등잔불가에서 광복성전의 작전도를 구상하시던 20세기 위대한 백두산장군 **김일성**장군의 모습을 우리는 **김정일**장군님 계시는 오늘의 최고사령부에서 보았다.

지혜산과 철령 넘어 전방의 초소가 그이의 작전실이였고 동서해 섬초소와 중대병실이 그이의 선군혁명령도 마당이였으며 높고 험한 이 나라 산발마다 안 가신데 없이 다 올라 보신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이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강성대국건설길이였다.

바로 그 길에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이 세상에 나왔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는 사회주의수호장군의 혁명적신념이 선언되였으며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의 숭고한 도덕의리라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동지, 위대한 혁명가의 뜨거운 호소가 메아리쳐 울렸다.

사회주의수호전선에 계시는 그이의 발자국소리는 온 세계를 진감시켰다.

사상도 백두산사상, 정신도 백두산정신, 령도방식과 활동방식도 모두다 백두산식이였다. 그이는 정녕 백두산장군위력으로 온 세계를 한손에 틀어 쥐신 전설적인 백두의 령장이시다.

백두산장군

이 세계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해 낼 절세의 위인은 오직 그이 한분이시였다.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그이께서 몰아 가시는 혁명의 기관차는 력사의 험산준령들을 넘으며, 파도 사나운 망망대해를 헤가르며 ≪고난의 행군≫승리의 기적소리높이 20세기의 높은 령마루에 올랐다.

우리의 ≪고난의 행군≫력사가 6년으로 기록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각오로 빨찌산행전을 마음속에 두르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 나서신것은 벌써 오래전이였다.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사회주의가 겪게 될 엄중한 시련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던 때의 오래전 어느 날 북방으로 달리는 렬차안에 앉으신 친근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의 로투사에게서 빨찌산이야기를 듣고 계시였다.

한초한초가 천금처럼 귀중하신 장군님께서 시간을 아낌이 없이 백두산시절의 고난의 행군에 대하여 자꾸만 물으시는 그 사연을 로투사도 다는 알수 없었다.

생눈을 씹어 삼킬 때 마음이 어떠했는가, 눈속에 빠져 들어 갔을 때 어떻게 헤여 나왔는가, 행군길에서 쓰러졌다가 무슨 힘으로 일어 나서 대오를 따라갔는가. . . . 고난의 행군과정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 가시며 심오하게 새기시는 장군님의 온몸에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 친대도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실 결심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렇게 나서신 사회주의수호성전이였다.

백두산장군가문의 총대를 차고 사회주의승리에로 가는 혁명의 숫눈길우에 빨찌산장군의 군화자국을 찍으며 혁명의 천만대오를 이끌고 **김정일**장군님께서 걸어 오신 사회주의수호의 천만리길,

참으로 신비한 력사의 순간순간이 장쾌하게 흘러 갔다.

병사와 인민들을 찾아 가시는 전선길에서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을 탄생시키시고 대홍단의 감자농사혁명, 온 나라의 토지정리혁명을 일으키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는 장군님의 현지지도활동은 얼마나 감동적이였던가.

동해기슭에 소금밭이 생겨 난 소식, 수천개의 뙈기밭들이 없어 진 소식, 이름도 처음 듣는 창조물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솟아 났다.

멀지 않아 조국통일념원이 실현될것이라고 사람마다 환희로 들끓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선군혁명령도가 가져 온 열매는 이렇듯 풍만한것이였다.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혹심한 식량난과의 투쟁, 무서운 추위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대결전이 하나로 엉켜 졌던 항일전의 고난의 행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련을 다 겪어야 했던 준엄한 력사를 단신으로 헤쳐 오신 강철의 인간 **김정일**동지

천교령의 눈보라속에서 희생된 전우를 묻어 줄만한 포근한 땅이 없어 눈을 덮어 묘소를 만들며 피눈물을 흘리신 수령님처럼 혁명동지들의 희생앞에서, 인민들의 고생앞에서 장군님아의 눈물을 대줄기처럼 흘리신 마음의 상처는 그 얼마인가.

가자 조국에로, 나무껍질을 우려먹으면서라도 가자, 희생도 있을수 있고 우여곡절도 있을수 있다, 총검의 숲을 헤치고 가야 할 이 길에 간난신고가 왜 없겠는가, 백두산쪽만 쳐다보는 인민들에게 빨찌산의 총소리를 높이 울려 주며 발자국을 크게 찍자 조국광복성전의 고난의 행군길에 울리던 **김일성**장군의 이 심장의 독백을 그대로 마음속에 안으시고 가자 강성대국에로, 제국주의원쑤들을 물리치며 어서 가자고 선군정치의 나팔소리를 우렁차게 울리시며 사회주의승리의 력사를 용감하게 개척해 오신 위대한 장군이시여

력사가 드리는 다함 없는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인민이 드리는 2000년 승리의 축하를 받으시라, 만민이 드리는 20세기 영광의 꽃다발을 삼가 받으시라

3

2000년 마지막밤 **김일성**광장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선률을 담은 제야의 종소리 숭엄하게 울리면 저기 백두산정에서부터 21세기 새 아침이 바야흐로 밝아 올것이다. 새 세기의 려명이 밝아 오는 그 아침 온 세계는 백두산을 우러러 21세기 태양을 맞이할것이다.

수령복을 받아 안은 조선의 21세기는 휘황찬란하다.

장군복을 지닌 **김일성**민족의 21세기는 영광으로 빛날것이다.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에서 사회주의의 영원한 주인으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것이다.

민족의 앞날은 수령복으로 결정된다.
찬란한 미래는 장군복을 지닌 인민의것이다.
추억의 돛을 달고 저 멀리 20세기 첫 기슭을 내려 가보면 망국의 슬픔으로 하늘땅을 쾅쾅 두드리던 조선민족의 통곡소리 가슴을 친다.
≪시일야방성대곡≫에서 울린 민족의 피 타는 절규는 오늘도 가슴을 치고 평양성에 울리던 망국의 종소리는 지금도 귀전을 두드려 준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의 조선을 보라.
그 누구도 이제는 조선민족을 숙볼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인민을 다시는 노예로 만들수 없다. 오늘은 우리 조선이 온 세계에 자랑 떨치는 **김일성**조선, 백전백승의 영광을 떨치는 주체의 강국으로 되였다.
대를 이어 가며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에게는 통일강성대국의 웅대한 설계도를 안으시고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 주시는 전설적위인이신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 21세기 태양을 모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외국의 한 신문은 ≪워싱톤은 끝내 평양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북조선은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실었다.
≪서방의 정치가들은 북조선을 정치적고립에서 벗어 나도록 도와 주는것이 나라를 보다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만들수 있게 해줄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즉 세계가 **김정일**령도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일**령도자께서 전세계에 영향을 주시고 있는것이다. ≫
온 세계를 비치는 승리의 태양 **김정일**장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함박눈을 펑펑 맞으며 제야의 종소리 울리던 광복년의 그 밤처럼 우리는 수령복을 안고 21세기를 맞는 민족의 영광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제야의 종소리를 높이높이 울릴것이다.
위대한 장군님 모신 우리의 기쁨, 장군님 모신 우리의 행복과 긍지가 그대로 종소리 되고 수령복, 장군복속에 새 세기를 맞이하는 행복의 웃음, 기쁨의 눈물도 종소리에 함께 실려 온 세계에 울려 퍼질것이다.
승리의 태양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사회주의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고 눈보라치는 ≪고난의 행군≫길에서 가시는 곳마다 뿌려 놓으신 부흥번영의 씨앗들이 눈서리를 헤치며 움터나고 있다. 장군님 그려 주신 강성대국의 휘황한 설계도를 안고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 되여 가꾼 승리의 열매들이 나날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대홍단벌에서의 감자수확도 기쁜일이지만 열대지방에서 살던 아프리카 타조가 우리에게 길들여 진것도 희한한 일이다. 이제 또 어떤 과학발명소식이 세상을 깜짝 놀래울지, 어떤 놀라운 경제특보가 터지겠는지 예측할수 없다. 승리가 우리 편에 있다는것이 확고히 인정되자 세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와 가까이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승리를 마중 가는 우리의 행군길은 변함이 없다.
주체혁명위업은 개척도 숫눈길이고 계승도 숫눈길이며 완성도 숫눈길이다.
남들이 걸어 보지 못한 숫눈길우에 성스러운 행군자국을 찍으면서 정의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사회주의승리자들이 가는길이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 오면서 우리는 자기가 시작한 주체의 길이 천백번 옳았다는것을 확증하였고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며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며 조선혁명가들이 반드시 성취할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라는것을 온 세상이 격동속에 깨달았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시련이 닥쳐 오든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언제나 하나, 백두의 행군길이다.
위대한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붉은 기발을 높이 추켜 들고 조선혁명의 최고사령부를 결사옹위하면서 우리는 백두의 행군길을 억세게 걸어 갈것이다.
사람들이여
승리의 이 언덕에서 다시한번 뒤돌아 보시라.
우리는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다.
평범한 공장구내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신념의 글발을 새기였던 우리의

락관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것이였던가.

구월산의 바위우에 고난의 마지막해라는 랑만의 글발을 새기였던 병사들의 그 신념은 얼마나 신성한것이였던가.

무거운 마대를 지고 달리면서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이 눈앞에 그려 본 미래, 파도치는 동해바다 물결우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뜨겁게 실어 보내며 영웅전사들이 그려 본 조선의 앞날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것이였으랴.

돌아 보고 또 돌아 보아도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혁명의 천만리길, 위대한 장군님 따라 온 승리의 천만리길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고 쓴 이 나라 시인의 마음속에는 정녕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소중하게 가득차 있는것인가.

수천만의 영웅인민이 피어린 투쟁속에 닦아 놓은 승리의 길

시련이 크다고 눈물 뿌리며 걸어 온 길이라면 우리의 추억 이렇게도 아름답지 못할것이다.

시련이 클수록 더 크게 웃으면서 걸어 온 길이기에 우리의 추억은 이렇게도 아름답고 신성한것이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걸어 온 우리의 발자국은 20세기 추억으로만 남아 있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면서 걸어 온 혁명의 천만리길에 찍혀 진 우리의 자욱자욱은 조선혁명의 21세기에도 그 다음세기에도 **김일성**민족이 걸어 갈 백두의 행군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

승리의 앞길을 내다볼수록 우리가 걸어 온 길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 우리의 삶이 참말로 값 높은것이였음을 뜨겁게 절감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을 희한한 해였다고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승리와 영광이 기약된 조선의 21세기에 대하여 확신하시였다.

시련의 고비를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혁명전사들과 함께 걸어 온 길을 추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옛말할것도 많아 졌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혁명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락관의 감정이 언제나 우리 심장을 세차게 두드려 준다.

인민은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장군님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면서 걸어 온 잊지 못할 혁명의 천만리길이여,

장군님 따라 걸어 온 영광의 이 길을 우리는 영원히 웃으면서 추억하리라.

얼마전 2000년의 뜻 깊은 12월 24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고난을 헤치고 20세기 령마루에 올라 선 영웅조선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대표하는 우렁찬 선률이 장내를 뒤흔들었다.

우리 앞길에 태양이 찬란하고 우리 앞길에 봄빛이 아름다와 조선은 영원히 승리할것이라는 병사들의 랑만의 노래는 희한한 2000년을 보내고 새 세기의 문을 열게 되는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영광의 감정을 뜨겁게 폭발시키였다.

태양과 봄빛이 찬란한 조선의 앞날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차 있으리라.

수천만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는 백전백승에로 부르는 백두산장군별의 노래가 있고 백두광명성의 노래가 있으며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기약하는 아름다운 새별의 노래가 있다.

백두산장군혈통으로 자손만대가 이어 질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승리의 앞길에 눈이 내린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소리치며 일떠설 내 조국의 앞길에 축복의 눈이 펄기펄기 내려 쌓인다.

천리수해 백두산발에서부터 저기저 한나산 끝까지, 아침해 솟는 나라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부터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넘어 이 세상 끝까지 햇솜 같은 흰눈으로 주단을 펴 놓고 21세기 태양을 맞이하고 싶어라.

송이송이 꽃다발을 아름답게 엮자.

온 세상을 다 덮게 꽃송이 엮어 우리의 백전백승의 영광의 기치이신 승리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자.

우리의 행복과 기쁨,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와 사회주의승리의 상징이신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영광, 영광을 드리자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들인 ≪로동신문≫과 잡지 ≪근로자≫가 공동으로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의 론설을 발표하였다.

론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발표되였다.

공동론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3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로정은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는 사회주의정치의 빛나는 귀감이 창조된 의의깊은 나날이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구현해나가시는 기본정치방식은 선군정치이다. 이 위대한 정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보루를 지키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현실은 선군정치야말로 현대사회주의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정치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시대의 완성된 정치방식

세계무대에 사회주의정치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과정에 사회주의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각이한 류형의 정치방식이 나왔다.

정치방식이란 정치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체계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정치방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정치의위력과 정치제도의 공고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백수십년에 달하는 사회주의정치사는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는 완성된 정치방식을 모색하여온 과정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정치사에서 미해결로 남아있던 이 중대한 문제가 우리 당의 선군정치방식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와 반제자주 세력이 가장 격렬하게 맞서고있는 투쟁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자면 마땅히 군사가 중시되여야 한다.

선군정치방식은 바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령도방식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군대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치방식이다. 이것으로 하여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하고 리상적인 정치방식으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혁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의 사회주의정치사전반이 곧 선군령도사라고 말할수 있다. 이 독특한 선군정치의 위력이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엮어진 지난 5년간에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에 세계의 이목은 우리 당이 어떤 정치를 펼것인가 하는데 집중되였다. 이러한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유산인 우리 식 사회

주의를 고수할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것은 결코 당면한 정세만을 념두에 둔 전술적인 조치가 아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초인간적인 의지와 정력으로 주체83(199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만도 무려 12만 350여리의 머나먼 군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5년 혁명실록은 눈오는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변함없이 수많은 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농촌들을 찾으시며 우리의 국방력과 전반적국력을 튼튼히 다져오신 선군혁명령도의 력사이다. 그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있었기에 ≪고난의 행군≫의 모든 시련이 극복되고 화가 복으로 전환된것이다. 선군정치로 하여 우리는 제국주의강적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인민들은 선군정치의 길을 단호히 선택한 우리 당의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현실을 창조한 정치는 시대의 각광을 받기마련이다. 지금 세계정치계는 사회주의정치사에 처음으로 출현한 선군정치방식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오늘에 와서 선군정치가 시대적추세에도 맞고 사회주의본성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완성된 정치방식이라는것이 명백해졌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구사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치이다.

사회주의정치의 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떠난 정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옳바른 정치로 될수 없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있다. 혁명군대와 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리해관계, 지향과 념원은 완전히 일치한다. 군대를 중시한다는것은 인민을 중시한다는것이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운다는것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운다는것이다. 이것은 지배와 폭압의 수단이 아니라 인민속에서 나왔으며 인민에게 복무하는 우리 군대에 의해서만 가능한것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무한대이다. 그 무궁무진한 힘이 최대한으로 발동되게 하자면 인민들이 혁명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따라배우며 온 사회에 혁명군대의 투쟁 정신과 기풍이 차넘치게 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는것이 선군정치이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정치는 마땅히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실시하는 국방중시가 인민의 리익과 배치되는것처럼 사실을 오도하여왔다. 심지어 그들은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정치를 ≪군권정치≫라고 악랄하게 비방하여왔다. 이것은 군대와 인민이 완전히 적대관계에 있는 자본주의나라에나 통하는 론리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군사를 강화하는 길이 애민의 길이고 애족의 길이다. 총대를 떠나서 인민의 안녕도 행복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군사를 중시한다는것을 그 누구에게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군사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업이기때문이다. 정정당당하게 군사중시를 주장하는 우리당의 립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주체적힘으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가장 자주적인 정치이다.

자주는 나라와 인민의 생명이고 혁명의 생명이다. 사회주의는 자주이지 결코 예속으로는 될수 없다. 우리 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정치가 자주정치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주체적력량으로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데서군사는 특출한 역할을 한다. 그 누구의 압력에도 끄떡없이 자주성을주장하는 정치적배짱도, 혁명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가는 정치적결단성도 군사적힘에서 우러나온다. 군사가 든든하면 남의 눈치를 볼것도 없고 남에게 눌리울것도 없다.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있고 자립도 있다.

오늘의 복잡다단한 세계에서 자기의 자주적대를 끝까지 고수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평시에는 요란스러운 언사로 자주를 웨치다가도 대국이 군사적압력을 가하면 굴종을 감수하는 례도 적지않다. 이런것이 주대가 없는 빈말정치이다. 자주는 말과 구호로써가 아니라 총대에 의하여 고수된다. 사회주의정치가 명실공히 자주적인 정치가 되자면 군사를 내세우고 군사적력량을 백방으로 다지는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는것, 이것이 20세기 사회주의정치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선견지명있는 정치이다.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총대의 역할은 사회주

의정권을 세울 때에도 절대적이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고 완성하는 시기에도 절대적이다. 이렇게 혁명의 미래를 내다볼 때 사회주의정치는 시종일관하게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에서 군사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보는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이다. 정세가 긴장하면 군사를 강화하다가도 정세가 완화되면 군사를 약화시키며 사회경제적과업이 전면에 나서면 국방을 줴버리는 일이 사회주의정치에서는 허용될수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무덤을 파는 길이다.

예로부터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는 말이 있다. 선견지명있는 정치가는 언제나 앞날에 있을수 있는 사태까지 예견하고 군사에 힘을 넣는 법이다. 경제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추설수 있지만 군사가 주저앉으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된다. 선군의 원칙이 구현되는 혁명이 미래가 양양한 혁명이다.

인류는 멀지 않아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20세기 사회주의정치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의 하나는 혁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선군정치방식이 창조된것이다. 이 독창적인 정치방식은 21세기에도 우리 시대의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는 불패의 정치

사회주의위업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을 동반한다. 사회주의정치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정치사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한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나 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에서도 승리하였고 사상적대결과 정치외교적대결에서도 승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5년 혁명실록은 무비의 담력과 의지로 제국주의자들에게 련속타격을 가하여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은 승리의 기록이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두고 반혁명의 역풍을 과감히 뚫고 기어이 이기는 공격형의 정치라고 말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심각한 사상적대결을 승리에로이끄는 위력한 정치이다.

제국주의와의 사상적대결은 힘의 대결에 못지 않게 간고한 투쟁이다. 이 첨예한 대결전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성이 강하고 사상적신념이투철한 전위부대가 있어야 한다. 그 담당자가 바로 혁명군대이다. 군대가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면 사회주의의 지탱점이 허물어지게된다. 설사 인민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군대가 견결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질수 없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와해되던 과정이 이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사회주의사상적보루를 지키는 묘술이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혁명군대를 먼저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민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 때 사상진지가 금성철벽으로 다져질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5년간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상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의 사상상태부터 료해하시고 충실성교양과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하여 군인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모든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이렇게사상사업선행의 정치원리로 일관되여있다. 이 혁명적령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을 낸게 한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문화적 침투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는 더욱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숨쉬고 사고하는 우리 인민들도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단호히 배격하고있다. 제국주의황색바람이쉬도 쓸기전에 맹아단계에서 분쇄되고있는것이 인민군대가 혁명의 기둥으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의 자랑찬 현실이다.

원래 군대는 무력으로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지니고 탄생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군대가 조국방위의 담당자로뿐아니라 사상전선을 지키는 제일기수로 되고있다. 인민군대가 있는 한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반동적사상공세도 맥을 추지 못할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에서 백전백승할수있게 하는 무적필승의 정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압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는 조건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우리 인민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될수 있습니다. ≫

군사적대결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가장 격렬한 형태를 띠고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다.

랭전이 종식된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강도적인 힘의 론리에 매여달리고있다. 정치외교적방법으로 자기의 침략적야욕을 실현하지 못하면 지체없이 횡포한 군사적공격으로 넘어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상투적인 수법으로 되고있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도의나 관례도, 공인된 국제법도 통하지 않는다. 군사만능의 힘의 론리에 환장한 제국주의자들에게 리성을 바라는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오만한 무력행사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 백전백승할수있는 튼튼한 군사적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오성산과 대덕산을 비롯한 수많은 최전방지휘소로부터 군수공업기지에 이르기까지 몸소 찾으시여 국방건설의 모든 문제를 현지에서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우리의 군력이 최상의 수준에 이르게 한 생명수였다. 이 나날에 우리 인민군대는 전군에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이 확립되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갖춘 일당백, 일당천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오늘 우리의 강력한 군력은 원쑤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는 무자비한 장검으로 되고있다. 인민군대의 위력이 무한대하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무모한 핵소동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갈 때에도,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을 강행하려고 할 때에도 적들의 도전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킬수 있었다.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강적을 총 한방 쏘지 않고 타승한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정치외교적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담보하는 힘있는 정치이다.

외교전은 단순히 말과 말, 두뇌와 두뇌의 싸움이 아니다. 능란한외교의 배경에는 정치군사경제적힘이 놓여있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제국주의와의 정치외교적대결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립장은 추호의 양보도 없이 혁명의 근본리익을 고수하는 강경한 자세이다. 간악한 제국주의와의 외교전에서는 한걸음의 양보가 백걸음, 천걸음의 양보를 가져온다. 국제정치사에는 제국주의의 강압에 못이겨 한걸음 후퇴한탓에 신성한 자주적권리를 침해당하고 나중에는 혁명의 전취물을 송두리채 빼앗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강경한 자주외교는 바란다고 하여 실현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치렬한 외교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마지막주패장은 언제나 자기의 튼튼한 정치군사적 잠재력이며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필승의 신념이다.

오늘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적들과의 외교전에서 필승의 담보로되고있다. 수십년동안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고있다.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하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여러갈래의외교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있는 선군정치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는 그어떤 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할 소리를 다하면서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강경하게 맞서나갈것이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정의와 부정의의 대결이다. 제국주의를 타승하여야 사회주의가 정의의 위업으로 빛을 뿌릴수 있다.

그 유일무이한 보검이 선군정치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의 독단과 전횡을 짓부시고 인류의 량심과 사회주의를 지키는 정의의 정치로 영원히 위력떨칠것이다.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는 현명한 정치

지난 5년간의 선군혁명령도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것은 이 나날에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가 튼튼히 마련된것이다.

선군정치는 비단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만 위력한것이 아니다. 단순히 군사를 위한 군사, 국방력강화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는 정치가 바로선군정치이다. 이것으로 하여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의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수 있는 만능의 정치, 일석다조의 현명한 정치로 불리우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사회의 튼튼한 밑뿌리를 마련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이것이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입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란 밑뿌리가 든든한 나라이다. 정치의 현명성은 사회의 밑뿌리, 사회정치적지반을 철벽으로 다지는데서 나타난다. 력사의 교훈은 강대한 군사력과 방대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진 큰 나라라해도 사회정치적지반이 공고하지 못하면 붕괴될수 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밑뿌리가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군대와 인민이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야 한다.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사회를 받드는 주추돌이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2대력량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고한 사회정치적지반이 형성되게 된다. 이것이 선군혁명철학에의하여 밝혀진 혁명의 공식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군민일치가 비상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혁명적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전인민적사상감정으로 되고 군대의 일본새와 투쟁기풍, 도덕과 문화가 사회에 끊임없이 흘러들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서로 사랑하고 원호할뿐아니라 그들사이에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가 보장되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진면모이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군민일치가 억세여우리 혁명대오가 강하고 우리 사회가 건전한것이다. 군민의 혼연일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초이고 사회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활력소이다. 이 위대한 군민일치의 위력으로 우리는 이 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정권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담보이다.

원래 정권과 총대는 떼여낼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총대에서 정권이나온다는 명언은 정권건설에서 혁명무력이 노는 역할을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하여주고있는가.

우리의 정권건설력사는 곧 선군정치의 력사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정권이 창건되기에 앞서 군대가 먼저 건설되였다.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강화발전된 위력한 혁명군대가 있었기에해방후 지체없이 당창건위업이 실현되고 우리 공화국이 창건될수 있었다. 선군혁명령도의 이 고귀한 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고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정권이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공고한 혁명정권으로 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하에서 지난 5년간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비할바없이 공고화되였다. 나라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력량을 통솔지휘할수 있게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이 강화된것은 조국의 밝은 전도를 담보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군사중시의 우리 국가기구체계는 무적의 군사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정치적자주권을 확고히 담보하고 경제발전과 나라의 부흥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정치체제이다. 새로운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더욱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정권이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라면 군대는 정권을 지키는 기본수단이다. 현실은 군중시방향으로 나가야 사회주의정권의 정치경제군사적토대가 철옹성같이 다져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선군정치는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활력있고 강유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의무기로 강화발전시킬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원동력이다.
오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이 거창한 과업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다.
한때 사회주의배신자들은 국방에 힘을 넣으면 경제가 주저앉고 사회발전이 떠진다고 하면서 나라의 국방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이것은 군대를 단순히 물질적부의 소비자로만 보는 그릇된 관점에 기초한것이다. 군대가 강해야 경제건설의 평화적조건이 보장되게된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주력군, 돌격대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과제도 해제끼고 인민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킨다. 선군정치에서 잃을것은 침체와 답보뿐이고 얻을것은 비약과 고조, 민족의 부흥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 굳게 믿으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제일 어렵고 관건적인 전선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그리고 전체인민이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조성된 경제적난관을 뚫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으로첫 인공지구위성이 성과적으로 발사된것은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한 과시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책동하여 왔다. 그 리면에는 우리가 경제건설에 큰힘을 돌리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가 저절로 붕괴되게 하자는 검은속심이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정세를 격화시켜도 우리경제는 질식되지 않았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도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진퇴량난에 빠진것은 제국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군혁명로선으로 적들의 조선식사회주의의 ≪위기설≫, ≪붕괴설≫을 과감히 짓부시고 보란듯이 민족경제를 부흥번영시킬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두차례의 가장 혹심한 파괴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을 소생시켰다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가장 어려운 역경속에서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놓았다. 그 빛나는 공적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우리 혁명은 선군정치로 영원히 승리할것이다

선군혁명의 길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혁명의 종착점에 잇닿아있는 필승의 길이다. 우리는 선군정치가 앞으로도 우리 혁명과 우리 시대 자주위업수행에서 무궁무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선군정치의 영원한 생명력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에 있다.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며 구현자, 관철자이다. 인민들속에 뿌리박고 인민자신의것으로 된 정치가 참말로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정치이다.
우리 인민은 당을 따라 걸어오는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폐부로 절감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무적의 강군을 이끌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때마다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심장깊이 새겨왔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없다면 조국도 혁명도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의 목소리이다.
오늘 세계에는 인민들과 유리되고 인민의 버림을 받는 정치가 횡행하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같이 인민들을 심취시키고 온 넋을 틀어잡는 정치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우리 인민은 군력이 약한탓에 망국노로 굴러떨어졌던 쓰라린 력사도 가지고있고 억센 총대로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한 영광의 력사도 가지고있다. 총대를 사랑하고 총대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이 뼈와 살에 새긴 신조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절대로 혁명의 총대를 놓지 않을것이며 선군혁명의 일로를 끝까지 걸어갈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영원한 생명력은 령도자의 특출한 자질에 있다.

정치방식은 정치가의 사상과 품격의 반영이다. 정치방식의 위력은 결국 정치가의 자질과 수완에 달려있다.

선군정치방식은 그 누가 모방한다고 하여 실현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선군정치방식은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방식이다. 그것은 정치에도 만능이고 군사에도 만능이고 경제문화에도 만능인 탁월한 정치가에 의해서만 구현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현시대가 갈망하는 장군형의 정치가의 최고귀감이시다. 예리한 정치감각과 비상한 군사적예지, 전당, 전군, 전민을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뛰여난 조직적수완과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결단성, 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한 해박한 지식을 다같이 겸비하신분이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는 군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에서도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문무를 겸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떠나서 이 땅에 무적의 군사력에 의거하여 백전백승하는 선군정치의 새 력사가 펼쳐진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선군정치야말로 **김정일**동지의 걸출한 위인상이 집약되여있는 위대한 혁명령도방식이며 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독특한 **김정일**식정치방식이다.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고 영원불변한것이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정치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선군정치의 승리의 력사로 수놓아지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가 찬란히 펼쳐지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누구나 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대가 강해야 우리 인민이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들을 보위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군혁명로선을 우리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한다.

군사를 앞세우는것은 전술적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문제이다. 정세가 긴장되든 완화되든 관계없이 견지해야 하는것이 바로 선군혁명로선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때로는 ≪유화≫정책을 쓸수도 있고 ≪강경≫정책으로 나올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든추호도 흔들리지 말고 군사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선군혁명원칙으로부터의 탈선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혁명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사소한 안일과 해이도, 부르죠아평화주의의 자그마한 요소도 있을수 없다. 인민군대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전군을 오늘의 오중흡7련대로 만들어야 하며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고 어데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 나라를 소왕청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굳건히 다져나가야한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여 군민의 단합된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당, 국가 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인민군대를 내세우고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기풍이 서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를 위하여 매우 좋은 일이다. 오늘 우리사회에 차넘치는 군사중시의 기풍은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주추돌이 되고 손발이 되려는 우리 인민의 충효심의 뚜렷한 발현이다.

모든 당, 국가경제 기관들에서는 군사사업과 관련한 과업을 무조건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강력한국방력을 담보해주는 우리 식 경제구조를 적극 살려야 한다. 누구나인민군대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우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다.

위대한 선군혁명로선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가있는 한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상은 만방에 떨쳐질것이며 이 땅우에는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